

碩士學位論文

중국어에서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

-중국어강력교정수첩(漢語強力糾錯手冊)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中科

高枝淑

2003年 7月

중국어에서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

-중국어강력교정수첩(漢語強力糾錯手冊) 翻譯論文

指導教授 金 中 燮

高 枝 淑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高枝淑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3年 7月

역자서언

역자가 처음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자 장애가 되었던 것은 그렇게 많은 한자의 발음을 언제쯤이면 다 익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평소 따분하기만 했던 한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알고, 또 바르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처음에는 매 글자마다 발음을 따로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회화 위주로 되어 있는 중국어 학습과정에서 익혀야 할 발음과 글자들은 다행히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자를 쓰는 것은 비록 그때는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였지만 방학마다 많은 분량의 한자쓰기 과제를 제출해야 했던 덕택에 충분한 양의 글자들을 익힐 수 있었다.

대학을 다니던 때와 대학졸업 후 몇 년간 중국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수준의 중국어, 즉 회화에서 필요한 수준의 발음과 글자만 알면 학습이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통역대학원에 입학하고 통번역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부분을 주의해야 했다. 일상회화에서는 아예 쓰지 않으나 문서나 문장번역에서는 자주 쓰는 글자들을 다시 익혀야 했고 쉬운 회화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용이긴 하나 통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배경에 따라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하기도 했다. 그런 연습과정에서 발음이나 글자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어강력교정수첩(汉语强力纠错手册)』과 같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래 이 책은 중국의 방송기자, 아나운서 등 정확한 언어구사가 요구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공구서로서 평소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 잘못 쓰기 쉬운 단어, 잘못 쓰기 쉬운 성어, 문장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폐(語弊), 바르게 쓰기 어려운 구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다.

역자는 이 책을 보고나서 그 동안 잘못 알고 잘못 읽었던 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책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같이 “狹隘(xiá ài)”

라는 말을 보면 뜻은 알겠으나 정확한 발음은 몰라서 글자의 한 부분만 보고 그냥 “xiá yì(狹益)”로 읽어버린 적이 많았고, 매우 자주 사용하는 “称”이라는 글자도 “chēng”, “chèng”, “chèn”이라는 세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어떻게 읽어야 할지 혼동하여 “称职(chèn zhí)”를 “chēng zhí”로 잘못 말한 경우도 있다.

틀리기 쉬운 글자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컴퓨터로 문서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은 글자를 틀리게 쓰는 유형 중의 하나인 필획 하나를 잘못 첨가 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잘못 그음으로써 틀린 글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들의 예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되는 경우, 즉 “高粱”을 “高粱”으로 잘못 쓰거나 “外快”를 “外快”로 잘못 쓰거나 하는 일들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 예이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형태, 소리, 의미 3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같은 자(字)가 어떤 뜻으로 쓰는가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소리는 같지만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번역과 통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음과 글자를 틀리게 사용하는 일은 자칫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후자는 ‘책의 내용 중의 일부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더라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이다’라고 하거나 ‘중국인조차도 잘 몰라서 중국 내에서도 규범화되지 않은 말인데 굳이 까다롭게 익혀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를 통역 또는 번역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대한의 정확한 통역과 번역을 위해서 중국어의 오용현상에 대해 반드시 각성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역자는 이 책을 번역논문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 역자는 통번역 연습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통번역은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목표만을 추구한 나머지 정확히 모르는 발음이나 글자에 대해 사전을 찾아 바르게 익히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 논문의 준비기간을 그동안 역자 자신의 게으름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본 번역논문의 원저는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 <잘못쓰기 쉬운 단어>, <잘못쓰기 쉬운 성어>, <문장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폐(語弊)>, <바르게 쓰기

어려운 구어>와 같이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전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끄집어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역자는 미세한 부분처럼 보이긴 하나 한 글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문장이나 단락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부분을 먼저 번역하기로 정했다.

또한 역자는 본 논문이 중국어교정지침서로서 갖는 역할 외에 다른 한 가지 가치를 더 부여하고자한다. 일부 중국어전공 학생들은 중국어를 공부해서 단지 일상생활에서 또는 업무에서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역자는 대학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본 논문의 내용을 가끔 참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같은 “册”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왜 “珊”과 “姗”은 shān으로 읽고 “栅”은 “zhà”로 읽는 지를 생각해보게 한다거나 “哺”, “哺”, “脯” 이 비슷하게 생긴 세 글자는 각각 다른 부수를 씌우으로써 어떤 다른 뜻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최근 일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음운학이나 문자학과 같은 순수학문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나머지 부분도 빨리 번역되어 명실상부한 중국어종합교정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논문을 읽는 통역가나 번역가,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러두기

1. 각 글자마다 그 글자가 쓰이는 용례를 단어 또는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취지에 근거해서 비교적 난해한 단어에 대해서만 소괄호를 이용해 해석을 달았다. 그 외의 용례는 설명 내용을 숙지하면 대부분 해석이 가능하다.

2. 글자의 발음을 적는 방법으로 저자는 한어병음자모를 먼저 적고 소괄호 안에 그 발음을 가진 동음자를 첨가했다. 그러나 똑같은 발음에 대해 저자가 채택한 한자어 중에는 하나 이상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것으로 읽어야 할지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역자는 번역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예> “ā zā(阿扎)”를 “ā zā”로 고침 (‘扎’라는 글자는 zā, zhā, zhá 세 가지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

3. 내용해석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출판된 중한사전을 참고로 했다. 그러나 저자가 책에서 틀리다고 지적하고 있는 몇몇 글자들의 발음이 이 사전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

예> “落包涵”, “落不是”를 책에서는 “luò包涵”, “luò不是”로 읽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중한사전에는 “luò包涵”, “luò不是”로 읽어도 된다고 나와 있다.

중국내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바른 발음인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다. 역자는 원저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기로 했다. 즉, 이 책에 실린 발음은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에 나온 발음과 다를 수 있다.

4. 중국 지명의 표기는 원지음으로 표기한 후 한자를 넣는 것으로 했으며 중국 인명의 표기는 모두 신해혁명(1911년) 이전의 인물임을 감안하여 한국한자음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그 외 고유명사는 모두 ‘외래어표기법(문교부 고시 제1995호)’를 기본으로 하여 표기했다. 단, 국내에서 한국한자음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경우 한국한자음으로 표기했다.

예> 山东省 → 산둥성

屈原 → 굴원

北京广播学院 → 베이징광보대학

人民日报 → 인민일보

5.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글자와 용례에 대해서는 모두 큰따옴표(“”)를 사용했으며 글자나 단어의 뜻 부분에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했다.

6. 원저는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 <잘못 쓰기 쉬운 단어>, <잘못 쓰기 쉬운 성어>, <문장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폐(語弊)>, <바르게 쓰기 어려운 구어>와 같이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이 중 첫 부분인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부분을 발췌해 번역한 것이다.

저자소개

스치(施旗)

본명은 스지보(施济博)이며 1930년 리아오닝성(辽宁省) 티에링현(铁岭县)에서 태어났다. 1949년 12월부터 방송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956년 중국인민대학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 공부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베이징광보대학(北京广播学院)에서 교편을 잡았다. 중국어교육과 연계시켜 방송언어에 대해 연구를 펼쳤으며 1990년에는 교수로 임명되어 대학원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그는 이미 백여 편에 가까운 응용언어와 관련된 글을 발표하였다. 출판된 저서로는 『방송언어(广播电视语言)』, 『방송언어연구(广播语言研究)』, 『중국방송 및 텔레비전학(中国广播电视学)』, 『방송표현 및 어법규칙(播音表达和语法规则)』, 『방송언어의 응용(广播语言的运用)』, 『현대중국어(现代汉语)』, 『실용어법강좌(实用型语法教程)』, 『중국어강력교정수첩(汉语强力纠错手册)』 등이 있다. 그의 방송언어 연구에 대한 많은 훌륭한 성과는 중국 방송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예핑(曼叶平)

만만(曼曼), 즈란(紫蓝)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여성으로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威海)사람이며 중국언어학회(中国语言学会) 북경지부 회원이다. 1991년 베이징광보대학(北京广播学院) 방송문학과를 졸업하고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인민일보사로 배치 받아 일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민일보사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다.

일찍이 광고와 번역일에 종사했으며 여러 장르의 도서 백여 편을 기획하고 편집했다. 그 후 계속해서 『인민일보 해외판(人民日报海外版)』, 『뉴스출판보(新闻出版报)』와 잡지인 『중국방송(中国广播)』, 『현대매체(当代传播)』, 『다리(桥)』 등 전국으로 교부되는 잡지에서도 40여 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그가 번역한 드라마가 중국중앙방송국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그의 저서로는 『방송표현 및 어법규칙(播音表达和语法规则)』, 『중국어강력교정수첩(汉语强力纠错手册)』, 『여성재테크 성공가이드(女性理财成功指南)-번역서』 등이 있다. 그녀는 주로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 언어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수정설명

『중국어강력교정수첩(汉语强力纠错手册)』은 1991년 1월 첫 출판된 후 많은 독자의 환영을 받았는데 이것은 본 책의 높은 지적 가치와 실용성이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범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어떤 간행물 편집자들은 본 책을 필수적인 참고서로서 시시때때로 이용하고 있으며, 항상 말을 할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방송 종사자들도 각종 언어오용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책을 보고 바로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문서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본 책이 그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문과수업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주로 표면적으로만 가르치고 있을 뿐 잘못 썼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고쳐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본 책이 마침 이 방면의 부족을 메워주고 있다고 학생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책도 여러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독자들이 현재 언어사용에서 틀리게 읽거나 틀리게 쓰고, 잘못 사용하는 현상이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는데도 그 중 많은 내용을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성어사용도 자주 틀리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본 책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정서’로서의 본 책 자체도 잘못 쓴 말들이 들어 있어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었다.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본 책에 대한 보충과 수정을 실시하였는데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 잘못 사용하는 단어, 자주 볼 수 있는 어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수록했다. 특히 성어오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한 부분을 다시 첨가해 보충했으며 내용구성의 격식도 개선했다. 이렇게 수정을 가한 『중국어강력교정수첩(汉语强力纠错手册)』은 더욱 풍부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학습할 수 있으며 독자들이 더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책이 각계각층의 독자들의 요구를 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언

중국어의 순화와 규범화를 위하여

현재 중국의 언어사용은 비교적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 번체자가 다시 사용되고 이체자가 횡행하고 있으며 많은 오자가 생겨났고 약어가 남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만든 신조어가 범람하고 있으며 각종 어폐(語弊)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현대중국어의 규범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한자는 그 자체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수량의 방대함, 복잡한 필획 외에도 자형(字形) 자체만으로는 발음을 명확히 표시할 수 없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함에 있어 발음(音), 자형(形), 뜻(義)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말하고 읽고 쓰는 법을 틀리기 쉽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이든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든 모두 글자를 잘못 읽는 경우가 있고 보통 민간인이나 국가간부나 모두 마찬가지로 종종 글자를 틀리게 읽는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偌大”를 “諾大”로 잘못 읽은 적이 있고 한 대학생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駐)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을 폭파시킨 사건에 대해 “这是对我国主权的公然挑半”(‘이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라는 뜻으로 ‘挑衅’을 ‘挑半’으로 오용함-역자주)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대학교수는 강의 중에 “破绽百出(결점투성이다)”를 여러 차례나 “破定百出”라고 잘못 말해서 후에 학생들이 아예 그에게 “破定先生”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또 다음과 같은 일화도 있다. 어느 고등학교의 지도주임은 회의시간에 교사들에게 좀더 높은 학술적 “造旨(‘造詣’를 잘못 말함-역자주)”를 갖출 것을 요구해서 박장대소하게 하였다. 한편 한 차관급 간부는 회의 중 연설에서 갑자기 『丰乳肥臀(tún)』이라는 책 제목을 『丰乳肥殿(diàn)』이라고 말해 청중들을 웃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한 대기업의 사장은 회사 개업식에서 첫마디를 “欢迎大家莅临指导”(‘왕림하셔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의 뜻으로 ‘莅临’을 ‘位临’으로 잘못 말함-역자주)라고 시작해서 귀빈들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 외에도 책, 신문, 잡지, 방송, 음악과 영상 등의 분야나 공공장소에 써있는 말에서 보이는 언어 오용현상은 더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틀린 부분이 없으면 출판

물이 아니고 언어를 잘못 사용하지 않으면 방송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이런 현상들을 바로 잡아 중국어의 규범화를 꾀하기 위해 펴낸 책이 바로 1999년 1월에 정식으로 발행한 『중국어강력교정수첩(汉语强力纠错手册)』이다.

본 책이 출판된 후 많은 독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모두 본 책의 풍부한 내용, 독특한 구성, 그리고 적절한 예와 지식적 가치, 실용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 주었다. 그러나 오용되고 있는 많은 상용자들 가운데 여전히 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행 때 이를 수정, 보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독자들의 요구에 알맞게 이번 재발행 작업에서는 원래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과 보충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제1부분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와 제2부분 “틀리기 쉬운 단어”에서는 모두 항목 수를 늘렸으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글자와 단어를 골라 수록하려고 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성어의 오용 및 남용현상에 대해서 제3부분 “잘못 쓰기 쉬운 성어”를 따로 증편했으며 제4부분 “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과 제5부분 “바르게 쓰기 어려운 구어”에 대해서는 몇몇 새로운 내용을 보충했다.

내용에 대한 보충과 수정뿐만 아니라 편집구성방법도 일부 개선했다.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4부분 “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한어병음자모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배열하였다. 또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괄호 안에 한어병음자모를 달았을 뿐 아니라 같은 발음의 글자를 다시 넣음으로써 보다 일목요연하고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책은 발음과 글자, 단어선택 및 문장 만들기, 성어사용과 올바른 구어 사용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 만나는 언어오용현상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오(正誤)분석을 실시했으며 어디가 틀리고 왜 틀리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명확히 지적하였다. 본 책은 독자들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여러 가지 언어오용의 예를 극복하고 중국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는 또한 본 책의 편집 목적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언어사용 수준은 곧 그 사회의 문명정도를 반영한다. 현대화되고

높은 문명수준을 가진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언어는 더 규범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사람간의 교류가 더 편리해지며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이루어진다. 정확한 언어사용은 중국어의 규범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함양과 전 민족의 언어소양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 2000년 9월 28일



틀리기 쉬운 발음과 글자

1. 잘못 읽기 쉬운 글자

언어소통의 방법 중 유성(有聲)언어를 사용하면서 글자를 잘못 읽게 되는 일이 시시때때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발음이 틀리면 뜻을 전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언어의 규범화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음이 틀리면 남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어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글자를 잘못 읽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적 소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글자의 발음이 틀리는 이유를 대략 다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의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읽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읽는다. 예를 들어 각각 “隘(ài)”를 “益(yì)”로, “復(bì)”를 “复(fù)”로, “绽(zhàn)”을 “定(dìng)”으로, “瞠(chēng)”을 “堂(táng)”으로, “涸(gù)”를 “固(gù)”로 읽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한자에는 한 부분만을 보고 읽어도 되는 글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글자들이 더 많다.

둘째, 자형(字形)의 유사성 때문에 모양이 비슷한 글자의 발음으로 잘못 읽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厄(è)”를 “危(wēi)”로, “泠(líng)”을 “冷(lěng)”으로, “宦(yì)”를 “宦(huàn)”으로, “殚(dān)”를 “憚(dàn)”으로, “赅(gāi)”를 “咳(hāi)”로 각각 읽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 이상의 발음을 가진 글자(‘다음자(多音字)’라고 함)를 읽을 경우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는 격으로 용법이 변하였는데도 발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参”, 이 글자는 “参加”에서는 cān으로 읽지만, “参差不齐(가지런하지 못하다)”에서는 cēn으로 읽어야 하며, “人参”에서는 shēn으로 읽어야 한다. 한자에는 매우 많은 다음자가 있다. 그러므로 그 글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발음을 모두 알아야만 오독(誤讀)을 피할 수가 있다. 본 책에서는 비교적 틀리기 쉬운 글자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매 글자에 대해 구분법을 적어 틀린 것과 바른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참고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바란다.

A

阿(a) 다음자로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틀리게 읽기 쉬운 글자이다. 어기조사로 사용할 때는 a로 읽어야 하고, “阿姨”, “阿哥”처럼 단어의 접두사로 사용되면 ā로 읽어야 하고, 실사로 사용하면 ě로 읽어야 한다. “阿谀(아첨하다), 阿附(아부하다), 阿胶(아교), 阿弥陀佛(아미타불)”에서 모두 실사로 사용되었으므로 ě로 읽어야 한다. “ā 谀”, “ā 弥陀佛”에서와 같이 “阿”를 “ě”로 읽어야 할 곳에서 ā로 읽으면 잘못 읽은 것이다.

腌(ā) 방언인 “腌”은 ā로 읽어야 한다. “腌臢”는 ‘깨끗하지 않다’, ‘마음이 언짢다’, ‘사람을 능욕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ā zā”로 읽어야 한다. 가끔 “ān zān”으로 읽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皑(ái) ‘눈처럼 희다’라는 말을 “白雪皑皑”라고 한다. “皑”는 ái로 읽어야 하는데 ài로 읽으면 성조가 틀린 것이다. 또 kǎi라고 읽는 것도 글자를 잘못 알고 읽은 경우이다.

欸(ǎi) 이 글자는 ài로 읽으며 “唉”자와 같은 글자이다. 그러나 의성어로 쓸 때는 ài로 읽어야 하는데 “欸乃归舟(어기여차하며 귀향하는 배)”에서 ài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또 “欸”를 감탄사로 쓸 때는 ě로 읽어야지 ài로 읽어서는 안된다.

隘(ài) 글자의 한 부분만을 보고 “狭隘”를 “狭 yì”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글자를 잘못 안 것이다. 또 이것을 “狭 ài”로 읽는다면 성조가 틀리게 된다. “隘”는 ài로 읽어야 하며, ‘편협하다’는 뜻으로 쓴다.

谳(ān) 오른쪽 부분이 “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yīn으로 읽는다. 또 “暗”과도 자형이 비슷하여 àn으로 읽기도 하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谳”의 부수는 말씀언변(言)이며 ‘익숙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 글자의 정확한 발음은 ān

으로 “谙熟(숙달하다)”, “谙练(숙련하다)” 등에서와 같이 쓴다.

厂(ān) 이 글자는 “工厂”에서와 같이 모두 chǎng으로 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명에서는 ān으로 읽어야 한다. “厂”은 “庵”과 같은 글자로 “尼姑庵(비구니암자)”을 “尼姑厂”이라고도 쓰고, “茅庵(작은 초가집)”을 “茅厂”이라고도 쓰는데, 여기에서 “厂”은 모두 ān이라고 읽어야지 chǎng이라고 읽어서는 안된다.

盎(àng) 글자의 윗 부분이 ‘央’자이기 때문에 종종 yāng이나 yàng으로 잘못 읽는다. 예를 들어 “一盎”을 yí yàng으로 읽는 경우가 있다. “盎”은 àng으로 읽고 “春意盎然(봄기운이 충만하다)”에서와 같이 ‘충만하다’는 뜻으로 쓴다. 또 “盎司(온스)”는 영국과 미국에서 쓰는 무게단위를 가리키며 1온스는 1/16파운드에 해당한다.

凹(āo) 이 글자는 자형의 영향을 받아 종종 wā로 읽게 되는데 작가인 “贾平凹”를 “贾平 wā”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凹”는 ‘움푹 패이다’는 뜻으로 wā로 읽지 말고 āo로 읽어야 한다. “凹陷”, “凹透镜” 등에서 모두 āo로 읽는다. 단, 지명으로 쓰일 때는 “凹”를 wā로 읽는데 중국 산시성에 “核桃凹”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媪(ǎo) “老媪”는 ‘노년여성’을 가리킨다. 이 글자는 오른 쪽이 “媪”이어서 사람들이 가끔 wēn으로 읽게 된다. 그러나 “老媪”를 “老wēn”으로 읽는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拗(ào) “拗口”를 “yào 口”나 “rào 口”로 읽는 것은 모두 틀린 발음이다. 말할 때 어딘가 이상하고 혀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拗口”라고 하는데 여기서 “拗”는 ào로 읽는다. “拗口令”을 “绕口令”으로도 말할 수 있고 “拗口”를 “绕嘴”라고도 말하는데 그 뜻은 같다. 그러나 “拗”와 “绕”는 발음이 서로 다르므로 글자를 잘못 읽어서는 안된다. 즉, “拗口”를 “绕口”로 읽을 수 없으며 “绕嘴”를 “拗嘴”로 읽을 수 없다.

B

扒(bā) 이 글자의 발음은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편으로 bā나 pā로 또는 pá나 pǎ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 글자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 “扒车(달리는 차에 뛰어오르다)”, “扒皮(가죽을 벗기다)”, “扒衣服(옷을 벗기다)”, “扒墙头(담의 윗부분을 잡다)”에서는 bā로 읽어야 하며, “扒手(소매치기)”, “扒窃(소매치기하다)”, “扒糕(메밀묵)”, “扒鸡(닭을 졸인 요리)”, “扒羊肉(양고기를 삶은 요리)”에서는 pá로 읽어야 한다. 즉, “pǎ 糕”, “pǎ 羊肉”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 중국어에는 pǎ라는 발음이 없다. 또, “bā 鸡”, “pā 鸡”라는 발음은 모두 틀린 것이다. “扒拉”에는 두 개의 발음법이 있는데 “别用手乱扒拉.(함부로 손으로 밀지 마라)”라고 말할 때는 “bā 拉”로 읽고 “往嘴里扒拉饭.(입으로 밥을 처넣다)”에서는 “pá 拉”라고 읽어야 한다.

鮫(bà) “鮫鱼(삼치)”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马鲛鱼”라고도 부른다. bā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자는 bà로 읽어야 한다. “鮠”는 bā로 읽는 글자인데 “鮠鱼(비늘어름치)”는 민물고기로 “鮫鱼”와는 다르다. “鮠”, “鮫”를 제대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곧 다른 두 종류의 물고기를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鮫”를 fā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더욱 틀린 발음이 된다.

擗(bǎi) 오른 쪽의 “擗”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자주 이것을 bǐ로 읽거나 pǐ로 읽는데 틀린 발음이다. “擗”는 bǎi로 읽어야 한다. “擗阖”는 원래는 ‘열고 닫다’는 뜻으로 ‘어떠한 술수로 끌어들이거나 분열시키다’는 말로 이용한다. 예를 들면 “擗阖之术(임기웅변술)”, “纵横擗阖(정치, 외교상의 수단을 써서 연합, 분열, 이간, 포섭을 하다)” 등이 있다.

稗(bài) 논에 나는 쓸모없는 풀 중에 “稗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稗”발음은 bài로 “稗子”를 “pǐ 子”로 읽으면 틀리다. “稗官野史”의 “稗”도 bài로 읽어야지 pǐ라고 읽어서는 안된다.

蚌(bàng) 물속에 사는 연체동물로서 방울지렁(蚌鹵之爭)의 고사(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다 둘 다 어부에게 잡히다, 어부지리)에 나오는 “蚌(마합)”은 동물을 가리킬 때는 bàng으로 읽는다. 그러나 지명 “蚌埠”(방부, 안휘성에 있는 도시)에서 “蚌”는 bèng으로 읽어야 한다. 발음이 완전히 다르므로 확실히 구분해 사용해야지 혼용해서는 안된다.

磅(bàng) “磅秤”을 “bèng 秤”으로, “过磅”을 “过 bèng”으로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磅”는 bàng으로 읽어야지 bèng으로 읽지 않는다. “磅”은 또 “气势磅礴(기세가 드높다)”라는 말에서와 같이 páng이라는 발음도 가지고 있다.

胞(bāo) 이 글자는 예전에는 pāo로 읽었으나 나중에 심의를 거친 표준 발음이 bāo로 정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의 발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同 pāo”, “侨 pāo”처럼 틀리게 쓰고 있다. 각각 “同 bāo”, “侨 bāo”로 읽어야 맞다.

褒(bāo) 이 글자는 자주 성조를 틀리게 써서 “褒奖”을 “báo 奖”으로, “褒义”를 “bǎo 义”로 읽거나 “褒贬”을 “bǎo 贬” 또는 “báo 贬”으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褒”자는 모두 bāo로 읽어야 한다. “褒”는 다른 성조로는 읽을 수 없고 제1성으로만 읽는다.

剥(bāo) 두 개의 발음으로 쓰이고 있어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剥皮”를 “bō 皮”로 읽거나 “剥削”를 “bāo 削”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된다. “剥皮”, “剥花生”, “剥鸡蛋” 중의 “剥”는 bāo로 읽고, “剥削”, “剥夺”, “剥落”, “生吞活剥” 중의 “剥”는 bō로 읽어야 한다. 즉, “剥”는 구어에서 단독으로 쓸 때는 bāo로 읽고, 합성어나 성어에 쓸 때는 bō로 읽어야 한다.

薄(báo) “薄”는 báo로도 읽고 bó로도 읽는다. 그러므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혼독(混读)하기 쉽다. “厚古 báo 今”, “日 báo 西山”이라고 읽는다면 분명히 잘못 읽은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bó 片”, “bó 脆”라고 읽는 것도 틀린 발음이다. 두께를 표시하거나 단독으로 쓸 때 “薄”는 báo로 읽어야하며 “薄饼”, “薄纸”,

“酒味薄”，“家底薄”에서와 같이 “厚”와 반대되는 뜻으로 쓰면 báo로 읽어야 한다. 반면 합성어나 성어에서는 bó라고 읽는데 “薄利”，“薄弱”，“薄命”，“日薄西山”，“厚古薄今” 등이 그 예이다. 단, 薄荷의 “薄”는 bò라고 읽어야 한다.

堡(bǎo)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어 자칫 틀리기 쉬운 발음이다. “十里堡”를 “十里 bǎo”라고 읽거나 “桥头堡”를 “桥头 pǔ”라고 읽는데 다 잘못 읽은 것이다. “堡”는 “堡垒”，“碉堡”，“城堡”，“桥头堡”등의 단어에서 bǎo로 읽어야 하며, 지명에 쓸 때는 “十里堡”，“五里堡”，“崔家堡”처럼 pù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堡子” 두 글자를 같이 쓰면 “bǔ 子”로 읽어야 하는데, ‘마을, 촌락’의 뜻으로 “包家堡子”，“柴沟堡子”등이 예이다.

鸨(bǎo) 바르게 읽기 어려운 글자로 막연히 diāo나 jiū로 읽어버리는데 틀린 발음이다. “鸨”는 bǎo로 읽으며 새의 한 종류(너새)이다. 또 “老鸨”는 ‘기방을 운영하는 기생어미’를 일컫는 말이다.

焙(bèi) “培”，“陪”의 자형과 비슷하고, 오른쪽 부분이 ‘ㅍ’자여서 종종 péi로 잘못 읽는다. “陪”，“培”，“赔”는 모두 péi로 읽는다. 그러나 불화변(火)이 있는 “焙”는 péi로 읽지 말고 bèi로 읽어야 한다. 약한 불에 말리는 것을 “焙干”이라고 한다.

悖(bèi) 자형이 비슷한 “勃”，“脖”자의 영향 때문에 “悖”를 bó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悖”는 심방변(忄)으로 bèi로 읽어야 하며 ‘상반되다, 위반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并行不悖(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어그러짐이 없다)”，“悖入悖出(악으로 모은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한다 《대학》)”，“悖时”，“悖理” 등에서와 같이 쓴다.

奔(bēn) bēn으로도 읽고 bèn으로도 읽는 글자이다. 성조만 다르기 때문에 잘못 읽기 쉽다. 먼저 “投奔”，“奔向”，“奔南走”，“有奔头” 등에서와 같이 “~로 나아가다”의 뜻으로 쓰면 bèn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급하다, 급히 뛰다, 바빠 뛰어들다’

니다’의 뜻으로 쓰면 bēn으로 읽어야 하는데, “奔驰”, “奔赴”, “奔忙”, “奔跑”, “奔腾”, “四处奔走”등이 모두 그 예이다. “奔驰”를 “bèn 驰”로 읽거나 “奔向新世纪”를 “bēn向新世纪”으로 읽으면 모두 틀리다. 한편 “犇”자는 “奔”과 같으나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

贲(bēn) 보통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의사들도 가끔 이 글자를 pēn으로 잘못 알고 “贲门”을 “pēn 门”으로 잘못 읽는다. “贲”은 bēn으로 읽어야 옳다. “贲门”은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식도안의 음식물이 “贲门”을 통해 위로 들어간다. “贲”은 입구변(口)으로 ‘분사(噴射)하다’는 뜻을 갖는다. “贲”자와는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다.

迸(bèng) “迸”을 자주 bìng으로 읽는데 이 글자의 한 부분인 “并”의 발음만을 따서 말한 것으로 틀린 발음이다. “迸”의 발음은 bèng으로 ‘바깥쪽으로 분사하거나 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로 “迸发(뿜어대다)”, “迸裂(파열하다)”, “迸溅(튀다)” 등이 있다.



匕(bǐ) “匕首”는 ‘단검’ 혹은 ‘단도’의 의미로, “匕”의 정확한 발음은 bǐ이다. 이 글자를 bì로 읽어 자주 “bì 首”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조가 틀린 것이다. 또 이 글자는 앞부분을 빼쳐 나오게 써서 “匕”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쓰면 bǐ가 아니라 qǐ로 읽는 글자가 되며 고어에서는 이 글자를 huā라고 읽기도 했다.

秘(bì) bì라고도 읽고 mì라고도 읽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면 틀리기 쉬운 글자이다. ‘공개하지 않다’의 뜻으로 쓰면 “秘密”, “神秘”, “奥秘”, “秘诀”에서처럼 秘를 mì로 읽어야 한다. 반면 국가명 중에 “秘鲁(페루)”의 “秘”는 음역자로 bì로 읽어야 하며 성씨를 나타낼 때도 bì로 읽어야 한다. 지금도 “秘鲁”를 “mì 鲁”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바르게 고쳐 읽어야 한다.

裨(bì) “有所 bǐ 益”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성조를 잘못 읽은 것

이다. “裨”는 bì, 제4성으로 읽어야지 제3성인 bǐ로 읽어서는 안된다. “裨益”는 ‘익점’ 또는 ‘이익을 얻다’는 뜻이다.

辟(bì) 상황에 따라 각각 bì, pì, pī로 읽는 다음자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오독을 방지할 수 있다. “复辟(폐위된 천자가 다시 왕위에 오르다)”를 “复 pī”로, “精辟”를 “精 pī”로, “辟谣(헛소문을 반박하다)”을 “bì 谣”로 읽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辟”는 “开辟”, “透辟”, “精辟”, “辟谣(헛소문을 반박하다)”, “鞭辟入里(내용을 깊이 성찰하고 연구하다)” 등의 단어에서는 pì로, “辟成两半(두 개로 쪼개다)”, “辟头盖脑(정면으로)”등에서는 pī로 읽고, 그리고 “复辟”, “辟邪”, “辟易(무서워서 뒷걸음치다)” 등의 단어에서는 bì로 읽어야 한다.

庇(bì) 어떤 사람은 “庇”자를 pì로 읽어서 “庇护”와 “包庇”를 각각 “pì 护”, “包 pì”로 발음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庇”의 발음은 bì로 “庇护”, “包庇”, “庇佑”, “庇荫”에서 모두 bì 읽어야 한다. “庇”는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庇”자와 거의 비슷한 글자로 pì라고 읽는 “庀”는 ‘구비하다, 관리하다’의 뜻으로 ‘엄호하다’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界(bì) 이 글자는 “世界”의 “界”자와 비슷한 자형을 가진다. 그러나 jiè라고 읽지 않고 bì로 읽는다. ‘주다’의 뜻으로 “界以重任”, “投界豺虎(나쁜 놈을 승냥이와 호랑이에게 내던져주다, 악인에 대한 증오를 뜻함)”에서와 같이 쓴다.

𠔁(bì) “百”자 두 개를 붙여 쓴 글자로 “이백(200)”의 뜻이다. 그러나 발음은 bǎi가 아니며 그렇다고 “二百”로 읽지도 않는다. 발음은 달라져서 bì로 읽어야 한다. 보통 회화에서는 쓰지 않으며 가끔 서면어에서만 사용한다.

𧈧(bì) “贝”자 세 개가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이 글자를 또 bèi로 읽지는 않으며 bì로 읽어야 한다. “𧈧”은 전설속의 동물로 거북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옛날 비석의 대좌에 그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蝙(biān) “蝙”자의 오른 쪽이 “扁”이기 때문에 이 글자의 발음을 따서 “biǎn 蝠”나 “piān 蝠”로 잘못 읽는 일이 많다. 그러나 “蝙”은 biān으로 읽어야 한다. “蝙蝠”는 박쥐를 가리킨다.

砭(biān) 사람들은 “砭”, “贬”의 오른 쪽이 모두 “乏”자로 같아서 둘 다 biǎn으로 읽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砭砭”를 “钎 biǎn”으로 읽는데 잘못 읽은 것이다. “砭”는 biān으로 읽으며 ‘고대 병 치료에 썼던 석침(石针)’을 가리킨다. 또 “砭砭时弊”라는 말은 ‘시국의 병폐를 비판하다’는 뜻으로 쓴다.

弁(biàn) “弁”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yì로 읽거나 “弁”와 비슷하다고 해서 qì라고도 읽지 않으며 biàn으로 읽어야 한다. “弁”는 고대 남자들이 사용했던 모자를 말하며 옛날 낮은 무관직을 상징하기도 한다. “马弁(군벌시대 장교의 호위병)”에 서와 같이 쓴다. 또 “弁言”은 “序言”, “序文”과 같은 뜻으로 쓴다.

焱(biāo) “犬”자 세 개가 같이 쓰였지만 quǎn으로 읽지 말고 biāo로 읽어야 한다. “焱”는 ‘신속하다’는 뜻으로 “飙”와 같은 말이며 그 예로 “狂飙”, “飙风” 등이 있다.

髯(biāo) “马”자 세 개가 한 글자를 이루고 있지만 mǎ로 읽지 않고 biāo로 읽는다. “髯”는 ‘뿔은 말들이 같이 달리고 있는 모양’을 가리킨다.

别(bié) “别”자의 발음은 언제 bié로 읽고 언제 biè로 읽어야 하는지를 혼동하여 자주 틀리게 된다. ‘분리하다’의 의미로 쓰는 “告别”, ‘구분하다’의 의미로 쓰는 “分别”,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别人”, ‘차별’의 의미로 쓰는 “职别”, ‘금지’의 의미로 쓰는 “别去” 등의 말에서는 모두 bié, 제2성으로 읽어야 한다. 반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는 “别扭”, ‘힘이 세다’는 의미로 쓰는 “别着劲”, ‘혀가 잘 안 돌아간다’는 의미로 쓰는 “别嘴” 등에서는 biè, 제4성으로 읽어야 한다. “你 biè 管”, “你 biè 去”로 읽거나 “bié 着劲”, “bié 不过他”로 읽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濒(bīn) “频”과 자형이 비슷하여 사람들이 pín으로 잘못 읽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글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频”는 pín으로 읽고 ‘여러 차례’를 의미한다. 반면 “濒”는 ‘물수변(氵)’이 있는 글자로 bīn으로 읽으며 ‘붙어 있어 가깝다’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濒临大海”, “濒于破产(과산 직전)”이라는 말이 있다.

泊(bó) 이 글자는 가끔 bǎi로 읽어 “湖 bǎi”, “梁山 bǎi”로 잘못 읽는다. “泊”는 bó로 읽어야 한다. ‘배가 육지에 닿다’라는 뜻으로 쓸 때의 “停泊”, ‘머무르다’는 뜻으로 쓸 때 “飘泊”, ‘위치’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는 “泊位”에서 모두 bó로 읽어야 한다. “淡泊名利(명성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다)”라는 성어에서 나오는 “泊”도 bó로 읽어야 맞다. 그러나 호수이름인 “梁山泊”의 “泊”는 bǎi도, bó도 아닌 pō로 읽어야 한다.

跛(bǒ)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걸어 다닐 때 몸이 평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瘸子(quézi 절름발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글자는 qué로 읽을 수 없고 bǒ로 읽어야 한다. “跛子”와 “瘸子”는 뜻은 같으나 발음이 다르다.

不(bù) 이렇게 자주 쓰는 글자를 잘못 읽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我 bù 去”, “我 bù 进去”, “我 bú 明白”, “我 bú 理解”라고 읽는다면 모두 틀린 것이다. 여기서 “不”의 발음규칙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不”는 제1성, 제2성, 제3성인 글자 앞에 쓰면 bù로 읽는다. “不依”, “不行”, “不理”, “不多”, “不能”, “不比”등이 그렇다. 그리고 “不”를 제4성인 글자 앞에 쓰면 “不去”, “不必”, “不念”, “不错”, “不唱”에서와 같이 bú로 읽어야 한다. 이 규칙대로 발음하지 않으면 발음하기도 부자연스럽고 듣기에도 어딘가 어색하게 들린다.

C

参(cān) 다음자로서 다른 발음법을 각각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参加”, “参观”, “参考”등의 단어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参”을 cān으로 읽어야 하

고, “人參”에서는 shēn으로 읽어야 하며 “參商”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參差不齊(가지런하지 못하다)”라는 말에서 “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것을 “cān chā”로 읽어서는 안된다. 이 때는 “cēn cī”로 읽어야 한다. “參錯”라는 말도 “cēn cuò”로 읽어서 ‘뒤섞이어 가지런하지 못하다’는 뜻을 갖는다.

糙(cāo) “粗糙”는 ‘섬세하지 않다’는 뜻이다. “糙”를 zào로 읽거나 cào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糙糧”, “糙紙”에서와 같이 “糙”는 cāo로 읽어야 한다.

岑(cén) 이 글자를 종종 qín으로 읽거나 jīn으로 읽는데 이렇게 읽는 방법은 옳지 않다. “岑”의 정확한 발음은 cén으로, ‘성씨’를 나타내거나 ‘작으면서 높은 산’을 나타낸다. 또 “岑寂”은 적막함을 뜻한다.

搽(chá) “擦”와 종종 혼동하여 같이 쓰거나 cā로 읽는데 이 두 글자의 완전히 다르다. “搽”와 “擦”가 나타내는 뜻은 서로 반대된다. “搽”는 chá로 읽어 ‘바르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搽粉”, “搽雪花膏”가 그 예이다. 반면 “擦”는 cā로 읽어 “擦黑板”, “擦桌子”, “擦玻璃”에서와 같이 ‘지우다, 깨끗하게 닦다’는 뜻을 가진다.

刹(chà) chà로도 읽고 shā로도 읽는 글자이다. 명확히 알아야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刹那”를 “shà 那”로, “什刹海(북경성 안에 있는 작은 호수 이름)”를 “什 shà 那”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刹”는 “古刹”, “宝刹”, “什刹海”처럼 ‘절’을 나타내는 말로 쓰면 chà로 읽는다. “什刹海”는 원래 주변의 ‘열 개의 사원’이라는 말에서 그 이름을 취한 것이므로 그 중의 “刹”는 chà로 읽는 것이 맞다.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刹那”에서도 마찬가지로 chà로 읽는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刹那”와 “霎时”는 뜻은 같으나 발음이 다르므로 혼용해서는 안되며 “霎”는 shà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지하다, 멈추다’의 뜻으로 사용하는 “刹车”, “刹住不正之风”에서는 “刹”를 shā로 읽어야 한다.

侪(chái) qí로 읽거나 jì로 읽는 것은 모두 틀린 것이다. 이 글자는 chái로만 읽을 수 있다. “侪”는 ‘동년배,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吾侪”, “侪辈”, “同侪”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 글자는 서면어로서 보통 회화에서는 쓰지 않는다.

觐(chān) 왼쪽 부분의 발음을 빌어 zhàn으로 읽거나 오른쪽 부분의 발음을 따서 jiàn으로 읽는데 모두 틀린 것이다. “觐”은 chān으로 읽고 ‘옛보다, 관측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면, “觐视”, “觐望”, “觐标(측량상 어떤 지점에 설치한 표지)” 등에서 쓴다.

单(chán) 다음자로서 dān으로 읽기도 하고 chán으로 읽기도 한다. 또 shàn이라는 발음도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틀리게 읽기 쉽다. 예를 들어 “单于”를 “shàn 于”으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된다. “单于”는 흉노 군주의 칭호이며 이 때는 “chán yú”로 읽어야 옳다. 성씨 중에 하나인 “单”을 dān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시 틀린 경우로 shàn으로 읽어야 맞다. 성씨와 지명에 사용될 때는 shàn으로 읽어야지 dān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单”을 dān으로 읽어야 할 때는 “简单”, “单纯” 등의 경우로 비교적 틀리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는 경우들이다.

孱(chán) 이 글자는 zǐ로 읽을 수 없다. “孱弱”를 “zǐ 弱”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발음이다. “孱”은 chán으로 읽어야 하며 “孱弱”는 ‘몸이 약하다’는 뜻이다. “孱”은 또 càn으로 읽기도 하는데 ‘허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뜻하는 “孱头”가 그 예이다.

谄(chǎn) “陷”의 자형과 유사하다고 하여 발음을 xiàn으로 알고 “谄媚”를 “xiàn媚”로 읽는다면 틀린 발음이 된다. “谄”은 chǎn으로 읽어야 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아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谄媚”는 “chǎn mèi”라고 말해야 한다. “xiàn mèi”로 읽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献媚”로 글자가 다르다.

赧(chǎn) zhǎn으로 읽을 수 없다. “赧然一笑”를 “zhǎn 然一笑”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틀리게 발음한 것이다. “赧”는 chǎn으로 읽으며 ‘웃는 모습’을 나타낸다.

仟(chàn) 오른쪽 부분인 “千”의 영향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이 글자를 qiān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仟悔”를 “qiān悔”라고 말하는데 틀린 발음이다. “仟”는 chàn으로 읽으며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仟悔”와 같이 쓴다.

伥(chāng) chàng으로 읽을 수 없고 또 zhàng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伥”이나 “帐”과 혼동해서 같이 써서는 안된다. “伥”는 chāng으로 읽고 ‘전설 속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변한 귀신’을 가리키는데 “伥鬼”가 바로 그 예이다. 또 “为虎作伥”이라는 성어가 있는데 ‘악인의 앞잡이가 되다’는 뜻이다.

倘(cháng) cháng으로도 읽고 tǎng으로도 읽는 글자이다. “倘佯”에서는 cháng로 읽고 ‘편안하고 한가하다’는 뜻을 가진다. “倘若”에서는 tǎng으로 읽는데 이 때는 ‘가정’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倘佯”을 “tǎng 佯”으로 읽어서는 안되며 “shàng 佯”으로 읽는 것도 물론 옳지 않다.

场(cháng) 자주 사용하는 다음자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냥 습관에 따라 읽을 경우 틀리기 쉽다. 예를 들어 “chǎng 院”로 읽거나 “打一 cháng 球”로 읽는 것 역시 틀린 것이다 또 “下一 chǎng 雨”로 읽는 것도 틀린 것이다. 이 글자는 ‘곡식을 넣어 말리거나 뽕는 평평한 빈터(空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场院”, “打场”, “起场”, “场屋”와 같이 쓰며 여기에서 “场”는 cháng으로 읽어야 한다. 또한 ‘일의 경과’를 뜻하는 양사로 쓰였을 때 “一场雨”, “一场斗争”, “一场战争”, “一场病”, “一场梦”에서도 cháng으로 읽는다. 그러나 ‘어떤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비교적 큰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면 “会场”, “操场”, “广场”, “剧场” 등에서와 같이 chǎng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체육활동을 나타내는 양사로 쓰여 “打一场球”, “看一场电影”, “跳一场舞” 등에서 쓸 때도 “场”을 chǎng으로 읽는다. “场”이 양사로 사용될 때도 cháng, chǎng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剿(chāo) jiǎo, chāo,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면 잘못 읽기 쉬운 글자이다. “chāo 匪”라고 읽거나 “jiǎo 袭”라고 읽는 것은 틀린 발음이다. ‘토벌하다’는 뜻으로 쓸 경우, 예를 들어 “剿匪”, “围剿”, “剿灭”에서 “剿”는 jiǎo이라고 읽어야 한다. 반면 ‘적을 급습하다’는 뜻으로 쓸 경우 “剿袭”, “剿敌人老窝”, “从侧面剿过去” 등에서는와 같이 “剿”를 jiǎo이라고 읽지 말고 chāo라고 읽어야 한다.

掣(chè) 서면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자로서 “掣肘(방해하다)”, “风驰电掣(번개 불처럼 빠른 모양)” 등이 예이다. 그러나 이 글자를 틀리게 읽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글자의 위쪽 부분 “制”의 발음을 따서 그대로 zhì라고 잘못 읽고 있다. “掣”는 chè로 읽고 ‘잡아당기다, 순식간에 지나가다’는 뜻을 가진다.

琛(chēn) 자형이 “深”과 비슷해서 사람들은 이 글자의 발음을 shēn으로 잘못 알고 인명인 “钱其琛”을 “钱其 shēn ”으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한 글자는 임금 왕변(王)을 쓰고 다른 한 글자는 삼수변(彡)을 쓰며 발음과 뜻도 모두 다르다. “琛”는 chēn으로 읽어야 하며 ‘진귀한 보물’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王’자 부수를 쓰고 있으며 “王”은 바로 “玉”자의 변형자이다.

称(chèn) 세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혼동하여 잘못 읽는다. “不称职”를 “不 chèn 职”라고 읽거나 “拍手称快”를 “拍手秤 chéng 快”로 읽고 “对称”을 “对 chèn”으로 읽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발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적합하다, 적당하다’는 뜻으로 쓸 경우, 예를 들어 “称心”, “称职”, “称体”, “称愿”, “称钱”, “对称”에서는 “称”을 chèn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杆称”, “台称”, “弹簧称” 등에서 “称”은 “秤”과 같은 말로 chéng으로 읽는다. 그리고 “称二斤水果”에서와 같이 ‘측량, 중량’의 의미로 쓸 때 “称”은 chēng으로 읽어야 옳다. 그 밖에 ‘칭하다’라는 뜻으로 쓴 “自称”, “称呼”, ‘명칭’이라는 뜻으로 쓰는 “简称”, “俗称”, 그리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쓴 “称便”, “称道”에서와

‘찬양하다’는 뜻으로 쓴 “称赞”, “称颂”에서 모두 chēng으로 읽는다. 또한 “称霸(패권을 장악하다)”, “称臣(굴복하다)”, “称雄(군림하다)”라는 말에서도 chēng으로 읽어야 옳다.

铮(chēng) 대다수 사람들이 이 글자를 zhēng으로 읽는데 “铮”자와 혼동하여 “铮”의 발음으로 잘못 읽은 경우이다. “铮”은 쇠금변(金)을 쓰고 “铮铮”은 의성어로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나타낸다. “琤”은 변형된 “玉”자인 “王”변을 쓴다. “琤琤”도 의성어이긴 하나 ‘옥기(玉器)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거문고소리, 혹은 물 흐르는 소리’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琤”은 chēng으로 읽어야 한다.

瞠(chēng) 오른쪽 부분이 “堂”으로 그 자형이 “膛”과 비슷하여 táng으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발음법이다. 달월변(月)인 “膛”은 “胸膛”의 “膛”이고, ‘目’변인 “瞠”은 눈과 관련이 있는 글자로 táng으로 읽으면 안된다. “瞠”은 chēng으로 읽어야 하며 ‘눈을 크게 뜨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瞠目结合(눈을 크게 뜬 채 말을 못하다)”에서와 같이 쓴다.

乘(chéng) chéng으로 읽기도 하고 shèng으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chèng이라는 발음은 갖고 있지 않다. “chèng 车”, “chèng 虚而入”으로 읽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틀린 발음이다. ‘탑승하다’라는 뜻으로 쓴 “乘车”, “乘船”, “乘客”, “乘务”, ‘이용하다’는 뜻으로 쓴 “乘机”, “乘时”, “乘势”, 또 ‘기회를 보다’는 뜻으로 사용한 “乘兴”, “乘虚”, “乘便”에서나 그리고 연산방법을 나타내는 “乘法”, “乘方”, “乘积”라는 말에서 모두 “乘”은 chéng으로 읽어야지 chè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이용하다’는 뜻의 말로 chèn으로 발음하는 말이 있는데 “趁早”, “趁机”, “趁热”에서와 같이 글자가 다르다. 한편 “乘”이 ‘사서(史书)’를 의미할 때 즉, “史乘”, “野乘” 등에서는 shèng으로 읽어야 한다. “乘”은 또 고대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를 세는 양사로도 썼는데 예를 들어 “千乘之国”이라는 말에서도 shèng으로 읽어야 한다.

惩(chéng) 예전에는 chěng이라고 읽었지만 심의를 거쳐 그 발음이 chéng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chěng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惩罚”, “惩处”, “惩办”, “惩治”에서 쓰고 있는 “惩”은 모두 chéng으로 읽어야지 chě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澄(chéng) chéng으로 읽기도 하고 dèng이라고 읽기도 한다. 분명히 구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 읽기 쉬운 글자이다. 예를 들어 “湖水 dèng 清”, “chéng 清混水”로 읽는 것은 틀린 것이다. “澄”이 ‘깨끗함’을 형용할 경우는 chéng이라고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澄碧”, “湖水澄清”이 그 경우이다. 또한 “澄清事实”, “澄清混乱局面”에서와 같이 추상적 사물에 사용할 때도 chéng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물에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불순물이 침전되어 액체가 투명하게 변한 것’을 나타내는 “澄清”, ‘여과를 통해 비교적 가늘게 변한 콩소’를 가리키는 “澄沙”, ‘짜내다’의 뜻으로 쓰는 “澄”은 모두 dèng으로 읽어야 한다. “澄(dèng)清”과 “澄(chéng)清”은 같은 글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발음도 다르고 뜻에도 차이가 있다.



痴(chī) 예전에는 chí로 읽었는데 심의를 거쳐 chī로 읽기로 하였다. “痴呆症”, “痴心妄想”, “痴人说梦”에서 “痴”는 chī로 읽어야지 chí로 읽을 수 없다.

匙(chí) “汤匙”, “羹匙”에서 이 글자는 chí로 읽는다. 그러나 “钥匙”라는 단어에서는 shi로 읽고 경성으로 발음해야 한다. “钥匙”를 “yào chí”로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褫(chī) “褫夺公民权(공민권을 박탈하다)”이라는 말에서 뜻을 생각해서 “褫”를 dài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褫”는 chī로 읽어야 하며, “褫夺”는 ‘박탈하다’는 뜻을 가진다.

畜(chì) 윗 부분에 있는 “帝”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dì라고 잘못 읽는다. 또 tì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틀린 발음이다. “畜”는 chì로 읽어 ‘다만, 단

지'라는 뜻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不甯(다만 ~일 뿐이다)”, “何甯(어찌~뿐이랴)”이다.

懂(chōng) 사람들은 종종 이 글자를 tóng으로 알고 “懂憬”을 “tóng 憬”으로 말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오른쪽 부분이 “童”자라고 해서 이 글자를 “童”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懂”의 발음은 chōng이며 ‘동경하다’는 뜻의 “懂憬”은 “chōng jǐng”으로 발음해야 한다.

臭(chòu) 이 글자는 chòu로도 읽고 xiù로도 읽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먼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약한 냄새’라는 뜻으로 “臭味”, “臭气”, “臭虫”, “臭氧” 등에서 썼을 때와, ‘다른 사람의 혐오감을 사다’는 뜻으로 사용한 “臭架子(꼴사나운 언동이나 태도)”, “臭名远扬(악명높다)”, “臭美(잘난척하다)”라는 말에서 “臭”는 chòu로 읽어야 한다. “臭味相投(나쁜 쪽으로 배짱이 맞다)”는 “xiù 味相投”라고 읽어서는 안되고 “乳臭”는 “乳 chòu”라고 읽을 수 없다. “臭”를 xiù라고 읽을 때가 있는데 ‘냄새’라는 뜻으로 사용할 경우이며 “乳臭”, “空气是无色无臭的气体” 등의 말에서 xiù로 발음한다. “臭”를 xiù로 읽을 때는 또 “嗅”와 같은 뜻으로 쓰는데 “嗅觉”, “嗅一嗅” 등의 말과 같이 ‘코로 냄새를 분별하다’는 뜻을 가진다.

刍(chú) “刍”는 “邹”와 자형이 비슷해서 zōu라고 틀리게 읽기 쉽다. 그러나 “刍”는 chú로 읽어야 하며 “刍秣”, “白刍”등에서와 같이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는 풀’을 의미한다. 또 자주 쓰는 말 중에 “刍议”라는 말은 겸손한 표현의 하나로 ‘자신의 보잘것 없는 의견’을 가리킨다.

处(chǔ) chǔ라는 발음과 chù라는 발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종종 혼동하여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이 글자의 발음은 문법 성분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 “处”가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보통 chǔ로 읽는데, “处理”, “处分”, “处罚”, “处置”, “相处”, “处世”, “处心积虑(별의 별 궁리를 다하다)”, “处之泰然(태연자약하게 일을 처리하다)” 등에서 그러하다. 또한 “处境”, “处方”, “处女”, “处暑”에서도 chǔ

로 읽는다. 반면 “处”가 명사로 쓰일 때는 chù로 읽는다. “处所”, “住处”, “处长”, “好处”, “长处”, “深处” 등의 단어에서 “处”는 chù로 읽어야 한다. “处方”, “处分”, “设身处地”, “处女作” 등에서 “处”를 chù로 성조를 틀리게 읽는데 chǔ로 고쳐 읽어야 한다.

畜(chù) “牧畜”을 牧chù로 읽는 사람도 있고 牧xù라고 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家畜”, “牧畜”, “畜生”, “畜类”에서는 “畜”을 chù로 읽어야지 xù로 읽어서는 안된다. 반면 “畜养”, “畜产品”, “畜牧业”에서 “畜”는 chù로 읽어서는 안되며 xù로 읽어야 한다. “chù 牧业”로 읽거나 “牧 xù”로 읽는 것은 틀린 것이다.

串(chuàn) “串”과 “窜”의 발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사실이 두 글자의 발음은 다르다. “串”는 chuàn으로 읽어 ‘통하다, 한 줄로 이어지다’는 뜻으로 쓰며 “一串糖葫芦”, “串讲”, “串供”, “串换”, “串联”, “串门”, “串通” 등에서와 같이 쓰인다. 반면 “窜”은 cuàn으로 읽고 ‘마구 뛰어다니다’는 뜻을 가진다. “流窜”, “窜逃”, “窜扰”, “窜改” 등에서 쓰고 있다.

幢(chuáng) ‘경이나 주문이 새겨져있는 돌기둥’을 뜻하는 글자로 “经幢”, “石幢”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때 “幢”은 chuáng으로 읽어야 하며 형용사로 쓰여서 “人影幢幢(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모양)”, “灯影幢幢” 등에서 쓸 때도 chuáng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양사로 쓸 때는 “一幢房屋”에서와 같이 “幢”을 zhuàng으로 읽어야 한다. “一幢房屋”를 “一 chuáng 房屋”로 읽거나 “一 dòng 房屋”로 읽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 밖에도 “人影幢幢”을 “人影 zhuàng zhuàng”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잘못 읽은 것이다.

椎(chuí) 이 글자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다’는 의미로 쓰면 “椎背”, “椎胸顿足(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다)” 등에서 chuí로 읽는다. 이 때 “椎”는 “捶”와 같이 쓴다. 반면 ‘척추’의 의미로 쓰는 “脊椎”, “颈椎”, “胸椎” 등에서는 “椎”를 zhuī로 읽어야 한다. 발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

에 서로 혼동해서 읽어서는 안된다.

齷(chuó) zhuó로 읽는 글자가 아닌데도 “齷齪”를 “wū zhuó”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 “齷”는 chuò로 읽어야 하며 ‘깨끗하지 않다’, 혹은 ‘인품이 나쁘다’는 뜻을 가진 “齷齪”는 “wò chuò”로 읽어야 한다.

辍(chuò) “辍学”을 “chuō 学”로 읽는 사람이 있다. 또 이 글자를 “缀”와 혼동하여 “zhuì 学”라고 잘못 읽는 경우도 보인다. “辍”는 chuò로 읽어 ‘중지하다’의 뜻으로 쓰며 “辍学”는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다’는 뜻이다.

猝(cù) “猝然”을 어떤 사람들은 “cuì 然”으로 읽거나 반쪽의 발음만을 빌어 “zú 然”으로 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모두 틀린 발음이다. “猝”는 cù로 읽고 “猝然”은 ‘갑작스럽다’는 뜻이다. “猝死”, “猝发”, “猝不及防” 등에서 모두 cù로 읽는다..

蹴(cù) jiù로 읽으면 안되는 글자이다. 성어인 “一蹴而就(단번에 성공하다)”를 “一 jiù 而就”로 읽는 것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蹴”는 cù으로 읽어 ‘차다’라는 뜻을 갖는다. 그러나 방언 중에 “圪蹴”라는 말이 있는데 ‘웅크리고 앉다’는 뜻으로 발음은 “gē jiu”로 읽는다. 여기서 “蹴”도 제4성인 jiù가 아닌 경성으로 읽어야한다.

攒(cuán) “攒”은 “攒钱”, “积攒”에서와 같이 ‘축적하다, 저장하다’는 뜻을 나타낼 때 zǎn으로 읽어야 한다. 반면 ‘한 곳에 모이다, 굽어 모으다’는 뜻으로 쓸 때는 “攒集”, “攒聚”, “人头攒动”, “攒一辆自行车”에서와 같이 “攒”을 cuán으로 읽어야 한다. “人头攒动”을 “人头 cuàn 动”, “人头 zuān 动”, “人头 chuán 动” 등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또 ‘돈을 저축하다’는 뜻인 “zǎn(攒)钱”과 ‘돈을 굽어 모으다’는 뜻인 “cuán(攒)钱”을 혼동해서 읽어서도 안된다.

付(cùn) 아랫 부분의 “寸”자의 영향 때문에 이 글자를 cùn으로 읽는 사

람이 종종 있는데 틀리게 읽은 경우이다. “忖”는 cǔn으로 읽어야 하며 ‘추측하다, 자세히 생각하다’는 뜻으로 쓰여 “忖度”, “忖量”, “忖摸”, “自忖”라는 단어에서 쓴다.

D

逮(dài) dài로 읽기도 하고 dǎi로 읽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잡다’는 뜻으로 쓴 “猫逮老鼠”, “狗逮兔子”에서 “逮”는 dǎi로 읽어야 맞다. 단, ‘범 죄인을 체포하다’의 뜻으로 쓰는 “逮捕”에서만 “逮”를 dài로 읽는다. “dǎi 捕”로 읽거나 “dì 捕”로 읽는 것 모두 틀린 것이다. “把坏人逮住了”라는 문장 안에서 “逮”는 dǎi로 읽어야지 dài로 읽을 수 없다.

殚(dān) 사람들은 “殚”을 “憚”, “禪”과 혼동하여 dàn 또는 chán으로 잘못 읽곤 한다. 그러나 “殚”은 dān으로 읽고 저녁석변(歹)을 써서 “殚精竭虑”, “殚思极虑” 등에서와 같이 ‘있는 힘을 다하다’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마음심변(心)이 있는 “憚”은 dàn으로 읽어 ‘두려워함’을 의미하며 “不憚劳苦”, “肆无忌惮(방자하여 거리낌이 없다)”등에서 쓴다. 그리고 “禪”은 chán으로 읽고 보일시변(示)을 쓰며 “坐禅”, “禅房”, “禅宗”와 같이 불교용어에 쓴다.

档(dàng) “档”과 “挡”은 서로 발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高 dǎng 货”, “上 dǎng 次”, “遮风 dàng 雨”라고 읽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档”의 발음은 dàng으로 “档案”, “档次”, “高档商品”에서 모두 dàng으로 읽어야지 dǎng으로 읽을 수 없다. 재방변(扌)을 쓰는 “挡”은 dǎng으로 읽어 ‘막다, 댄다’의 뜻으로 쓴다. “抵挡”, “拦挡”, “挡车”, “挡驾”, “挡箭牌” 등에서 모두 그렇다. 참고로 ‘노점상’을 의미하는 “大排档”이라는 말에서도 “档”은 dà ng으로 읽고, ‘기어’의 뜻인 “二挡”, “挂挡”, “空挡”에서도 “挡”은 dǎng으로 읽어야 한다.

悼(dào) “追悼会”을 가끔 “追 dǎo 会”로 읽고, ‘추도사’를 뜻하는 “悼词”를 “dǎo 辞”로 읽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悼”에 dào라는 발음은 없으며 모

두 dào로 읽어야 맞다. “哀悼”, “悼念”, “悼亡”, “追悼”의 “悼”는 모두 dào로 읽는다. 또 “悼唁(조상하다)”은 “dào yàn”으로 읽고 “吊唁(조문하다)”은 “diào yàn”으로 읽으며 둘은 다른 단어이다.

堤(dī) 예전에는 tí라고 읽었으나 후에 심의를 거쳐 dī로 읽기로 하였다. ‘강가나 연해에 방수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堤坝”, “河堤” 같은 단어들이 있다. 지금도 tí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발음은 규칙에 어긋난 것이다.

提(dī) 이 글자는 “提高”, “提按”, “提倡”에서와 같이 tí로 읽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dī라는 발음도 가지고 있는데 ‘조심하게 방비하다’는 뜻으로 써서 “提防”이라고 말한다. 또 ‘손으로 들고 있다’는 뜻의 “提溜”에서도 dī로 읽어야지 tí로 읽어서는 안된다.

谛(dì) “真谛(참뜻-불교용어)”, “谛听”등에서 예전에는 tí로 읽었으나 심의를 거쳐 이 “谛”자는 dì로 읽기로 되었다. ‘자세히 보거나 자세히 듣다’라는 의미로 쓰인 “谛视”, “谛听”라는 말이 있고, “谛”자가 ‘도리’를 뜻하고 있는 “真谛”, “妙谛”라는 말이 있다.

玷(diàn) “玷污”의 “玷”을 diān으로 읽어 “diān 污”로 말하거나 zhān으로 읽어 “zhān 污”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발음이 잘못된 것이다. “玷”은 diàn으로 읽어야 하며 ‘백옥 위에 얼룩이나 오점이 있다’는 뜻이다. “玷污”, “玷辱”등과 같은 말이 있다.

鲷(diāo) zhōu로도 읽지 않고 chóu로도 읽지 않는다. “鯛”는 diāo로 읽고 “真鯛(돔)” 등에서와 같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이다.

酊(dǐng) dīng으로도 읽고 dǐng으로도 읽는 글자이다. 사람들은 혼동하여 “míng dīng(酩酊)大醉(곤드레만드레 취하다)”로 읽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酩酊”은 “mǐng dǐng”, 모두 제3성으로 읽어야한다. 반면 약제(藥劑)명인 “碘酊”, “颠茄酊”

에 쓰는 “酇”은 dīng으로 읽는다.

侗(dòng) 다음자로서 읽는데 혼동하기 쉽다. ‘유치하고 무지하다’의 뜻을 나타낼 때는 tóng으로 읽는다. 또 “龙侗(흐리멍텅하다)”에서는 tǒng으로 읽고 소수민족의 이름에서는 dòng으로 읽는다. “侗族”를 “tóng 族”으로 읽기 쉬운데 잘못된 것이다.

读(dòu) “读书”, “读报”에서처럼 “读”를 dú로 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발음이 더 있다는 것은 잘 몰라서 종종 틀리게 발음하게 된다. 옛날에는 글을 낭독할 때 “句”와 “读”를 구분했다. ‘매우 짧은 멈춤(休止)’를 “读”라 했고 ‘조금 긴 휴지’를 “句”라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读”은 dòu라고 읽었다. “句读”는 “jù dòu”로 읽어야지 “jù dú”로 읽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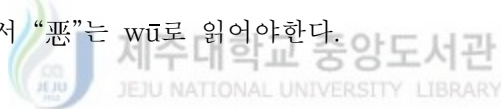
渎(dú) “渎职”와 “赎职”를 혼동하여 渎职를 “shú zhí”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赎”는 shú로 읽어 ‘저당품을 찾아오다’는 뜻으로 “赎罪”, “赎买”에서 쓰나 “赎职”라는 말은 없다. “渎”는 dú로 읽는다. “渎职”은 ‘직무를 다하지 않거나 임무수행 시 심각한 과실을 저지르다’의 뜻으로 쓴다. “渎职”를 “赎职”로 읽으면 아예 쓰지 않는 말이 된다.

咄(duō) 사람들은 “咄咄”, “喋喋”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혼동하여 읽어 버린다. “咄”는 duō로 읽어 ‘큰소리로 꾸짖다’ 또는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다’의 뜻을 가진다. “咄咄”는 ‘놀람’이나 ‘감탄’을 의미하며 “咄咄怪事(전혀 뜻 밖의 일)”, “咄咄逼人(기세가 등등하다)”등에 쓴다. 그러나 “喋”는 dié로 읽으며 ‘계속해서 말을 하다’는 뜻으로 “喋喋不休”와 같이 쓴다. 또 “喋血”는 ‘유혈이 낭자하다’는 뜻으로 쓴다. “咄”와 “喋”는 자형, 발음, 뜻이 모두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

囿(é) 이 글자는 huà로 읽지 말고 é로 읽어야 한다. ‘새를 잡을 때 새를 찌어들이는데 쓰는 작은 새’를 “囿子” 또는 “繇子”라고 한다. 참고로 “繇”는 yóu라고 읽으며 “游子”라고도 쓸 수 있다.

恶(è) 다음자로 네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틀리기 쉬운 발음이다. “可恶”를 혹자는 “可 è”로 읽고 혹자는 “可 wù”로 읽기도 한다. 그리고 “恶心”을 “é心”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è心”으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恶”에는 é라는 발음이 없으므로 “é心”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토하고 싶은 느낌’을 표현할 때 “恶心”이라고 하는데 이때 “恶”는 è로 읽는다. 그리고 “你別恶心人”의 “恶”도 è로 읽어야지 é로 읽지 않는다. ‘악행’이나 ‘흉악하다, 악렬하다’의 뜻으로 쓴 “恶习”, “恶语”, “恶霸”, “恶毒”, “恶俗”, “恶意”에서 “恶”는 è로 읽어야 한다. 반면 ‘혐오하다, 증오하다’의 뜻으로 쓴 “好恶”, “深恶痛绝”, “好逸恶劳”, “可恶”, “厌恶” 등의 “恶”는 모두 wù로 읽어야지 è로 읽어서는 안된다. 또 하나의 발음은 감탄사로 써서 놀람을 표시할 때, 예를 들어 “恶, 是何言也!(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라는 말에서 “恶”는 wū로 읽어야 한다.



厄(è) “危”와 자형이 비슷하나 wēi로 읽지 않는다. “厄难”을 “wēi 难”으로 읽으면 틀리다. “厄”는 è로 읽어 ‘험준함, 재난, 곤란’ 등을 의미하며 “厄境”, “厄运”, “厄难”등이 예이다. “厄难”은 ‘재난, 고난’을 뜻하는 말로 만약 “wēi 难”으로 읽어 버리면 ‘위험’의 뜻이 된다. “厄”와 “危”는 발음과 뜻이 모두 다르므로 읽기와 쓰기에 주의해야 한다.

摠(èn) 종종 àn으로 잘못 읽는 글자이다. 예를 들어 “àn 电铃”이나 “àn 快门”으로 읽는다. 물론 “摠”이 “按”의 뜻으로 쓰기는 하지만 àn으로는 읽지 않으며 èn으로 읽어야 한다. “摠”은 “摠扣儿(똑딱단추)”, “摠钉儿(압정)”에서처럼 명사로도 쓸 수 있고 “摠电铃”, “摠快门”, “把他摠倒”에서처럼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

F

砧(fǎ) “砧”, “砧”, “法”, “发” 이 글자들의 발음은 혼동해 사용하기 쉽다. “发廊”을 “fǎ 廊”으로 성조를 틀리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发”를 fà로 읽어야 한다. 또 간혹 “砧码”를 “fà mǎ”로 잘못 읽기도 하는데 “fǎ mǎ”로 읽어야 맞고, “砧琅”은 “fǎ láng”이 아닌 “fà láng”으로 읽어야 옳다. 한편 프랑스, 스위스 등 국가의 화폐 단위는 “fǎ láng”으로 읽는다.

畝(fàn) 방언인 “畝”은 양사로 쓰여 “一畝田”에서와 같이 큰 토지를 가리킬 때 쓴다. “畝”은 fàn으로 읽어야지 bǎn으로 읽을 수 없다. 혹자는 노래가사에 나오는 “秋收满畝稻花香”이란 부분을 “满 bǎn 稻花香”으로 잘못 부르는데 틀린 발음이다. 그 밖에 “畝”을 지명에 썼을 때도 fàn으로 읽는다.

斐(fěi) 가끔 péi로 잘못 읽는 글자인데 이것은 “斐”자와 서로 혼동해서 그런 것이며 fěi로 읽으면 성조가 틀린 것이다. “斐”는 fěi로 읽어야 맞다. 그 예로 “成绩斐然”는 ‘성적이 뛰어난’을 뜻하며 “斐然成章”은 ‘문학적 재능이 있다’는 뜻이다.

芾(fèi) 사람들은 송나라 서화가인 “米芾”를 “mǐ shì”로 읽는데 매우 큰 과오를 범한 것이다. “芾”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초목이 무성함’을 나타낼 때는 fú로 읽고, ‘나무와 잎이 작다’는 뜻을 나타내는 “蔽芾”라는 말에서는 fèi로 읽어야 한다. 한편 인명을 읽을 때는 fú로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던 “米芾”는 “mǐ fú”로 읽어야지 “米 fèi”나 “米 shì”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沸(fèi) 잘못 읽기 쉬운 글자로서 “沸腾”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자주 “fó 腾”, 혹은 “fú 腾”으로 잘못 읽고 있다. “弗”자 한 쪽만 보고 그 음을 따서 발음해서는 안된다. “沸”는 “沸腾”, “沸点”, “沸沸扬扬”, “扬汤止沸” 등에서 모두 fèi로 읽어야 한다. fó나 fú로 읽어서는 안된다.

狒(fèi) “狒狒(비비)”는 야생동물의 일종으로 고릴라처럼 생겼다. 사람들은 동물원 표지판에 써 있는 “狒狒” 두 글자를 자주 “fó fó”로 읽는데 이렇게 하면 동물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이 된다. 비비는 “fèi fèi”로 불러야 맞다.

市(fú) “市场”의 “市”로 읽어버리기 매우 쉬운 글자다. 사실 “市”와 “市”는 쓰는 법도 조금 다르며 발음도 다르다. “市”는 4획이고, “市”는 5획이다. “市”는 fú로 읽고 “黻”와 같은 자로 쓰며 고대 예복에 수놓았던 검고 푸른 무늬를 가리킨다.

福(fú) 자주 쓰는 글자로 모두 익숙한 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틀리게 읽고 있다. fù로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幸 fù”, “fù 气”, “fù 利”로 잘못 읽는 경우가 많다. “福”의 발음은 fú로 성조가 한 가지이다. 다른 성조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涪(fú) “涪陵”은 ‘자채(榨菜-사천성특산 초본식물)’가 많이 난다는 곳의 지명이다..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培”, “陪”, “赔”의 발음을 적용하여 péi로 읽는다. 그러나 “涪”는 fú로 읽어야 맞다. “涪陵”을 “péi 陵”로 읽는 것은 큰 잘못이다.

抚(fǔ) “抚养”을 “fú 养”으로 읽거나 “抚恤金(위로금)”을 “fú 恤金”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발음이 잘못된 것이다. “抚”는 fǔ, 제3성으로 읽어야 한다. “抚养”, “抚育”, “抚恤(무휼하다)”의 “抚”는 모두 fǔ로 읽어야 맞다. 마찬가지로 “抚摸”, “抚摩”, “抚今追昔(현재의 여러 일을 보고 지난 날을 회상하다)”에서도 “抚”를 fǔ로 읽어야 한다. “抚”는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로 “扶养”이라는 단어는 “fú 养”으로 읽는다.

讣(fù) “讣告”는 “fù 告”로도 읽을 수 없고, “bù 告”로도 읽을 수 없다. “讣”는 ‘부고하다’의 뜻으로 “讣告”, “讣闻”, “讣文”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讣”는 모두 fù, 제4성으로 읽어야 한다.

复(fù) “复”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중복’의 의미로 “复写”, “复制”에 쓰거나, ‘방향을 바꾸다’의 의미로 “反复”에도 쓰고, ‘회답’의 의미로 “复信”, “电复”에, ‘다시’라는 의미로 “复发”, “复苏”에도 쓴다. 그 외에도 ‘회복, 보복’의 뜻으로

쓰기도 한다. 이 경우 모두 “复”는 fù로 읽어야지 fú로 읽을 수 없다. “fú 习”, “fú 辟”, “光 fú”로 읽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모두 성조가 잘못되었다. “复”는 제4성으로 읽어야 한다.

G

夹(gā) 세 가지의 발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혼동하지 않는다. ‘상대되는 두 방향에서 압력을 주다’, ‘양자(两者)간에 놓여있다’, ‘섞다’라는 의미로 쓰면 jiā로 읽는다. 예를 들어 “夹菜”, “夹板”, “夹带”, “夹道”, “夹缝”, “夹攻”, “夹克”, “夹杂”의 “夹”는 모두 jiā로 읽어야 한다. 반면 ‘겹으로 된 옷’이나 ‘이불’을 말할 때 “夹衣”, “夹被”, “夹袄”에서는 “夹”를 jiá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夹克”는 옷의 일종이지만 “jiá kè”로 읽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단, “夹肢窝(겨드랑이)”라는 단어에서는 “夹”를 jiā나 jiá로 읽지 않고 gā로 읽는다. “夹肢窝”는 “胳肢窝”라고도 쓰며 “腋窝(겨드랑이)”의 속칭이다.

尅(gā) “朵”와 자형이 비슷하나 duǒ로 읽지 않으며 “朵”와 혼용해서 쓸 수도 없다. 방언인 “尅”는 gǎ로 읽고 ‘작다’는 뜻을 가진다. “尅娃”, “尅李”, “尅小子”등이 예이다.

赅(gāi) 이 글자는 오른쪽에 “亥”자를 쓰기 때문에 hài로 많이 읽게 된다. 또 “核”와도 비슷해서 hé로 읽거나 “咳”와 비슷해서 hāi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잘못 읽은 것이다. “赅”는 gāi로 읽어서 ‘포함하다, 완비하다’의 뜻을 가진다. “言简意赅(말은 간결하나 뜻은 완벽하다)”, “举一赅百(한 가지 실례를 들어 모든 것을 설명하다)”등의 말에서 볼 수 있다.

仵(gē) 소수민족이름인 “仵佬族(홀로족)”에서 쓰고 있는 “仵”는 gē로 읽는다. 자형을 보고 qì로 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반면 ‘건장하고 용감하다’, ‘높고 크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 “仵仵”는 “yì yì”로 읽어야 한다.

颈(gěng) “颈”은 “颈椎”, “颈项”에서는 jǐng으로 읽고 “脖颈儿”에서는 gěng으로

읽는다. “脖颈”을 “bó jǐng”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는데 “颈项”, “脖颈”은 모두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발음이 다르다.

句(gōu) 모두 jù로 읽는다고 알고 있는 글자이다. 그러나 때로는 jù가 아닌 gōu로 발음할 수도 있다. 고대국가의 이름인 “高句骊”에서와 춘추시대 월국의 국왕이었던 “句践”에서는 “句”를 jù로 읽지 않고 gōu로 읽어야 한다.

鹄(gù) 이 글자는 ‘과녁’의 뜻으로 쓰면 gǔ로 읽는다. 그러나 ‘백조’를 뜻할 때는 gǔ로 읽지 않고 hú로 읽는다. “燕雀安知鸿鹄志(제비와 참새가 큰 새의 뜻을 어찌 알리오, 소인배는 큰 인물의 깊은 뜻을 모른다)”에서 “鸿 gǔ 志”라고 잘못 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鸿鹄(큰 기러기와 고니, 영웅호걸)”는 “hóng hú”로 읽어야 한다.

汨(gù) “汨汨”은 ‘물이 팔팔 흐르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낸다. 그런데 “汨”을 “泊”과 혼동하여 “bó bó”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각각 한쪽 부분이 “泊”는 “白”이고, “汨”는 “曰”이다. 이 두 글자는 자형, 발음, 뜻이 모두 다르다. “泊”는 ‘정박하다’의 뜻으로 “停泊”, “泊位” 등에 쓴다. 한편 “汨”는 “河水汨汨流入田里”에서와 같이 gǔ로 읽는다.

呱(guā) 다음자인 “呱”자는 잘못 읽기 쉬운 글자다. 발음이 가장 정확하다는 방송인들도 이 글자는 자주 틀리게 읽는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음’을 나타내는 “呱呱坠地”를 자주 “guā guā 坠地”로 잘못 읽는다. “呱”를 여기서는 gū로 읽어 “gū gū 坠地”로 읽어야 옳다. “呱呱”, “呱呱叫”에서야 비로소 “呱”를 guā로 읽는다. 또 “拉呱儿”라는 단어에서는 “呱”를 guǎ로 읽고 ‘한가롭게 이야기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莞(guān) 이 글자도 다음자로 잘못 읽기 쉽다. ‘골풀’과 같은 식물을 가리킬 때는 guān으로 읽고, “东莞(광둥에 있음)”에서와 같이 지명을 가리킬 때는 guǎn으로 읽는다. 또 ‘미소짓다’는 뜻으로 쓸 때는 “不觉莞尔”에서와 같이 wǎn으로 읽

는다. 이 세 가지 발음은 서로 혼용할 수 없고 섞어 쓰면 틀린 말이 된다. 예를 들어 지명인 “东莞”을 “东 guān”이나 “东 wǎn”으로 읽으면 잘못된 것이다. “莞”은 또 wán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纶(guān) guān으로도 읽고 lún으로도 읽는 글자이다. 예를 들어 “晴纶”, “涤纶”, “绵纶” 등과 같이 합성섬유의 종류를 가리키거나 낚시에 쓰는 “垂纶”에서 “纶”은 lún으로 읽는다. 그러나 가끔 lún으로 읽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초록 명주 끈이 달린 두건’을 뜻하는 말로 쓰면 guān으로 읽는다. 어떤 사람은 “羽扇纶巾(부채를 들고 수건을 쓰고)”을 “羽扇 lún”으로 읽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妫(guī) wéi로 읽기 쉬운데 wéi는 틀린 발음이다. “妫水(허베이(河北)지방에 있음)”처럼 강과 호수 이름에서 “妫”는 guī로 읽어야 한다. 또 성씨를 가리킬 때도 guī라고 읽는다.

晷(guǐ) 사람들은 “日晷”를 “rì miǎn”으로 읽는데 이것은 “日晷”를 “日冕”과 혼동해서 그런 것이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실제 쓰고 있는 단어이지는 하지만 발음과 뜻이 다르다. “日晷”는 “rì guǐ”로 읽고 ‘태양에 의해 나오는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뜻한다. 그러나 “日冕”은 “rì miǎn”으로 읽어 ‘태양계의 개기일식 때 나타나는 태양주위의 담황색 빛(코로나)’을 의미한다.

刽(guì) ‘망나니(회자수)’를 뜻하는 “刽子手”는 “kuài 子手”로 읽기 쉽다. 또 “hui 子手”로도 읽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틀린 것이다. “刽”의 발음은 guì로, “guì 子手”로 읽는 것이 옳다.

鳧(guì) “鳧鱼(쏘가리)”는 아주 맛있는 민물고기의 한 종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기를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는 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桂鱼”로 쓰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Tm면 발음은 맞지만 글자가 틀리게 된다. “鳧”도 guì로 읽지만 쓸 때는 “鳧鱼”로 써야 맞다. 간혹 이 글자를 jué로 읽는 경우가 있

는데 오른쪽의 “厥”의 발음을 읽은 것이다. “鰕鱼”는 “jué 鱼”로 읽어서도 안되고 “桂鱼”로 써서도 안된다.

H

虾(há) 이 글자는 “青虾”, “对虾”, “龙虾” 등에서 xiā로 읽는다. 그런데 “虾蟆”라는 말에서는 xiā로 읽지 않고 há로 읽어야 한다. “虾蟆”의 발음은 “há má”로, 개구리와 두꺼비의 통칭으로 쓴다.

涠(hǎi lǐ) lǐ로 읽을 수도 있으나 보통 “hǎi lǐ” 두 글자로 읽는다. “涠”는 ‘海里(해리)’의 옛말이며, “海里”는 “海涠”로 쓸 수 없다.

汗(hán) ‘사람의 몸에서 나는 땀(汗)’은 hàn으로 읽는다. 그러나 가끔은 hàn이 아닌 다른 발음으로 읽는데 ‘고대 몽고, 돌궐, 위구르 족의 최고 통치자’를 일컫는 말인 “可汗”에서는 “kě hàn”으로 읽지 않고 “kè hán”으로 읽어야 한다.

亢(háng) “引亢高歌(목청껏 노래부르다)”에서와 같이 ‘목구멍’을 의미할 때는 “亢”을 háng으로 읽는다. 그러나 ‘거만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不卑不亢”에서와 같이 kàng으로 읽는다. ‘극도(极度)’의 뜻을 나타낼 때도 “精神亢奋”, “甲状腺机能亢进”에서와 같이 kàng으로 읽는다. “引亢高歌”를 “引 kàng 高歌”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巷(hàng) hàng으로도 읽고 xiàng으로도 읽기 때문에 서로 혼동하기 쉬운 글자이다. ‘좁은 길’을 의미하는 “巷子”, “一条小巷”, “街头巷尾”에서 “巷”은 xiàng으로 읽는다. 또 ‘광산의 채굴 통로’를 의미하는 “巷道(갱도)”에서는 hàng으로 읽는다. 광산의 “巷道”를 가끔 “xiàng 道”로 잘못 읽는 것을 볼 수 있다.

行(hàng) 상용자인 “行”은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혼동하기 쉽다. ‘행렬’, ‘정렬’, ‘직업’의 뜻을 가지거나 양사로 쓸 때는 “行”을 háng으로 읽는다. “双行”, “杨柳成行”, “我排行老三”, “内行”, “同行”, “银行”, “一行字” 등이 예이다.

그러나 ‘작은 숲’을 일컫는 “树行子”라는 말에서는 “行”을 hàng으로 읽어야 한다. ‘승려나 도사가 수련한 도력(道力)이나 법력(法力)’을 “道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行”을 héng으로 읽어야 맞다. 또 ‘걷다’, ‘유동적이다’, ‘유통하다’, ‘어떤 행사를 진행하다’ 등의 뜻을 가질 때는 “行”을 xíng으로 읽어야 한다. “步行”, “行程”, “行商”, “行销”, “执行”, “言行”, “行贿” 등에서 모두 그러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각 “行程”을 “háng 程”으로, “代表团一行七人”을 “一 háng 七人”으로, “行道(의술을 행하다)”를 “háng 道”로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道行”을 “道 xíng”로, “行道(‘직업’의 뜻)”를 “xíng 道”으로 읽을 수 없다. “人行道旁栽了几行树, 几年就成了一排树行子”라는 문장에서 나오는 세 개의 “行”은 각각 다른 세 개의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立身行道”, “不同的行道”에서 두 “行”은 발음이 다르다.

劾(hé) 종종 kē나 kè로 잘못 발음하는 글자이다. 만약 “弹劾”를 “弹 kè”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劾”의 오른 쪽은 “力”로 “刻”와 자형과 발음이 모두 다르다. “劾”는 hé로 읽어야 하며, ‘죄상을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弹劾”, “参劾” 등에 쓴다.

涸(hé) 이 글자의 오른 쪽은 “固”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gù로 잘못 읽는다. 또 “干涸”를 “干 kū”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더욱 틀린 발음이 된다. “涸”의 발음은 hé이고 “干涸”는 ‘물이 마르다’는 뜻이다. “河道干涸”, “涸辙之鱼(물이 마른 수레바퀴자국 속의 붕어, 궁지 속에 빠져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비유함)”등에서 볼 수 있다.

貉(hé) 야생동물의 명칭인 “貉”는 정확하게 읽기 매우 어려운 글자이다. “一丘之貉(한 언덕에 사는 담비-패거리)”라는 말에서 “貉”는 hé로 읽으며 ‘담비’라는 동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貉子”라고 말할 때는 “hé zi”로 읽을 수 없고 “háo zi”로 읽어야 한다. 또 ‘담비의 털’을 의미하는 “貉绒”에서도 háo로 읽어야 하며 hé로 읽을 수 없다. 그러나 “一丘之 háo”로 읽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hé로 읽어야 한다. “貉”는 “貊”로도 쓸 수 있는데 “貊”는 mò로 읽는다.

吓(hè) “恐吓”는 “恐hè”로 읽기도 하고 “恐 xià”로 읽기도 한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보통 서면어에서는 “恐吓”, “恫吓”등에서 “吓”를 hè로 읽는다. 한편 구어에서 “吓”는 “别吓唬人”, “真吓人”에서와 같이 xià로 읽는다. “恐吓”는 “恐 xià”로 읽을 수 없고 “吓唬”는 “hè 唬”로 읽을 수 없다.

和(hè) 다섯 개나 되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혼동되는 글자이다. ‘연합, 연대, 상관, 완화, 조화’등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hé로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 “我和你”, “和衣而卧”, “和他无关”, “和颜悦色”, “和衷共济” 등이다. 그러나 ‘따라부르다’, ‘남의 시에 화답하다’의 뜻으로 쓴 “曲高和寡”, “和诗一首”등에서는 hé가 아닌 hè로 읽어야 한다. ‘마작에서 이기다’라는 말을 “和牌”라고 하는데 여기서 “和”는 hú라고 읽는다. 또 ‘비비다, 문지르다’는 뜻일 때는 “和面”, “和泥”에서와 같이 huó라고 읽고, “衣服洗了两和”, “药熬了两和”처럼 양사로 썼거나 “和弄”, “和稀泥”에서는 huò로 읽어야 한다. hè, hè, hú, huó, huò 이 다섯 개의 발음을 확실히 구분하여 잘못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和稀泥”의 “和”는 hé로 읽으면 틀리고 “曲高和寡”의 “和”도 hé로 읽으면 틀린다. 또 “和牌”에서도 물론 hé로 발음할 수 없다. “和”를 무조건 hé로 읽으려고 하면 안된다.

浒(hǔ) hǔ로 읽고 ‘물가’를 뜻한다. “水浒传”에서 “浒”가 바로 hǔ로 읽는 글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浒’를 xǔ라고 읽는 것은 틀린 것일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지명인 “浒湾(지방시성(江西省)에 있음)”과 “浒墅关(지방수성(江苏省)에 있음)”에 쓴 “浒”는 xǔ로 읽어야 한다. “水浒传”을 “水 xǔ 传”으로 읽는 것도 틀린 것이고 “浒墅关”을 “hǔ 墅关”으로 읽는 것도 틀린 발음이 된다.

浣(huàn) 사(詞)의 곡조명인 “浣溪沙”를 “wǎn 溪沙”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浣”은 wǎn이나 wán으로 읽지 않고 huàn으로 읽어야 한다. “浣”은 ‘씻다’는 뜻으로 “浣衣”, “浣纱” 등에 쓴다.

鲩(huàn) 음식점의 요리명 중에 “清蒸鲩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鲩”

을 자주 wǎn으로 읽는다. 그러나 현대한어사전에 이 글자의 발음은 huàn으로 되어 있다. “鯢”은 wǎn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鯢鱼”는 바로 ‘산천어’를 말한다.

麾(huī) “麾下”를 어떤 사람들은 “mí 下”라고 읽는다. 그러나 이것은 “麾”와 “縻”를 혼동해서 잘못 읽은 것이다. “麾”는 huī라고 읽으며 ‘고대 군대를 지휘하던 깃발’을 의미한다. 또 ‘지휘하다’는 뜻으로도 써서 “麾军南下”에서 쓴다. 또 “麾下”는 ‘장수의 부하’를 뜻하는 말이다.

诲(huì) 예전에는 huǐ로 읽었으나 심의를 거친 후 huì로 읽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诲人不倦”을 “huǐ 人不倦”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많다. “海”와 “悔”는 성조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悔”는 제4성이며 ‘지도하다, 유도하다’의 뜻을 가진다.

喙(huì) 이 글자를 yuán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발음이다. “喙”은 huì로 읽어 “长喙”, “短喙”에서와 같이 ‘새나 짐승의 입’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또 “喙”은 ‘사람의 입’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입이 백 개라도 변명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百喙莫辩”이라는 말이 있다.

殍(huì) “殍”와 “溃”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발음이 다르다. “殍”는 huì로 읽고 “殍骸”에서와 같이 ‘진무르다’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溃”는 kuì로 읽는다. “溃瘍”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진무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殍”와 “溃”는 발음이 다른 글자이므로 “殍骸”을 “huì nóng”으로 읽거나 “溃瘍”을 “kuì yá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J

乂(jì) “扶乂”를 “扶 luán”으로 읽기도 하고 “扶 luàn”으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틀린 것이다. “扶乂”는 ‘무당이 신들린 상태나 행위(길흉을 점치는 점술의

일종)로 “fú jǐ”로 읽어야 한다. 만약 “扶鸞”이라는 글자를 사용했다면 “扶乩”과 같은 뜻이지만 “fú luán”으로 읽어야 한다. 또 “扶乩”는 “扶箕”로도 쓸 수도 있다.

畸(jǐ) “畸形”을 “qí xíng”으로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畸”의 한 부분이 “奇”이긴 하지만 qí로 읽지 않고 jǐ로 읽는다. “畸形”은 생물체 일부의 발육이 비정상이거나 어떤 사물의 진행이 비정상임을 나타낸다. 기괴한 형상을 가리켜 “奇形怪状”이라고 하는데 이 중의 “奇形”이 ‘비정상적 발육이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아이의 발육이 비정상임을 말하고 싶다면 “jǐ xíng”으로 읽어야지 “qí xí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跻(jī) “跻身”을 사람들은 자주 “qí shēn”으로 잘못 읽는다. “跻”의 오른쪽이 “齐”이지만 qí가 아닌 jī로 읽어야 한다. “跻身”은 ‘어떠한 대열에 오르다’는 의미로 “跻身文坛”, “跻身于世界民族之林” 등이 쓰인 예이다.

鞫(jū) 예전에는 jū로 읽었으나 심의를 거쳐 jū로 발음하게 된 글자이다. 지금도 jū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긋난다.

汲(jí) “吸取经验”과 “汲取经验”은 같은 뜻의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吸”, “汲”을 xī로 똑같이 읽는다. 그러나 “汲”는 jí로 읽어야 한다. “汲取经验”, “汲取营养” 등에서 모두 jí로 읽어야지 xī로 읽어서는 안된다. 물론 xī로 읽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佶(jì) 원래 jí로 읽어야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jié로 읽는다. 예를 들면 “佶屈聱牙(말이나 문장이 복잡하여 읽기 거북하다)”를 “jié 屈聱牙”로 잘못 읽고 있다. “佶屈聱牙”는 “诘屈聱牙”로도 쓸 수 있으며 여기에서 “诘”도 jí로 읽는다. 그러나 “诘”를 ‘따져 묻다’의 뜻으로 쓸 때 즉, “盘诘”, “白诘”에서는 jié로 읽는다.

殛(jí) “山坡上的羊被雷殛死了”라는 문장에서 “殛”자를 잘 몰라서 습관적으로 pī로 잘못 읽는다. 천둥번개 때문에 동물이 죽는 것을 “殛”라고 하며 “羊被雷殛死了”라는 문장에서 “殛”는 jí로 읽어야 한다. pī나 jī, 모두 틀린 발음이다.

济(jǐ) jì로도 읽고 jī로도 읽는데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없다. 강과 호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 “济水”의 “济”는 jì로 읽어야 한다. 지명인 “济源”, “济南”, “济宁”, “济阳”도 모두 “济水”에서 이름을 딴 것이므로 “济”를 jì로 읽어야 한다. 또 사람이 많음을 형용할 때 “人才济济”, “济济一堂”에서도 jì로 읽어야 한다. 한편 ‘구제하다’, ‘넘기다’, ‘유익하다’의 뜻으로 썼을 때는 jì로 읽어야 한다. “接济”, “同舟共济”, “无济于事” 등에서 그러하다. “济南”은 예전에는 “jì 南”으로 읽었으나 지금은 “jī 南”으로 읽는다. “人才济济”는 “人才 jì jì”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되고 “济世”, “济事”도 모두 “jì shì”로 읽지 않고 “jī shì”로 읽어야 한다.

洎(jì) zán이나 zì로 읽지 않는다. 그렇다고 bó로도 읽지 않으며 jì로 읽어야 한다. “洎”는 ‘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自古洎今”은 바로 ‘从古到今’의 뜻이다. 이것을 “自古 zì 今”으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稷(jì) “稷”자와 “谿”자는 서로 비슷하여 “稷”를 sù로 읽거나 “谿”를 jì로 읽는 것을 볼 수 있다. “稷”는 jì로 읽고 벼화변(禾)을 쓰며 ‘조’ 종류의 농작물을 뜻한다. 옛날 제왕이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 신을 “社稷”라고 칭했다. “谿”는 sù로 읽고 말씀언변(言)을 쓰며 ‘일어나다’는 뜻을 가진다. “谿谿”는 또 ‘우뚝 솟은 모양’을 가리킨다.

觊觎(jì yú) 이 두 글자는 모두 읽기 어려운 글자로 자주 틀리게 읽는다. 모두 왼쪽 글자의 발음으로 틀리게 읽는 경우가 많다. “觊”는 qǐ로 읽지 않고 jì로 읽는다. 또 “觎”는 yú로 읽는다. “觊觎”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넘보다.’라는 뜻이다.

戛(jiá) 사람들은 자주 “戛然而止”를 “gǎ 然而止”로 잘못 읽는다. “戛”는 jiá로 읽

어야 한다. “戛然”은 ‘새소리나 어떤 소리가 갑자기 멈추다’는 뜻이다. 입구변(口)이 있는 “嘎”는 gǎ로 읽는데 “嘎子”는 ‘장난꾸러기’를 뜻하고 ‘소리가 멈추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歼(jiān) qiān으로 읽다가 심의를 거쳐 jiān으로 읽게 되었다. “歼灭”, “歼击”, “围歼”에서 “歼”은 jiān으로 읽는다. 또 “歼灭”를 “qiān miè”로 읽는 것도 틀린 것이다.

缄(jiān) “缄默”를 “jiǎn 默”로 읽거나 “xiǎn 默”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틀린 것이다. “缄”은 jiān으로 읽으며 ‘봉쇄하다’는 뜻이며 “缄默”, “三缄其口”처럼 쓴다.

囡(jiān) 방언인 “囡”은 jiān으로 읽어 ‘아들이나 딸’을 가리킨다. 또 “囡”로 쓰기도 하는데 뜻이 같다. “囡”를 zī로 읽어서는 안되며 “囡”은 nān으로 읽어야지 nū로 읽으면 안된다.



角(jiǎo) 방송에서나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잘못 읽고 있다. jiǎo 와 jué를 구분하지 못하고 “角色”를 “jiǎo 色”로 읽거나 “角度”를 “jué度”로 읽는 등 혼용한다. “角”를 jiǎo로 읽어야 하는 경우는 ‘소나 양, 사슴의 머리위에 나 있는 뿔’을 의미하거나, ‘옛날 군에서 불던 악기’, ‘물체의 두 면이 이어지는 부분’, 또는 ‘도형’이나 ‘중국화폐의 단위’를 나타낼 때이다. 즉, “牛角”, “号角”, “角落”, “拐角儿”, “直角”, “角度”, “角膜”, “角质”등에서 “角”는 jiǎo로 읽는다. “角”의 또 다른 발음은 jué로 “主角”, “配角”, “名角”, “旦角”, “净角”등과 같이 ‘역할’, ‘주요연기자’, ‘중국희곡의 전문역할분담유형’을 나타낼 때 쓴다. 또 ‘시합, 투쟁’의 의미로 쓰거나 ‘옛날 술을 담았던 그릇’, ‘옛날 오음(五音)의 하나(숫자보의 ‘3’음에 해당)’를 나타낼 때 “角斗”, “角逐”, “口角” 등에서도 jué로 읽어야 한다. 이 글자는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쓸 때 발음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혼동을 막을 수 있다.

酵(jiào) “酵母”를 “xiào 母”로 읽거나 “发酵”를 “发 xiào”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오른 쪽이 “孝”라는 이유로 이 글자를 xiào로 읽어서는 안된다. “酵”는 jiào로 읽어 ‘발효하다’의 뜻을 가진다.

咀(jǔ) “咀嚼(씹다)”를 사람들은 자주 “zǔ 嚼”로 읽는데 발음이 잘못되었다. “咀”의 발음은 jǔ로 “jǔ 嚼”로 읽어야 옳다. 또 “咀”는 zuǐ로도 읽는데 “嘴”의 속자이다.

隽(juàn) “隽永”을 자주 “jùn yǒng”으로 읽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 때 “隽”는 juàn으로 읽어야한다.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다’는 뜻으로 쓸 때는 “隽”을 jùn으로 읽는다. 이 때 “隽”을 “俊”으로 쓸 수도 있다.

谄(jué) jú나 yù로 읽을 수 없으며 jué로 읽어야 한다. “谄”는 ‘기만하다’, ‘기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诡谄”, “谄诈”라는 말이 있다. “诡谄”를 “guǐ yù”로 읽는 경우도 있고 “鬼蜮伎俩(간사하고 악독한 수법)”라는 말을 “诡谄伎俩”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옳지 않다. “鬼蜮”와 “诡谄”는 뜻과 발음이 모두 다르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龟(jūn) “乌龟”에서는 guī로 읽고, qiū로 읽어 ‘고대 서역의 나라 이름’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 jūn으로도 발음하는데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다’는 말을 “龟裂”로 표현한다. “龟裂”를 “guī 裂”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jūn 裂”로 읽어야 옳다.

校(jiào)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jiào와 xiào이다. 가끔 이 두 발음을 혼동하여 잘못 읽기도 한다. “校”를 jiào로 읽을 때는 ‘정정하다’, ‘교정하다’는 뜻이며 “校点, 校订, 校阅, 校勘, 校正, 校注”와 같은 말이 있다. 한편 “校”를 xiào로 읽을 때는 ‘학교’와 ‘장교’를 의미하며 “校长, 校风, 校徽, 校刊, 校庆, 校官” 등이 있다. 두 글자가 나타내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바르게 읽을 수 있다.

K

龕(kān) 이 글자는 hé나 lóng으로 읽지 않고 kān으로 읽는다. ‘신이나 부처에게 공양하는 작은 방’을 “佛龕”이라고 한다.

檻(kǎn) “门槛”은 “门 kǎn”으로 읽어야지 “门 lán”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檻은 또 jiàn으로도 읽으며 이 때는 ‘난간’을 의미한다. 또 가축이나 짐승을 가두는 나무장을 “兽檻”이라고 한다. “门槛”은 “门坎”으로도 쓸 수 있다.

窠(kē) “不落窠臼”는 ‘낡은 틀에 사로잡히지 않다’는 뜻이다. “窠臼”는 “kē jiù”로 읽는다. “kū jiù”로 잘못 읽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窟穴”는 ‘동굴’을 뜻하는 말이다. “窠”는 ‘새나 짐승의 우리’를 나타내는 말로 “窟”와 뜻은 비슷하지만 발음이 다르다.

恪(kè) “恪”는 gé로 잘못 읽기 쉬운 글자로 각각 “gé 守”, “gé 守中立”, “gé 尽职守”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잘못 읽는 것이다. “恪”와 “格”는 같이 쓸 수 없다. “恪”는 kè로 읽고 ‘삼가 공경하다’는 뜻으로 “恪守”, “恪尽职守”라는 말이 있다. “恪守”는 ‘엄격히 준수하다’는 의미로 “恪守中立”, “恪守不渝”등에서 쓴다.

溘(kè) ‘사람이 갑자기 별세하다’는 뜻으로 “溘然去世”란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溘”의 발음은 자주 틀려서 어떤 사람은 hè로, 어떤 사람은 hé 또는 kē로 읽는다. 모두 틀린 발음이다. “溘”는 kè로 읽어 “溘然长逝”에서와 같이 ‘갑자기, 돌연’이라는 뜻으로 쓴다.

纨绔(kù) “纨绔子弟”를 “纨 kuà 子弟”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纨绔”는 “wán kù”로 읽어 ‘부잣집 자식이 입는 비단으로 만든 바지’를 가리킨다. 또한 비유해서 ‘부잣집 자식’을 뜻하기도 한다.

鲙(kuài) “鲙鱼(준치)”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으로 “鱮”라고도 부른다. 이 “鲙”자는 huì로 읽을 수 없고 “huì 鱼”라는 물고기 이름도 없다. “鲙”는 kuài라고

읽어야하며 “鲩鱼”를 “快鱼”라고도 쓸 수 있다.

崑(kuī) guī라고 읽거나 kuì로 읽으면 틀리고 kuī로 읽어야 한다. “崑然”는 ‘높고 크게 홀로 서 있는 모양’을 가리키며 “崑然不动”, “崑然独存” 등에서 쓴다.

跬(kuǐ) guī가 아닌 kuǐ로 읽어야 한다. “跬”는 ‘반걸음’의 뜻으로 ‘반걸음도 떠나지 않다’는 말로 “跬步不离”가 있다. 또 “跬步千里”는 ‘반걸음, 반걸음씩 가면서 멈추지만 양으면 끝내 천리나 되는 곳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L

落(là) “落后”, “落日”, “落网”에서 luò라는 발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落”는 다른 발음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잘못 읽기 쉽다. ‘유실하다’는 뜻으로 쓴 “这儿落两个字”, ‘가지고 오는 걸 잇다’는 뜻의 “书包落在家里了”,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쓴 “小王落在后面了”에서는 “落”를 là로 읽어야지 luò로 읽으면 안된다. 즉, “小王 luò 在后面”이라고 말할 수 없고 “là 在后面”이라고 말해야 한다. “落”는 또 lào라는 발음도 있는데 “在落不是”, “落价”, “不落忍”, “落枕”등의 단어에서 lào로 읽어야 한다. “luò 包涵”, “luò 不是”라고 읽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외에도 “落”를 luō로도 읽는데 ‘태도가 대범하다’는 뜻인 “大大落落”라는 말에서 “落”는 luò로 읽으면 안된다. luò, là, luō, lào 이 네 개의 발음은 확실히 구분해서 써야지 “落”자를 무조건 luò로 읽어서는 안된다.

徠(lái) “招徕顾客”의 “徠”는 lái로 읽고, ‘위로하다’의 의미로 쓰는 “劳徠”의 “徠”는 lài로 읽어야 한다. 또 “徠”와 “睐”는 발음이 다르므로 혼용할 수 없다. “徠”는 lái로 “睐”는 lài로 읽는다.

勒(lēi) lè로도 읽고 lēi로도 읽는 글자로 확실히 구분해서 익혀야 바르게 읽을 수 있다. “勒索”, “勒令”, “悬崖勒马(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다, 위험에 직면해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선다는 뜻)”에서 “勒”는 lè로 읽는다. 그러나 ‘뭍

어서 꼭 잡아당기다’는 의미로 쓴 “勒紧绳子”, “勒紧裤腰带”에서는 “勒”를 lèi로 읽지 lè로 읽지 않는다.

累(léi) 이 글자도 다음자로서 구분을 확실히 해야 혼동하지 않고 바르게 쓸 수 있다. “累累”, “累累若丧家之犬”이라는 말에서 “累”는 léi로 읽어야 한다. 또 “果实累累”에서도 léi로 읽어야지 lèi로 읽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罪行累累”, “累累失误”에서는 lèi로 읽어야 한다. “日积月累”, “连篇累牍”, “累卵”, “累年”에서 도 lèi로 읽어야 한다. 반면 ‘피로하다’, ‘심려하다’의 뜻으로 쓴 “劳累”, “累得慌”, “累了一天”에서는 lèi로 읽어야 맞다.

罹(lí) 가끔 luó로 읽어 “罹难”을 “luó nàn”으로 잘못 읽기도 한다. “罹”는 lí로 읽어 ‘조우하다, 당하다’는 뜻을 가진다. “罹难”은 ‘재난을 당하다’, ‘위험에 닥쳐 죽다’는 뜻이다.

泠(líng) 이수변(氵)이 있는 “泠”은 lěng으로 읽지만, 삼수변(冫)이 있는 “冷”은 lěng으로 읽지 않고 líng으로 읽는다. “泠泠”은 “泉水激石, 泠泠作响”에서 ‘상쾌하다’, ‘소리가 청월하다’는 의미로 쓴다.

露(lù) “露”는 lù로도 읽고 lòu로도 읽으며 숙달이 어려워 잘못 읽기 쉬운 글자이다. “暴露”를 “暴 lòu”로 읽거나 “露怯”를 “lù 怯”라고 읽으면 모두 틀린 것이다. ‘작은 물방울’을 뜻하는 “露水”에서, ‘가리지 않다’는 의미로 쓴 “露宿”, “露营”, “露天”등에서, ‘드러내다’의 뜻으로 쓴 “暴露”, “显露”, “揭露”, “吐露”, “露出微笑”등에서 “露”는 모두 lù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露脸”, “露丑”, “露底”, “露富”, “露怯”, “露头”, “露一手”, “露马脚”등의 단어에서는 “露”를 lòu로 읽어야 한다. “露马脚”에서는 lòu로 읽고 “露头角”에서는 lù로 읽으므로 주의해서 구분해 사용한다. “露”를 lòu로 읽을 때도 ‘드러내다, 나타내다’는 의미를 갖는다.

M

冇(mǎo) “有”를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다. “有”는 mǎo로 읽는 방언이다. “有”자에서 두 개의 가로획을 지우면 되고 ‘没有’의 뜻으로 “冇办法”등에 쓴다.

耄耋(mào dié)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어려운 글자이다. 윗부분이나 아랫부분만을 보고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 된다. “máo zhì”로 읽을 수 없고 “mào dié”로 읽어야 한다. “耄耋”은 ‘팔구십 세의 노인’을 뜻하며, “老耄”, “耄耋之年”이라는 말이 있다.

汨(mì) 이 글자는 mí로 읽어도 틀리고 bó라고 읽으면 더욱 틀린 발음이 된다. “汨”는 mì로 읽어야 한다. “汨罗江”은 지양시성(江西省)에서 발원하여 후난성(湖南省)으로 흘러 가는 강 이름으로 굴원이 투신했다는 곳이다.

丐(miǎn) “丐”, “丐” 두 글자의 자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丐”를 gài로 읽기 쉽다. “丐”는 miǎn으로 읽고 ‘가려서 보이지 않다’는 뜻이다. “沔”도 miǎn으로 읽는데 “沔水”는 ‘한수(汉水)의 상류’를 가리킨다.

澠(miǎn) “澠”은 “澠”과 같고 miǎn으로 읽는다. “澠池”는 지명으로 하남에 있다. “澠池”는 “shéng chí”로 읽으면 안된다. 그러나 옛날 강의 이름(지금의 산둥에 있음)을 가리킬 때는 “澠”을 shéng으로 읽는다.

乜(miē) ‘눈을 가늘게 뜨고 흘겨보다’는 말을 “乜斜”라고 하며 “miē 斜”로 읽는다. 그리고 성씨를 나타낼 때는 “乜”를 niè라고 읽는다. “乜”는 “乜”와 단지 한 획 차이일 뿐이지만 yě로 읽을 수 없다.

么(me) 이 간단한 글자에도 여러 가지 발음이 있다. 구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잘못 읽기 쉽다. “么”는 “想去就去么(嘛)”에서처럼 ma로 읽거나, “这么”, “那么”, “怎么”처럼 후첨자(后缀字)로 쓰면 me로 읽는다. 또 숫자 “一”을 대신해서 쓸 때 “么”는 yāo로 읽으며, 그 밖에 mó, mò로도 읽는다. “么”는 “麼”로 쓸 수

있고 “么”로도 쓸 수 있다.

谬(miù) “谬论”, “谬误”의 “谬”를 niù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谬”는 miù로 읽어 ‘착오’의 뜻으로 “荒谬”, “大谬不然”, “谬以千里”등에서 쓴다.

N

南无(nā mó) “南无”는 불교용어로서 글자만을 보고 “nán wú”로 읽으면 안되고 또 다른 발음인 “nā mó”로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南无阿弥陀佛”는 “nā mó ē mí tuó fó”로 읽는다.

赧(nǎn) 이 글자는 shè로 읽을 수 없다. “赦免”의 “赦”와 “赧”은 왼쪽이 모두 붉을적변(赤)이지만 오른쪽 부분은 다르다. “赧”은 nǎn으로 읽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다’는 뜻으로 “赧颜”이라는 말이 있다.

恁(nèn) “凭”과 혼동하여 pí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아랫 부분이 하나는 “心”, 하나는 “几”로 서로 다르다. “恁”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nín으로 “您”과 발음과 뜻이 같다. 또 하나는 nèn으로 읽고 ‘那, 那么’의 의미로 “他恁有劲”, “要不了恁多”와 같이 쓴다..

廿(niàn) “廿”은 ‘이십’을 뜻하는 말이지만 “二十”로 읽지는 않는다. 정확한 발음은 niàn으로 초서는 “卅”이다.

溺(niào) “溺爱”, “溺水”에서는 nì로 읽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溺”는 또 niào로 읽기도 하는데 이 때는 “尿”와 같은 말로 쓴다. “不许随便溺”라는 말에서 사람들은 자주 “biàn nì”로 읽는데 “便溺”는 “biàn niào”로 읽어야 맞다.

P

胖(pán) “身体肥胖”은 지방과 살이 많음을 뜻한다. 여기서 “胖”은 pàng으로 읽는다. 그러나 “心广体胖”은 ‘태평하고 편안하다’는 뜻으로 “胖”을 pàng으로 읽지 말

고 pán으로 읽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心广体 pàng”으로 잘못 읽고 있다.

蹒(pán) “步履蹒跚”을 사람들은 자주 “步履 mán 跚”으로 잘못 읽는다. “蹒”은 pán으로 읽어야 한다. “蹒跚”은 길을 걸을 때 다리가 불편하다는 뜻으로 “盘跚”으로도 쓸 수 있다.

丕(pī) 종종 “丕”를 péi로 읽어 “曹丕”를 “曹 péi”로, “曹丕显”을 “曹 péi 显”로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丕”는 pī로 읽어야 하고 “丕业”, “丕变” 등에서 ‘크다’는 뜻으로 쓴다.

便(pián) 이 글자는 “方便”, “便利”에서는 biàn으로 읽지만 또 ‘물가가 싸다’는 뜻일 때는 pián으로 읽는다. 또 배가 불룩함을 형용할 때 “大腹便便”에서도 “便”은 pián으로 읽어야 맞다. “便宜”나 “大腹 biàn biàn”으로 읽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朴(piáo) “朴实”, “朴素”, “朴质”등의 단어에서 “朴”는 pǔ로 읽는다. 그러나 성씨를 말할 때는 pǔ로 읽지 않고 piáo로 읽는다. 성이 ‘pǔ’라면 “蒲”나 “溥”를 말한다. “朴”는 또 pō로도 읽는데 ‘구식병기의 일종인 양손으로 사용하는 칼’을 가리킨다. “朴”의 또 다른 발음은 pò로 “朴树(후박나무)”라는 나무 이름에 쓰기도 한다. “皮硝(가죽을 이길 때 쓰거나 이노제로 씌)”를 “朴硝”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때도 pò로 읽는다. “朴”의 네 가지 발음은 서로 섞어 쓸 수 없다.

抔(póu) 이 글자는 bēi로 읽기 쉬운 글자이다. “一抔黄土”를 “一 bēi 黄土”로 읽으면 틀리다. 나무목변(木)을 쓰면 bēi로 읽지만 재방변(扌)을 쓰면 bēi로 읽을 수 없고 póu로 읽어야 한다. “抔”는 ‘손으로 물건을 움켜쥐다’는 뜻으로 “一抔黄土”는 바로 “一捧黄土”의 뜻과 같다.

Q

蹊跷(qī qiāo) 간혹 사람들은 이 단어를 “xī qiǎo”로 읽는데 두 글자 모두 잘못

읽은 것이다. “蹊”는 qī로 읽고 “蹊”는 qiāo로 읽어야 한다. “蹊蹊”는 ‘기괴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이며 “这事儿来得真蹊蹊”에서와 같이 쓴다.

脞(qī) 이 글자는 xī나 xiū로 읽을 수 없다. “修长”과 “脞长”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발음이 다르다. “修长”은 “xiū cháng”으로 읽어 “修长身材”에서와 같이 ‘가늘고 길다’라는 의미로 쓴다. 또 “脞长”은 “qí cháng”으로 읽고 ‘키와 덩치가 크다’는 뜻으로 쓴다.

𪔐(qiān wǎ) 두 개의 발음법이 있는데 지금은 “qiān wǎ”라고 읽는데 예전엔 “wǎ qiān”으로 읽었다. 전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킬로와트)이다.

𪔐(qiān) “𪔐齐人”을 “kēng 齐人”으로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다. 쇠금변(金)이 있는 “𪔐”는 kēng으로 읽지만 “𪔐”은 qiān으로 읽어야 한다. “𪔐齐”는 ‘좁스럽고 인색하다’는 뜻이다.

𪔐(qián) 종종 “𪔐客”를 “jiān 客”라고 발음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肩”자에 재방변(扌)을 더한 “𪔐”은 qián으로 읽어야 한다. “𪔐客”는 ‘장사를 알선하는 중개인’을 가리킨다.

雀(qiǎo) 이 글자는 què로도 읽고 qiǎo로도 읽는다. “麻雀”, “山鹊雀”에서 “雀”는 què로 읽는다. 그러나 ‘야맹증’을 뜻하는 “雀盲眼”에서는 qiǎo로 읽어야 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참새를 “家雀儿”로 부르는데 여기서도 “雀”는 qiǎo로 읽는다. 그러나 ‘얼굴의 주근깨’를 나타내는 “雀斑”이라는 말에서는 qiǎo로 읽지 않고 què로 읽는다.

掣(qiè) “提纲挈领”의 “掣”를 자주 xié로 읽는데 틀린 발음이다. “掣”는 qiè로 읽고 ‘띠를 잡고 거머쥐다’는 뜻이다. “提纲挈领”은 ‘그물의 버릿줄을 잡고 옷깃을 거머쥐다’는 뜻으로 ‘문제의 요령을 잡다’는 것을 비유한다. 또 “掣领”을 “携领”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携领”은 ‘인솔하다’는 뜻으로 ‘옷깃을 거머쥐다’는 뜻은 가지

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挈领”은 “携领”으로 읽을 수 없다.

怯(qiè) 예전에는 què로 읽었으나 심의를 거쳐 qiè로 읽기로 결정되었다. “胆怯”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발음이다. “怯”는 “胆怯”, “怯场”, “怯懦” 등에서 ‘겁이 많다’, ‘두려워하다’의 뜻으로 쓴다.

惬(qiè) 사람들은 자주 “惬意”를 “xiá 意”라고 읽는데 “惬”는 xiá로 읽을 수 없고 qiè로 읽어야 한다. “惬意”는 ‘만족하다, 흡족하다, 마음이 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覃(qín) qín으로 읽기도 하고 tán으로 읽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성씨를 나타낼 때는 qín으로 읽고 ‘깊이 생각하다’는 뜻으로 쓸 때는 “覃思”에서와 같이 tán으로 읽는다. 성씨 중에는 또 “tán”씨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券(quàn) 자주 쓰는 글자인데도 종종 틀리게 읽는다. 예를 들어 “国库券”, “公债券”, “入场券”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券”자를 juàn으로 읽는데 틀리게 읽은 것이다. juàn이라는 글자는 “卷”으로 ‘서적, 시험지, 공문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이나 ‘어음’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券”은 “卷”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券”은 quàn으로 읽어 ‘어음, 증권’의 뜻을 가지며 “公债券”, “入场券” 등에서 쓴다. 또 “券”은 xuàn이라는 발음도 가지고 있다.

麋(qún) “麋”은 “糜鹿”의 ‘糜(mí)’와 같이 읽어서는 안되며 qún으로 읽어야 옳다. “麋”은 ‘무리를 이루다’는 뜻으로 “麋集”, “麋至”등에서 쓴다. “麋”는 또 jūn으로 읽기도 하는데 고서(古书)에서 ‘노루’를 뜻하는 말로 쓴다.

R

蓂(rèn) 뽕나무의 열매를 “桑蓂儿(오디)”이라고 부른다. 이 “蓂”자는 매우 읽기 어려운 글자로 사람들은 종종 아예 이 단어를 “桑粒”라고 읽어버린다. “蓂”은 rē

n으로 읽고 보통 ‘儿’을 붙여 발음한다. 즉, “桑葚儿”는 “sāng rèn”으로 발음해야 한다. “葚”는 shèn으로도 읽어 “sāng shèn”으로도 말할 수 있다.

扔(rēng) 발음을 정확히 읽기 어려운 글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lēng으로 읽어 성모를 틀리게 읽는다. “扔”은 성모가 “l”이 아니고 “r”이며 rēng으로 읽는다. ‘손에서 물건을 내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冗(rǒng) 이 글자는 성조를 잘못 읽기 쉽다. róng이나 rōng으로 읽으면 모두 틀린 발음이 된다. “冗”은 rǒng으로 읽어야 옳다. “冗长”은 “rǒng cháng”으로 읽고 ‘글이나 말을 너무 길게 한다’는 뜻으로 쓴다.

S

仨(sā) “仨”은 “三”과 같은 발음으로 읽을 수 없고 용법 또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三”은 sān으로 읽고 ‘2와 1의 합’을 의미한다. “弎”은 “三”과 같으며 “叁”은 “三”의 갖은자로 발음도 같다. 그러나 “仨”는 sān으로 읽지 않고 sā로 읽는다. ‘세 개’의 뜻으로 이미 양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仨个”, “仨斤”이라고는 할 수 없다.

卅(sà) 하나의 가로획과 세 개의 가로획으로 된 이 글자는 “십”이 세 개, 즉 “三十”의 뜻이다. 그러나 “卅”는 “三十”로 읽어서는 안된다. sà로 읽어야 한다. “五卅运动”이 그 예이다. 또 “卅”는 “卅”로 쓸 수 없다. 중간의 가로획은 옆으로 빼침이 있어야 하며 물론 이 글자를 ‘舟’의 발음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瘙(sào) 피부가 가려운 것을 “瘙痒”이라고 하는데 “瘙痒难忍”에서 “瘙痒”을 어떻게 읽는지는 정확히 아는 이가 많지 않다. “sāo yǎng”이나 “náo yǎ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瘙”는 sào, 제4성으로 읽어야 한다. 피부가 가려운 것을 “瘙痒”이라고 하고 손톱으로 가려운 곳을 긁는 것을 “挠痒(náo yǎng)” 혹은 “搔痒(sāo yǎng)”이라고 한다. 瘙, 搔, 挠 이 세 글자는 발음이 모두 다르다.

敵(shà) “敵血为盟”을 어떤 사람들은 “chā 血为盟”라고 읽는데 이것은 “敵”와 “插”를 혼동한 때문이다. 옛날 맹회(盟會)를 열 때 입술에 가축의 피를 묻혀 굳은 마음을 표시했는데 이것을 “敵血为盟”이라고 표현하며 “插”와는 관련이 없다. “敵”는 shà로 읽고 ‘입으로 빨아들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柵(shān) 다극전자관중에 양극과 가장 가까운 전극(그리드)을 “柵极”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柵”을 shān으로 읽는다. 그러나 shān으로 읽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북경의 거리 중에 “大柵栏”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외지인들은 이곳을 자주 “大 shān lán”으로 잘못 말한다. “大柵栏”의 정확한 발음은 “大 shí là”이다. “柵”은 shān, shí, 또 zhà로도 읽는데 언제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건축물 주변의 울타리를 나타내는 “柵栏”은 “zhà lán”으로 읽는다.

贍(shàn) “贍养”, “瞻仰”, 이 두 단어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끔 혼동한다. 가끔 “贍养”을 “zhān 养”으로 읽는데 “瞻仰”은 ‘우러러보다’라는 말로 “贍养”과는 뜻이 많이 다르다. “贍养”은 shàn养으로 읽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다’는 뜻으로 쓴다. 조개패(贝)가 있는 “贍”의 발음은 shàn으로 읽고 ‘공양하다’는 뜻을 가진 다. 반면 눈목변(目)이 있는 “瞻”은 zhān으로 읽고 ‘보다’라는 뜻으로 쓴다.

拾(shè) “拾级而上”을 자주 “shí 级而上”로 읽는데 맞지 않다. “拾”의 발음은 shí이지만 “拾级”라는 단어에서는 shí로 읽을 수 없다. “拾级”는 “shè jí”로 읽어 ‘점차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다’의 뜻으로 쓴다..

哂(shěn) “哂笑”를 어떤 사람은 “shān 笑”라고 잘못 읽는다. “哂”자는 shěn으로 읽고 ‘미소짓다’는 뜻을 가진다. “哂笑”는 “shěn xiào”로 읽어 “为大家所哂笑”에서와 같이 ‘비웃다’는 뜻으로 쓴다.

豕(shǐ) 여섯 가지 가축 “马, 牛, 羊, 鸡, 犬, 豕”를 말할 때 사람들은 “豕”를 shì로 읽는다. 그러나 “豕”는 shì로 읽지 않고 shǐ로 읽어야 맞다. “豕”는 돼지이다.

恃(shì) 이 글자는 chí, 또는 chǐ로 읽으면 틀린 것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有 chí 无恐(믿는 곳이 있어서 두려움을 모르다)”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恃”와 “持”는 성모가 다르다. “恃”는 shì로 읽고 ‘의존하다, 의지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舐(shì) “舐”는 ‘아침하다’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이 글자를 tiǎn으로는 읽으면 안된다. “舐”은 shì로 읽고 ‘핥다’는 뜻을 나타낸다. “老牛舐犊(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다)”, “舐犊情深(아버지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다)”를 각각. “老牛 tiǎn(舔)犊”, “tiǎn(舔)犊情深”으로 읽거나 써서는 안된다.

溢(shì) yì로 읽기 쉬운데 이것은 글자의 한 부분만 보고 잘못 읽은 것이다. 군주시대 제왕, 귀족, 대신 등이 죽은 후 생전의 공적에 따라 내리는 시호를 “溢”라고 한다. “诸葛亮溢忠武”, “岳飞溢武穆” 등의 예에서 “溢”는 shì로 읽어야 한다.

吮(shǔn) 오른쪽이 “允”자여서 발음을 yǔn으로 잘못 알고 “吸 yǔn”, “yǔn 奶”로 읽는 경우가 있다. “吮”의 정확한 발음은 shǔn이며 ‘빨다’의 뜻이다.

悚(sǒng) 이 글자를 오른쪽 글자인 “束”의 발음으로 읽는 것은 틀린 것이다. “毛骨shù然(머리카락이 곤두서다)”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悚”은 sǒng으로 읽어야 하며 ‘겁먹다’는 뜻이다.

T

獭(tǎ) “水獭(수달)”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야생동물의 이름이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것을 “水 lài”라고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獭”에 개사슴록변(犛)이 붙으면 lài로 읽을 수 없고 tǎ로 읽어야 한다.

拓(tà) tà로도 읽고 tuò로도 읽는다.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 읽기 쉽다. “拓片”을 “tuò 片”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tà 片”으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拓

片”, “拓本”에서는 tà로 읽고 “开拓”, “拓宽”에서는 tuò로 읽어야 한다.

您(tān) “您”은 “他”와 동의어로 “您”과 같이 ‘존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您是我的老师”나 “您今年七十多岁了”와 같은 문장에서 쓸 수 있다. “您”의 발음은 tān이지 tā가 아니다.

倘(tǎng) “倘”과 같은 발음인 tǎng으로 읽어야지 dǎng으로 읽으면 안된다. “倘荡”은 ‘放荡’의 뜻이며 “倘脱”은 ‘洒脱, 不拘束(소탈하다, 호방하다)’의 뜻이다.

饕餮(tāo tiè) 이 두 글자는 매우 어려워서 잘못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윗부분에 있는 글자의 발음에 따라 “hào zhēn”으로 읽는 것은 완전히 틀린 발음이다. “饕”는 tāo로 읽고 “餮”는 tiè로 읽는다. “饕餮”는 전설에 나오는 흉악하고 탐식하는 야수의 일종으로 식탐이 많거나 흉악한 사람을 비유할 때 쓴다.

忒(tè) 이 글자는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쓰임이 각각 다르다. ‘착오’의 의미로 “差忒”에 쓰면 tè로 읽고, ‘새가 급하게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낼 때 “麻雀忒儿一声飞走了”에서는 tēi라고 읽는다. 그리고 “这屋子忒小了”에서와 같이 ‘너무’의 뜻으로 쓰면 “忒”는 tuī로 읽어야 한다. tuī와 tè는 나타내는 뜻이 다르므로 “tuī小”를 “tè小”로 읽어서는 안된다.

殄(tiǎn) “暴殄天物”은 ‘멋대로 물건을 손상시키다, 낭비하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暴 zhēn 天物”라고 읽는데 완전히 잘못되었다. “殄”은 ‘아끼다’는 뜻으로 ‘손상시키다, 낭비하다’와는 반대되는 말이다. “殄”은 tiǎn으로 읽고 ‘소멸하다’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荼(tú) 많은 사람들이 chá로 잘못 읽는데 “荼”는 “茶”보다 한 획이 적으며 발음과 뜻이 모두 다르다. “荼”는 고서(古書)에서 맛이 쓴 채소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로 차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荼毒”은 ‘독살하다, 해치다’의 뜻으로 쓰며 “荼毒生灵(인민을 박해하다)”이라는 말이 있다. 또 “如火如荼(불이 훨훨 타고 떠꽃이

흐드러진 것 같다, 기세가 등등하다)”에서는 “茶”가 ‘띠에 나는 흰 꽃’을 가리킨다.

湍(tuān) 이 글자를 tuǎn으로 읽으면 성조가 잘못된 것이며 chuǎn으로 읽으면 글자 자체를 잘못 읽은 것이다. “湍”은 tuān으로 읽어야 한다. “湍流”, “湍急”은 모두 ‘물살이 급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臀(tún) “臀部”를 “diàn 部”로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글자가 어려워져서 한쪽 글자의 발음을 그대로 읽은 것인데 부분만 보고 읽는 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더욱 많다. “殿”은 diàn으로 읽지만 아랫 부분에 ‘月’자를 넣으면 “殿”으로 읽어서는 안되며 tún으로 읽어야 한다. “臀”은 ‘엉덩이’를 말한다.

W

崴(wǎi) “海參崴”를 “海參 wēi”로 잘못 읽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崴”은 wēi로 읽을 수 없고 wǎi로 읽어야 한다. ‘산이나 하천이 구부러진 곳’을 “崴子”라고 하고, ‘진흙에 빠지다’라는 말을 “崴泥(wǎi ní)”라 한다. 그러나 ‘산이 높다’는 뜻으로 쓰는 “崴巍”에서는 “崴”을 wěi로 읽는다.

蔓(wàn) 이 글자도 다음자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식물의 가늘고 긴 줄기’를 蔓이라고 하며 “西瓜蔓”, “豆角蔓”에서 “蔓”은 màn으로 읽을 수 없고 wàn으로 읽는다. 그러나 ‘덩굴줄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蔓生植物”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蔓”을 màn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사방으로 확산되다’는 뜻의 “蔓延”에서도 “蔓”은 màn으로 읽지 wàn이나 mán으로 읽지 않는다. 한편 “植物蔓青”에서 “蔓”은 mán으로 읽어야지 “màn 青”으로 읽지 않는다.

猥褻(wěi xiè) 이 두 글자는 자주 쓰긴 하지만 읽기는 어렵다. 그냥 생각없이 “wěi zhì”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된다. “猥”은 wěi로 읽고 ‘비열하다’는 뜻을 가진다. 또 “褻”은 xiè로 읽어 ‘음란하다’는 뜻으로 쓴다. “猥褻”은 ‘천박한 행위를 하다’는 뜻이다.

斡(wò) 이 글자는 “干”과 자형이 비슷해 “斡旋”을 “gàn 旋”으로 잘못 읽는 사람을 볼 수 있다. “斡”는 wò로 읽으며 “从中斡旋”와 같이 “斡旋”은 ‘조정하다’는 뜻으로 쓴다.

妩(wǔ) “妩媚”를 “fǔ mèi”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抚”는 ‘위로하다’의 뜻으로 “媚”와 단어를 이룰 수가 없다. “妩”는 wǔ로 읽어야 하며 “妩媚”는 ‘여자와 꽃, 나무가 아름답고 예쁘다’는 뜻이다.

X

膝(xī) “膝盖”는 상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종종 “qī 盖”로 잘못 읽혀진다. “膝”와 “漆”는 발음이 다르다. “膝”의 발음은 xī이고 “油漆”의 “漆”는 qī로 읽어야 한다.

跹(xiān) “翩跹”을 자주 “piān qiān”으로 읽는데 틀린 발음이다. 跹은 qiān으로 읽지 않고 xiān으로 읽는다. “翩跹”은 “piān xiān”으로 읽고 ‘경쾌하게 춤을 추다’는 뜻을 나타낸다.

涎(xián) “涎水”는 속칭 “口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涎”을 yán으로 잘못 알고 “涎水”를 “yán 水”라고 말하거나 “垂涎三尺”를 “垂 yán 三尺”라고 틀리게 발음한다. “涎”은 xián으로 읽어야 한다.

梟(xiāo) 자주 볼 수 있는 글자이지만 읽기는 어렵다. jiū로 읽거나 fú로 읽는 것은 모두 틀리다. “梟”는 xiāo로 읽고 “毒梟”에서는 ‘우두머리’의 뜻을, “梟将”에서는 ‘용맹스럽다’는 뜻을, “梟首示众”에서는 ‘사람의 목을 베다’라는 뜻을 각각 가진다.

骁(xiāo) 이 글자는 áo로 잘못 알고 “áo 勇善战”, “áo 将”이라고 틀리게 읽는 경우가 많다. “骁”는 xiāo로 읽고 “骁将”, “骁骑”, “骁勇”에서와 같이 ‘용맹스럽다’

는 뜻으로 쓴다.

酗(xù) “酗酒”를 오른 쪽만을 보고 “xiōng 酒”라고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酗”은 xù로 읽으며 “酗酒”는 ‘술을 절제하지 않고 마셔 술주정을 하다’는 뜻이다.

渲(xuàn) “渲染”을 사람들은 자주 “xuān 染”으로 읽는데, 성조가 잘못되었다. “渲”과 “喧”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喧哗”의 “喧”은 xuān으로 읽고 “渲染”의 “渲”은 xuàn으로 읽어야 한다.

Y

轧(yà) 다음자로서 yà, zhá, gá로 읽는다. ‘압연설비기기’를 나타내는 “轧机”와 ‘압연강철’을 의미하는 “轧钢”의 “轧”는 모두 zhá로 읽어야지 yà로 읽을 수 없다. 그러나 ‘빳다, (롤러로) 평평하게 만들다’는 뜻으로 쓴 “轧场”, “轧棉花”, “轧道机”에서 “轧”는 yà로 읽어야 한다. “zhá 花机”라는 발음은 틀린 것이다. 그 외에 ‘교제하다’의 뜻으로 쓴 “轧朋友”에서 “轧”는 gá로 읽어야 한다.

杳(yǎo) “杳”는 tà나 tào로 읽으면 안된다. “tà 无音信”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杳”는 yǎo로 읽어야 하고 ‘너무 멀어 소식이나 행방이 묘연하다’는 뜻을 가진다. “杳无音信”, “杳无踪迹”등이 예이다.

靛(yè) “靛窝”는 보조개를 뜻하는데 사람들은 “靛”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yàn으로 읽거나 yà로 읽기도 하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酒靛”, “笑靛”에서 “靛”는 yè로 읽어야 한다.

宦(yí) 이 글자는 “宦”자와 매우 비슷해서 huàn으로 자주 읽는다. 이 두 글자는 겨우 한 획 차이이지만 발음과 뜻이 크게 다르다. “宦”자의 아래 부분은 “臣”이 아니며 발음도 yí로 읽어야 한다. ‘옛날 집의 동북쪽 모퉁이’를 가리키는 말로 “宦官”과는 거리가 멀다.

懿(yì) 옛날 사람들은 이 글자를 *지*라고 읽었는데 틀린 발음이다. “懿”는 *yì*로 읽고 “懿德懿范”에서와 같이 ‘품행이 좋다’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삼국지 중에 “司馬懿”라는 사람은 “懿”를 *yì*로 읽고 *yí*로 읽지 않는다.

佚(yì) “佚名”은 “shī 名”으로 읽지 말고 “yì 名”으로 읽어야 한다. “佚”은 “逸”와 같으며 ‘산실하다’의 뜻으로 쓰고 “佚文”, “佚闻(일화)”, “佚事(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에 쓴다. 또 “佚名”은 작자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음을 뜻한다.

诣(yì) “造诣”를 “造 zhǐ”로 읽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잘못 읽은 것이다. “诣” 앞에 “言”자가 있으면 *zhǐ*로 읽지 말고 *yì*로 읽어야 한다. “造诣”는 ‘학업이나 기술이 이른 정도’를 뜻한다. “诣”는 ‘주지’의 뜻으로 “诣”가 나타내는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弋(yì) 이 글자는 *gě* 또는 *yè*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弋”는 *yì*로 읽고 ‘새를 잡을 때 쓰는 끈이 달린 화살’을 가리킨다. 또한 “曳(yè)光弹”을 “yì 光弹”으로 잘못 읽는데 이 역시 틀린 것이다.

囿(yòu) 가운데 “有”가 있긴 하지만 *yǒu*로 읽지 않고 *yòu*로 읽어야 한다. “囿”는 ‘제한하다, 구속하다’는 뜻으로 “囿于财力”, “囿于成见”과 같은 예가 있다.

妪(yù) *qū*나 *ōu*로 읽을 수 없으며, *yù*로 읽어야 한다. “老妪”, “翁妪”는 ‘연로한 여자’를 가리킨다. “老媪”도 ‘나이든 여자’를 뜻하는 말로 “媪”는 *ǎo*로 읽는다.

Z

载(zài) *zài*로도 읽고 *zǎi*로도 읽는 글자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해, 년’을 가리키는 “一年半载”에서와 ‘기재하다의’ 뜻으로 쓴 “刊载”, “转载”에서는 *zǎi*로 읽는다. 그러나 ‘적재하다’의 뜻으로 쓴 “载客”, “载重”에서와 ‘충만하다’의 뜻으로 쓴 “怨声载道”, “风雪载途”에서, 그리고 “载波”, “载荷”, “载体” 등에서는 “载”를 모두 *zài*로 읽어야 한다. 또 “载歌载舞”를 “zài 歌 zǎi 舞”로 읽으면 안되

고 “zài 歌 zài 舞”로 읽어야 한다. “zài 耨归来”라고 하는 말도 성조가 틀린 것이다.

奘(zàng) “唐玄奘”을 사람들은 자주 “唐玄 zhuāng”이나 “唐玄 zhuàng”으로 읽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奘”은 인명에 써서 zàng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唐玄 zàng”으로 읽는 것이 옳다. “奘”은 또 ‘장대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绽(zhàn) “破绽”을 사람들은 “破 dìng” 또는 “破 diàn”으로 읽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绽”은 zhàn으로 읽고 ‘터지다’의 의미로 쓰며 “破绽”, “皮开肉绽” 등이 예이다.

殖(zhí) 과거에는 “殖民地”를 “chí 民地”로 발음했으나 “殖”의 발음이 그 후 심의를 거쳐 zhí로 결정되었다. “殖”을 chí로 읽어서는 안된다.

纂(zuǎn) 이 글자는 제3성으로 읽지 않고 zuàn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攢”과 혼동한 것이다. “纂”은 zuǎn으로 읽어 ‘편집’의 뜻을 가지며 “编纂”, “纂修” 등에서 볼 수 있다.

柞(zuò) “柞蚕丝”를 사람들은 “zhà 蚕丝”라고 읽는데 틀린 것이다. “柞”에 나무 목변(木)을 더하면 zhà로 읽어서는 안되며 zuò로 읽어야 한다. “柞树”, “柞蚕”, “柞丝绸”에서 “柞”는 모두 zuò로 읽어야 한다. 단, “柞”가 지명을 나타낼 때는 “柞水(산시성(陕西省)에 있음)”에서와 같이 zhà로 읽는다.

2. 잘못 쓰기 쉬운 글자

글자를 잘못 읽는 것 외에 오자를 쓰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일상서적, 서적 간행물, 영상스크린, 광고간판, 심지어는 공식문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뜻을 전달해야 하는 글자를 잘못 쓰면 곧 의미를 잘못 전달하게 되고,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글자는 정확하고, 규칙에 맞게 써야하며 최대한 오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자를 쓰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글자를 쓸 때 신경을 쓰지 않고 부주의한 나머지 한 획을 많거나 적게, 또는 획을 잘못 그음으로써 글자가 틀리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步”를 “歩”로 한 획 많게 쓰거나, “苳”을 “葎”로 한 획 적게 쓰거나 “市”를 “市”로 한 획 잘못 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모두 다른 글자를 써버린 것이다.

둘째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글자를 쓰게 되는 경우이다. 즉,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서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印”을 “卯”으로, “毒”을 “毒”으로, “梁”을 “梁”으로 쓰는데 이는 모두 잘못 쓴 것이다.

셋째는 발음이 비슷해서 서로 혼용해서 쓰는데 이는 오자를 쓰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상황은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噩夢”을 “惡夢”으로, “朝廷”을 “朝庭”으로, “陷阱”을 “陷井”으로, “豹突泉”을 “豹突泉”으로 쓰는데 이는 모두 동음(同音)이기 때문에 혼동하여 다른 글자를 쓴 경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자는 필획을 부정확하게 잘못 쓴 글자와 “忸怩”을 “扭悞”로 쓰는 것처럼 발음이 같지만 다른 글자로 쓴 글자 등을 포함하는데, 후자를 백자(白字)라고도 한다. 사실,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많다. 아래에서는 일부 잘못 쓰기 쉬운 글자들을 발췌하여 기재했다. 각각 비교와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A

哀(āi) “哀”, “衷”과 “衰”는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여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쉽다. 이 세 글자는 자형, 발음, 뜻(形, 音, 義)이 모두 다르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悲哀”의 “哀”는 āi로 읽으며衣자를 분해하여 중간에 “口”를 삽입한다. “衷”자는 zhōng으로 읽으며 쓰는 법은衣자를 분해하여 중간에 “中”

자를 삽입한다. 그리고 “衰”는 shuāi로 읽으며 衣자를 분해하여 중간에 횡으로 쓴 “中”자를 첨가한다. 이 세 글자는 쓰는 방법에서 구별을 분명히 해두면 혼동하여 잘못 쓰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毒(ài) 이 글자는 “毒”자와 매우 흡사하여 “毒”으로 잘못 쓰기 쉽다. “毒”과 “毒”은 필획이 다르다. “毒”의 윗부분은 “土”이고, 아랫 부분은 “毋”이며 발음은 ài이다. “嫪毒”과 같이 고대 인명에 쓰였다. 그러나 “毒”자의 윗부분은 “王”이고, 아랫 부분은 “母”이며 발음은 dú이다.

卯(ǎng) “卯”의 왼쪽 글자는 “卯”이며 2 획이다. 그러나 “卯”의 왼쪽 부분은 “丩”으로 3 획이다. “卯”은 ǎng으로 읽으며 의미는 “昂”과 같다. “卯”은 mǎo로 읽으며 바로 “子丑寅卯”의 “卯”이다. 이 두 글자는 겨우 한 획의 차이로 하나는 다리가 하나, 하나는 다리가 두개이다.

昂(áng) “昂”과 “昴”는 모양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고 때로 잘못 쓰기도 한다. “昂”은 áng으로 읽어 ‘높다’는 뜻을 가지며 윗부분에는 “日”자를 아랫부분에는 “卯”을 쓴다. “昴”는 mǎo로 읽고 ‘묘성(28수중의 하나)’을 뜻하며 윗부분에 “日”자를, 아랫부분에 “卯”자를 쓴다. 이 두 글자는 아랫부분의 필획이 다르다.

袄(ǎo) “袄”, “袄”, “袄”, 이 세 글자의 자형은 매우 비슷해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잘못 쓰기 쉽다. 그러므로 필획의 차이에 주의해야한다. “袄”는 ǎo로 읽고 “夹袄”라는 말에서처럼 ‘옷’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수가 “衤”이다. “衤”로 잘못 쓰면 옷과는 관련이 없는 ‘신’의 뜻이 포함된다. “袄”는 xiǎn으로 읽는데 “袄教”는 조로아스터교를 가리킨다. 신과 관련이 있으므로 “示”자 부수를 쓰고 오른 쪽에 夭를 쓴다. “示”는 옛날에 ‘신(神)’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袄”는 yāo로 읽고 “妖”와 같은 말로 ‘요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부수는 “衤”이다. 그러나 오른쪽 글자는 “夭”이지 “天”이 아니다.

奥(ào) “奥”는 ào로 읽는데 쓰기법에 주의해야 한다. 위쪽 부분 가운데에 “米”를 쓰고 “米”에는 빼침(丿)이 없고 아래는 가로획을 그어 입구를 막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大”를 쓴다. “澳”, “澳”의 오른쪽 부분도 모두 이런 방법으로 쓴다. “奥”와 “粤”는 발음이 다르므로 주의깊게 구별하여 써야한다. “粤”는 yuè로 읽으며 쓸 때는 윗부분 중간에 “米”를 쓰고 米아랫부분에 가로획을 그어 입구를 막아야한다. 아랫부분은 “丂”이다. “奥”를 쓸 때 입구를 막아버리면 틀리고 “粤”를 쓸 때는 입구를 막지 않으면 틀리게 쓴 것이다. 이런 사소한 차이는 매우 소홀히 하기 쉽다. “奥”와 “粤”의 “米”에는 모두 빼침이 없으며 빼침이 있으면 틀린 것이다.

B

拔(bá) “拔”과 “拨”은 꺾임 하나의 차이로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쉽다. 이 두 글자는 모두 손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모두 채방변을 쓴다. 구별 방법은 오른쪽에 있다. “拔”은 bá로 읽고 오른쪽이 “友”인데 “友”나 “发”로 쓰면 모두 잘못된 것이다. “拨”은 bō로 읽고 오른쪽이 “发”이며 “友”나 “友”로 쓰면 안된다.

坝(bà) 자주 쓰지만 틀리기 쉬운 글자이다. “坝”는 ‘제방’을 가리킨다. 바른 쓰기법은 흑토변(土)을 쓰고 오른쪽에는 “贝”자를 쓰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贝”자를 “贝”로 써 “坝”가 “坝”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현대한어사전에는 “坝”자가 없다.

瘢(bān) “瘢”과 “瘢”은 모두 bān으로 읽지만, 의미가 다르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병인 주근깨는 “雀斑”이나 “雀斑”이라고 써야지, “雀斑”이라고 써서는 안된다. 반면 종기나 상처가 아문 후의 흔적은 “瘢痕”이라고 써야한다. 만약 “斑痕”이나 “瘢痕”이라고 쓴다면 모두 틀린 것이다.

拌(bàn) “拌”, “拌”, “拌”, 이 글자들은 발음이 같고, 글자의 모양도 서로 비슷하여 혼동해 쓰기 쉽다. “拌”은 ‘불을 지피는데 쓰는 썰나무’를 가리키므로 반드시 나무목변(木)을 써야한다. “拌”은 ‘반죽하다’는 의미인데 반죽은 손을 사용하므로

재방변(扌)을 써야한다. 그리고 “拌”은 ‘막히다’ 또는 ‘엉키다’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실사변(纟)을 써야한다. “脚被拌住了”라는 말에서 “拌”은 “絆”으로 고쳐 써야 하며 “柳木拌子”의 “拌”은 “拌”으로 고쳐 써야 한다.

浜(bāng) “浜”, “淀”, “滨”, 세 글자는 자형이 비슷하여 읽고 쓰는데 혼동하기 쉽다. “浜”은 bāng으로 읽고 ‘작은 강’을 가리키며 물수변에 ‘兵’자를 더한다. 이 글자는 bīng으로 읽지는 않는다. “淀”은 diàn으로 읽고 ‘얕은 호수’를 가리킬 때 쓰며 삼수변에 ‘定’자를 더한다. 이 글자를 dì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滨”은 bīn으로 읽는데 삼수변에 ‘宾’을 더하며 ‘물가’의 뜻이다. “浜”은 틀리게 읽기 쉬운 글자이고, “淀”과 “滨”은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쉬운 글자이다. 만약 “北京市海滨区”나 “淀河路”로 쓰면 잘못 쓴 것이다. 각각 “海淀区”, “滨河路”로 고쳐 써야한다.

趵(bào) “趵突泉”을 “豹突泉”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쓴 것이다. “趵突泉”의 ‘趵’는 발족변(足)이며 ‘뛰어오르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豹’는 ‘虎豹(범과 표범)’의 ‘豹’로 호랑이를 닮은 들짐승을 뜻한다. 그러나 지난시(濟南市)에 있는 “趵突泉”은 ‘범, 표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抱负(bào fù) “抱负”는 원대한 포부를 가리키는 말로 이것을 “报负”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외에 “报复”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복하다’는 뜻이다. “抱负”를 “报负”로 쓰거나 “报复”를 “抱复”로 쓰면 안된다. 동음자라고 혼용해서는 안된다.

抱歉(bào qiàn) “抱歉”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여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报歉”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抱”는 ‘마음속에 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歉”과 결합하여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报”는 ‘보답하다, 보복하다, 보고하다’ 등의 뜻으로 쓰며 “报歉”과 같이 결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틀린 것이다.

备不住(bèi bu zhù) 이 단어는 때때로 “备”를 “被”로 잘못 쓰기도 한다. “备不住”의 의미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背不住”라고도 쓸 수 있다. 그러나 “被不住”에서 “被”는 ‘피동’이나 ‘복종’을 가리키며 ‘不住’와 는 결합할 수 없다.

鼻(bí) 아주 간단한 글자이지만 자주 잘못 쓰고 있고 또 틀려도 잘 느끼지 못한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 “鼻”자는 “自”, “田”, “丌”, 이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인 “自”는 거의 틀릴 확률이 없지만, 가운데 부분인 “田”은 “曰”이나 “𠂔”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 번째 부분인 “丌”는 윗부분이 나오면 안되는데 어떤 사람은 “开”와 같이 머리 부분이 나오도록 쓴다. 예를 들면, “鼻”로 쓰는데 이것은 ‘弄’, ‘算’, ‘葬’등의 영향을 받아 잘못 쓴 경우이다. 아무리 쉬운 글자라 하더라도 필획구조를 자세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币(bì) “币”와 “市”는 자형의 차이가 매우 미세하여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 “币”는 bì로 읽고 ‘화폐’를 가리킬 때 쓴다. 윗부분은 빼침을 쓰지 가로획이 아니다. 가로획을 써서 “货币”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 “市”는 zǎo로 읽어 ‘한바퀴’를 뜻한다. 이 글자의 윗부분은 빼침이 아닌 가로획이다. 그런데 또 이것을 빼침으로 써서 “绕树三币”라고 틀리게 쓰는 사람도 있다. “市”은 “匝”로 쓰기도 한다.

毕竟(bì jìng) ‘마침내, 결국, 도대체’라는 뜻을 나타내는 “毕竟”이라는 말을 “必竟”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발음이 같기 때문에 혼동해서 오자를 쓴 것이다. “毕”은 ‘끝마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必”은 이런 뜻이 없으며 ‘반드시’라는 뜻을 가진다. “必竟”은 단어가 될 수 없다.

变卦(biàn guà) 이미 정해진 일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变卦”라 한다. “卦”는 ‘점괘를 치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变挂”로 쓰는데 ‘물건을 걸다’라는 의미의 “挂”를 쓰면 안된다. “卦”와 “挂”는 모두 guà로 읽지만, 자형과 뜻이 다르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辨(biàn) “辨”, “辯”, “辯”, “纒” 이 네 글자는 모두 biàn으로 읽지만, 각각 나타내는 뜻이 다르므로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辨”과 “辯”의 다른 용법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辨”의 중간이 “丨”으로 ‘분별하다, 분간하다’라는 뜻이다. “辨別”, “辨明”, “辨識”, “辨析”등은 모두 “辨”으로 써야지 “辯”으로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辨白”, “辨正”에서는 “辨”이나 “辯”을 모두 쓸 수 있다. “辯”의 중간에 있는 “言”은 ‘변명하다, 변론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辯護”, “辯論”, “辯解”, “辯駁”, “辯斥”, “辯士”, “辯難”등은 모두 “辯”으로 써야지 “辨”으로 쓰면 틀리다. “辨白”, “辨明”, “辨正”, “辯證”에서는 “辨”으로 쓸 수 있다. 한편 ‘머리를 땅다’라는 “biàn子”는 “辯子”로 써야한다. 이것을 “头发纒子”라고 쓰면 안된다. “抓辯子”, “揪住辯子” 등에서도 “辯”으로 써야 하는데 “辯”의 가운데는 실사변이다. “草帽纒”, “蒜纒子”라고 할 때는 “辯”이나 “纒”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秉(bǐng) “秉”과 “稟”은 같이 쓸 수 있을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秉承”을 “稟承”이라고 쓸 수 있지만, “秉性”을 “稟性”이라고는 쓸 수 없다. “秉性”은 “秉性各異”에서와 같이 ‘성격’을 뜻하며 “稟性”은 “稟性難移”에서와 같이 ‘본성’을 뜻한다. “稟報”, “稟告”를 각각 “秉報”, “秉告”라고 써서는 안된다. 또 “秉公”, “秉正”을 “稟公”, “稟正”이라고 쓰면 틀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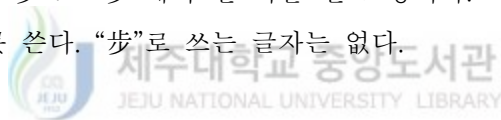
憋屈(biē qū) 가끔 “憋屈”를 “憋曲”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憋屈”는 “委屈”, “憋悶”과 뜻이 비슷하여 ‘억울함이나 걱정을 참다’는 뜻을 가진다. “曲”로는 “委曲”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委曲求全”와 같은 말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하다’는 뜻으로 억울함이나 걱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憋屈”는 “憋曲”라고 쓸 수 없다.

钹(bó) “钹”와 “鑼”는 발음과 뜻이 비슷해서 혼용하기 쉽다. “钹”는 bó로 읽는데 보통 “鑼”라고 부르는 ‘동(銅)으로 만든 악기의 한 종류’이다. 어떤 이들은 이 “钹”

를 “鏹”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 “鏹”는 pǒ로 읽고 ‘풀을 베는 낫의 일종’이다. 이 두 글자는 격임 하나의 차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钹”는 쇠금변에다 “友”를 더한 것이고 “鏹”은 쇠금변(金)에 “发”를 더한 것이다.

哺(bū) “哺”, “哺”, “脯” 이 세 글자는 자형이 비슷해서 혼용하거나 틀리게 쓰기 쉬운데 반드시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 哺는 bū로 읽고 날일변에 “甫”자를 붙인다. 뜻은 ‘신시(申時)’, 즉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므로 날일변(日)을 쓰는 것이다. “哺”는 bǔ로 읽고 입구변에 “甫”를 더한다. ‘양육하다, 배양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구변을 쓴다. 또 “脯”는 pú로 발음하며 “月”자와 “甫”자를 더한다. ‘흉부나 가슴부위의 고기’를 뜻하는 말로 달월변을 쓴다. 이렇게 정확히 구분한다면 바르게 쓸 수 있다.

步(bù) 상용자이지만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글자이다. “步”의 정확한 쓰기법은 위는 “止”, 아래는 “少”로 “少”에서 한 획을 뺀 모양이다. 그런데 자주 종종 아랫부분을 “少”로 잘못 쓴다. “步”로 쓰는 글자는 없다.



C

蚕(cán) “蚕”은 잘못 쓰기 쉬운 글자로 윗부분의 “天”을 “夭”로 잘못 쓰고 있다. “蚕”은 옛부터 “天虫”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당연히 “天”자라야 한다. 또 “蚕”은 ‘벌레의 일종’이므로 아랫부분에 “虫”자를 쓴다. “天虫”이 “蚕”로 변한 글자로서 “夭”아랫부분에 “虫”을 더한 글자는 한자에 없다.

操作(cāo zuò) ‘일정한 순서와 기술적인 요구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操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操作方法”, “操作规程” 등이 예이다. ‘노동하다, 일하다’도 “操作”라고 한다. “操做”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做活”, “做事”, “做工”, “做作”라고 쓸 때만, “做”라고 써야 한다.

掺和(chān huò) ‘같이 섞다’라는 말을 “掺和”라고 하며 “土地砂子掺和在了一起用”, “这事你别瞎掺和” 와 같은 말이 있다. 그러나 “掺和”를 “掺合”라고 쓰면 틀리다.

“和”는 ‘연합, 혼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습”은 ‘달다’, ‘결합, 부합’ 등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婵娟(chán juān) “婵娟”은 ‘곱고 아름답다’는 뜻이며 여자를 형용할 때 많이 쓴다. 또 “千里共婵娟”의 “婵娟”은 ‘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婵娟은 모두 계집녀변을 쓴다. 이것을 “蟬娟”으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虫”이 있는 “蟬”은 매미로 곤충으로 “蟬蛻”, “蟬联” 등에서 쓴다.

缠(chán) “缠”은 ‘얽히다’는 뜻으로 실사변에 오른쪽에는 “廾”을 붙인다. 가끔 오른쪽에 “厘”를 붙여 쓰는데 점획 하나가 적게 쓰였다. 점획 하나의 차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오류이다.

尝(cháng) “尝”, “偿”, “赏”, 이 글자들은 가끔 혼용하거나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尝”은 cháng으로 읽어 ‘맛보다, 시험해보다’의 뜻으로 쓰며 사람인변이 없는 글자이다. “偿”도 cháng으로 읽지만 ‘상환하다, 배상하다’는 뜻을 가지며 사람인변이 있어야 한다. 한편 “赏”은 shǎng으로 읽어 ‘하사하다, 상을 주다’의 뜻으로 쓰며, “尚”자 아래에 “贝”를 쓴 글자이다. “贝”는 옛날 화폐였다. “偿还”은 “尝还”로 쓸 수 없고, “赏还”으로도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尝试”을 “偿试”로 쓰거나, “何尝”을 “何偿”으로 써도 안된다.

朝廷(cháo tíng) 이 단어는 자주 “朝庭”으로 잘못 쓰고 있다. “庭”은 ‘대청’이나 ‘뜰’을 나타내고 “廷”은 ‘조정, 궁정’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朝庭”으로 쓸 수 없고 “朝廷”으로 써야 맞다. “庭院”, “庭园”, “大庭广众”, “法庭”에서는 “庭”으로 쓴다.

嗔(chēn) “嗔”과 “瞋”은 모두 chēn으로 읽는다. 그러나 뜻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한다. ‘화와 분노’를 의미할 때는 “嗔怪”, “嗔责”에서와 같이 “口”자가 있는 “嗔”을 써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눈을 크게 뜨는 것을 의미할 때는 “瞋目而视”에서와 같이 눈목변이 있는 “瞋”를 써야 한다. 또 “目”자 옆에 “堂”를 더한

“瞠”은 chēng으로 읽고 ‘눈을 크게 뜨고 보다’는 뜻을 갖는다.

骋(chěng) pìn으로 잘못 읽거나 “聘”으로 잘못 쓰기 쉬운 글자이다. “聘”과 “骋”은 쓰는 법, 발음, 뜻이 모두 다르다. chěng으로 읽는 “骋”은 ‘말이 앞으로 달려 가다’는 뜻이므로 말마변을 쓰고 pìn으로 읽는 “聘”은 ‘초빙하다’의 뜻으로 귀이변(耳)을 쓴다.

箝(chī) 어떤 사람들은 이 글자를 “菴”로 잘못 쓴다. 또 tái나 shī로 잘못 읽기도 한다. “箝”은 chī로 읽어 ‘곤장이나 채찍으로 매질하다’는 뜻이며 그래서 대죽변을 쓰는 것이다. 윗 부분이 풀초변인 “菴”은 tái로 읽고 ‘이끼’의 뜻이다.

苳(chí) “苳”, “苳”, “苳”는 자형이 비슷하여 틀리게 쓰기 쉽다. 이 세 글자는 모두 풀초변을 포함하나 아랫부분은 차이가 있다. chí로 읽는 “苳”는 ‘草’아래에 ‘仕’를 더한다. “苳平(산동성에 있다)”에서와 같이 지명에 쓰인다. “苳”은 rěn으로 읽고 “草”아래에 “任”을 쓴다. ‘시간이 덧없이 지나다’는 뜻으로 “光阴荏苳”이라는 말에서 쓴다. “苳”는 chá로 읽고 “草”자 아래에 “在”를 쓰며 ‘그루터기, 전작지’를 가리킨다. “苳”는 한 획을 많이 써서 “苳”으로 쓰기 쉽고, “苳”은 한 획을 잘못 그어서 “苳”로 쓰기 쉽다.

弛(chí) “弛”와 “驰”는 발음이 모두 chí이며 자형도 비슷하여 혼동해 쓰기 쉽다. “弛”는 활궁변(弓)을 쓰며 ‘느슨하다, 완만하다’의 뜻이다. “弛缓”, “弛禁”, “弛懈”, “松弛”, “废弛 등에서 모두 “弛”를 써야지 “驰”를 써서는 안된다. “驰”는 말마변(马)으로 ‘말이 빨리 달리다’는 뜻이다. “驰骋”, “驰援”, “飞驰”, “奔驰”, “背道而驰”에서는 모두 “驰”를 쓰고 “弛”를 쓰지 않는다. 어떤 광고문구 중에 “远近驰名”, “驰名中外”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驰名”은 ‘명성을 멀리 떨치다’는 뜻이다.

飨(chì) “飨”와 “饰” 두 글자는 종종 혼동하여 잘못 쓴다. 그러나 자형과 발음이 모두 다르므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飨”는 chì로 읽고 ‘바로잡다’는 뜻

이다. 부수는 ‘讠’를 쓰고 오른쪽 위에 변형된 ‘人’을 쓴 후 그 아래 ‘力’를 더한다. 한편 ‘饰’는 shì로 읽고 ‘장식하다’는 뜻이다. ‘讠’자 오른쪽에 ‘人’자를 쓰고 그 아래 다시 ‘巾’을 더한 모양이다. 이 두 글자의 구분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으며 하나는 ‘力’이고 다른 하나는 ‘巾’이다.

充其量(chōng qí liàng) ‘가장 크게 어림잡다’는 뜻을 가진 부사는 “充其量”이지 “充齐量”으로 쓰면 안된다. ‘其’는 ‘그(그것), 저것’을 의미한다. 반면 “齐”는 ‘정돈’과 ‘일치’를 의미하므로 “充齐量”으로는 쓸 수 없다.

舂(chōng) “舂”와 “春”는 자형과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해서 읽거나 잘못 쓰기 쉽다. “舂”은 chōng으로 읽으며 “舂米”는 바로 ‘쌀을 찧다’는 말로 “舂”자의 아랫부분은 “臼”이고 “春”의 아랫부분은 “日”이다.

橱(chú) “橱柜”를 “厨柜”라고 쓰고 “厨具”를 “櫥具”라고 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모두 틀린 것이다. 이 두 글자는 서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혼용하면 틀리게 된다. 요리를 하는 방을 “厨房”이라고 하고 요리를 만드는 도구를 “厨具”라고 하며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厨师”라고 한다. 여기서는 모두 “厨”를 써야지 나무목변(木)이 있는 “櫥”를 써서는 안된다. “櫥”는 옷과 물건을 놓아두는 가구로서 “橱柜”, “衣橱”, “书橱”, “碗橱”, “橱窗” 등에서 쓴다. 여기서 “櫥”는 반드시 나무목변(木)이 있는 “櫥”를 써야 하며 “木”를 쓰지 않으면 틀리다.

创牌子(chuàng pái zi)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로써 상품이나 기업의 지명도를 높인다’는 말을 “创牌子”라고 한다. “创”은 ‘창업하다, 창조하다’의 뜻이다. “闯牌子”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闯”은 ‘돌진하다, 단련하다, 문제를 일으키다’는 뜻이다. 브랜드는 “돌진(闯)”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创)”해내는 것이므로 “创牌子”로 쓰는 것이 맞다.

淳(chún) “淳”과 “淳”, “惇”, “醇”, 이 네 글자는 오른쪽 부분이 모두 “享”으로 자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혼동한다. 그러나 부수가 서로 다르므로 확실히 구

분할 수 있어야 한다. chún으로 읽는 “淳”은 원래 ‘물이 새는 밭’을 가리키는 말
이므로 삼수변(氵)을 썼으나 오늘날에는 ‘순박하고 인정이 많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zhūn으로 읽는 “淳”은 ‘간곡히 타이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언변(讠)
을 쓰며 “淳淳教导”가 그 예이다. 또 dūn으로 읽는 “惇”은 ‘사람의 인품이 좋다,
믿음직하다’의 뜻이므로 “忄”을 쓰고 “醇”은 그 발음이 chún으로 ‘술 냄새가 농후
하다’의 뜻이므로 “酉”자를 쓴다. 옛날에는 “酒”자를 “酉”로 썼다. 부수가 다르면
포함하는 뜻도 각각 다르므로 분명한 구분법을 익혀야만 잘못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賜(cì) “扬”, “杨”, “肠”의 오른쪽 부분이 “扬”이어서 “賜”자에서도 “扬”을 쓸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扬”자는 “易”의 간체자이지 “易”자의 간체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賜”자를 “肠”으로 써서는 안되며 “肠教”, “肠给” 모두 틀
린 것이다.

凑(còu) “凑”자는 “凑巧”, “凑合”와 같이 부수가 이수변(氵)인데 사람들은 간혹
삼수변(氵)으로 잘못 쓴다. “凑”자에 삼수변을 쓰는 방식은 이미 폐지되었다.

D

担待(dān dài) ‘양해하다, 감당하다’라는 뜻으로 “您多担待”, “担待不起”에서와 같
이 주로 “担待”라고 쓴다. 그런데 이것을 “担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待”를 “戴”로 잘못 쓴 경우인데 “待”는 ‘대하다’는 뜻이고 “戴”는 “戴帽子”에서와
같이 ‘어떤 물건을 착용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担戴”라는 단어는 없다.

担心(dān xīn) ‘걱정하다’는 말은 “耽心”이 아니라 ‘担心’이라고 써야한다. “耽”은
‘시기를 놓치다’라는 뜻으로 “耽擱”, “耽误”에서는 “耽”을 쓰지만 “耽心”이라고는
쓸 수 없다.

导致(dǎo zhì) “关系导致破裂”에서 “致”는 ‘일으키다, 초래하다’의 뜻을 가진 말
이다. 그러나 “至”는 ‘다다르다, 이르다’의 뜻이므로 “致”를 “至”로 써서는 안되며

“导至”라는 단어는 없다.

倒胃口(dǎo wèi kǒu) ‘물려서 먹기 싫다’는 말을 “倒胃口”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倒味口”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위와 입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 ‘맛(味)’이 나빠진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味”를 쓸 수 없다. 또 “味”와 “口”는 나란히 쓸 수 없다.

祗(dī) “祗”, “祗”, “祗”, “祗”, 이 네 글자는 자형이 거의 비슷해 구분이 어렵고 혼동하기 쉽다. “祗”는 dī로 읽고 옷의변(衤)을 쓰며 오른쪽 아래에 점을 찍고 ‘짧은 옷’을 뜻한다. 또 “只”의 이체자인 “祗”는 zhǐ로 읽고 옷의변(衤)을 쓰며 아래에 점을 찍지 않는다. 한편 zhǐ로 읽는 “祗”는 옷의변(衤)쓰고 오른쪽 아래에 점을 찍어 ‘삼가다, 공경하다’의 뜻으로 쓰며 qí로 읽는 “祗”는 같은 옷의변(衤)을 쓰지만 오른쪽 아래 점이 없으며 ‘지신(地神)’을 뜻한다. 이 네 글자는 단지 부수나 점 하나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이들 중 “祗”와 “祗”는 “只”의 이체자이기도 하다.



调遣(diào qiǎn) “调遣”을 “调谴”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遣”은 ‘파견하다’는 뜻을 “谴”은 ‘질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调遣”은 ‘파견하다, 인사이동하다’의 뜻의 말로 “谴责”의 “谴”을 써서는 안된다.

E

俄顷(é qǐng) “俄顷”은 ‘매우 짧은 시간’의 뜻이다. 이 단어를 간혹 “俄倾”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qǐng으로 읽는 “倾”은 ‘기울어지다’는 뜻이다. “顷”과 “倾”, 이 두 글자는 자형, 발음, 뜻 모두 다르므로 “俄顷”을 “俄倾”으로 쓰면 안된다.

噩(è) “噩”와 “恶”는 발음이 같지만 뜻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恶梦”, “恶运”, “恶兆”라고 쓰면 “恶”을 모두 잘못 쓴 것

이다. “惡”를 ㄹ라고 읽을 때는 ‘혐오하다, 악렬하다, 흉악하다’와 ‘죄악’이라는 뜻을 가진다. “噩夢”, “噩運”, “噩耗”, “噩兆”에서는 모두 “惡”로 쓰지 말고 “噩”로 써야 한다.

迹(ěr) “闻名遐迹”의 “遐迹”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뜻한다. 그러나 간혹 이것을 “遐尔”로 쓰는 경우가 있다. “尔”은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 없으며 ‘먼 곳’을 의미하는 “遐”와 병렬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이외에 “迹来”라고 쓰면 ‘근래’의 뜻이며 “尔来”나 “而来”로 쓸 수 없다.

F

砣碼(fǎ mǎ) 가끔 “法碼”로 잘못 쓰는 단어이다. 무게를 잴 때 쓰는 천칭에 달린 물체를 “砣碼”라고 하는데 “砣”은 “石”변을 써야지 삼수변(礻)을 쓰는 “法”로 대신할 수 없다. “法”는 ‘법률’, ‘방법’, ‘모방하다’등의 뜻으로 저울추와는 관계가 없다. 또 “砣碼”도 틀리게 쓴 것인데 “砣”는 경태람을 만드는 ‘에나멜’이란 물질을 가리킨다.



坊(fáng) 큰 길이나 골목명에 많이 쓰는 글자로 북경에 “白紙坊”이라는 곳이 있으며 “節義坊(절개방)”에서는 ‘패방’을 뜻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소규모 수공업자의 작업 장소’를 “坊”이라고 하여 “油坊”, “粉坊”, “磨坊”등과 같이 쓴다. “坊”과 “房”은 다른 말로 “作房”, “染房”, “磨房”의 “房”은 모두 잘못 쓴 경우이다.

俸祿(fèng lù) ‘봉건시대에 관리의 월급’을 “俸祿”라고 했다. 이것을 “奉祿”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인변(亻)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俸”과 “奉”은 서로 다른 뜻이므로 “奉獻”의 “奉”도 “俸”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輻射(fú shè) ‘한 중심에서 각 방향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輻射”라고 한다. “輻”는 ‘차 바퀴에 있는 바퀴통과 바퀴테를 연결하는 막대’를 가리키는 말로 수레거변(車)을 써야하는데 “幅度”의 “幅”로 잘못 이용해 “輻射”라고 완전히

다른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傅(fù) “師傅”를 “师付”로 잘못 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傅”는 ‘보좌하다, 교도하다’의 뜻이며 “付”는 ‘교부하다, 넘겨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师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것을 “师父”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 “师父”는 ‘스님, ‘비구니’, ‘도사’에 대한 존칭이다. ‘기예를 전수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師傅”로 써야 한다.

G

丐(gài) “丐”는 “丐”으로 잘못 쓰기 쉽기 때문에 두 글자간의 필획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丐”는 gài로 읽고 ‘구걸하다’의 뜻으로 쓰거나 ‘거지’를 가리킨다. 윗부분은 “下”자 밑에 “与”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한 획을 빼서 더하면 된다. 한편 miǎn으로 읽는 “丐”은 ‘가리다, 보이지 않다’는 뜻으로 쓰며 윗부분에는 “丌”를 쓰고 왼쪽에 “乚”를, 오른쪽에는 “㇇”을 쓴다.

冈(gāng) “冈”과 “岗”은 가끔 통용되기도 하지만 같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간혹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여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다. gāng으로 읽는 “冈”은 ‘비교적 낮고 평평한 산마루’를 가리키는 말로 “山冈”, “冈峦”, “景阳冈”등에서 쓰며 발음이 같은 “岗”과 통용할 수 있다. 그러나 “岗”을 gǎng으로 읽으면 “黄土岗子”, “站岗”등에서 ‘높지 않은 산 또는 솟아오른 비탈언덕’이나 ‘직책’을 가리킨다. 이 때는 “岗”을 “冈”으로 써서는 안된다. “岗”은 또 gàng으로도 읽는데 이 때는 “岗尖(웅골지다)”, “岗甜”에서와 같이 ‘정도가 절정에 이름’을 뜻한다. 이 때도 “冈”과 통용할 수 없다. “山冈”은 “山岗”이라고 쓸 수 있으나 “站岗”을 “站冈”으로 쓰거나 “岗尖”을 “冈尖”으로 써서는 안된다.

高粱(gāo liang) 매우 익숙한 단어이지만 “高粱”으로 자주 틀리게 쓴다. “高粱”은 ‘곡식’의 일종이므로 “粱”자 아랫부분에 “米”자를 써야지 “木”자를 써서는 안된다. 반면 “梁”은 ‘집의 대들보’를 나타내는 말로 “木”자를 쓴다.

工龄(gōng líng) 자주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工令”으로 쓰기 쉬운 말이다. “齡”은 보통 ‘년수(年数)’를 나타내는 말로 “工龄”, “党龄”, “军龄” 등에서 쓴다. “令”을 “零”과 같은 말로 ‘숫자의 빈자리’를 가리킬 때는 líng으로 읽고, 양사로 쓰면 líng으로, ‘명령’의 뜻으로 쓰면 lìng으로 읽는다. 어떻게 읽든 ‘년수(年数)’를 가리킬 수는 없으며 “令”은 “齡”의 간체자도 아니다.

汨(gù) “汨”와 “汨”는 거의 비슷한 글자이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틀리게 쓰기 쉽다. gù로 읽는 “汨”는 삼수변의 오른쪽에 “日”자가 아닌 “曰”자를 쓴다. “汨”는 물이 흐르는 소리와 모양을 형용한다. 한편 mì로 읽는 “汨”는 삼수변(氵)을 쓰고 오른쪽에는 “曰”자가 아닌 “日”자를 쓴다. 강 이름인 “汨罗江”에서 쓴다.

信(guān) 이 글자는 “亻”변이 없는 “官”자와는 뜻이 크게 다르다. “地方官”, “当官的”의 “官”은 “亻”변이 없지만 “猪信”, “羊信”에서는 반드시 “亻”변을 써야 한다. 만약 “我不管他什么牛信、马信的, 错了就不听”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官”은 ‘관원’을 뜻하고 있으므로 “信”이라고 쓰면 틀리다. “猪信”, “羊信”이라는 것은 있지만 “牛信”, “马信”이란 것은 없다. “官”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을, “信”은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각각 나타낸다.

H

涵(hán) “涵”과 “含”은 매우 혼동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한다. “涵义”, “涵蓄”는 “含义”, “含蓄”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涵养”, “涵容”, “涵盖”을 “含养”, “含容”, “含盖”로 쓸 수 없고 “含义”, “含蕴”, “涵洞”, “内涵”을 각각 “涵意”, “涵蕴”, “含洞”, “内含”으로 쓸 수 없다. 또한 “请多包涵”이라는 말을 “请多包含”으로 쓸 수 없고 “包含几层意思”에서 “包涵”으로 바꿔 쓸 수도 없다.

呵(hē) “呵斥”, “呵护”, “呵欠”을 “喝斥”, “喝护”, “喝欠”으로 쓸 수 없으며 “呵呵大笑”도 “喝喝大笑”로 쓸 수 없다. 한편 “笑呵呵”는 “笑哈哈”로는 쓸 수 있으나 “笑喝喝”로는 쓸 수 없다. “喝”는 “喝水”, “喝酒”에서와 같이 ‘마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呵”대신 발음이 같은 “喝”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何尝(hé cháng) “何尝”은 반어적인 어투로 ‘그런 적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我何尝不想多念几年书, 但条件不允许。”같은 문장에서 “尝”은 “尝试”의 “尝”을 써야 하며 “偿还”의 “偿”을 쓰면 안된다.

合得来(hé de lái) ‘마음이 잘 맞다’는 말을 “合得来”라고 한다. “结合”의 “合”를 써야 하는데 종종 접속사인 “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和得来”는 틀리게 쓴 것이다.

和蔼(hé ǎi) “和蔼可亲”의 “蔼”는 초두밑변(艹)을 써야 하는데 윗부분을 “雨”자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蔼”는 ‘상냥하고 태도가 바르다’는 뜻이며 “霭”는 ‘안개’를 뜻하며 “烟霏”, “暮霭”에서와 같이 쓴다.

阂(hé) ‘막혀서 통하지 않다’라는 말을 “隔阂”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隔核”라고 잘못 쓰고 있다. “核”는 ‘핵심, 검증, 원자력’의 의미를 가지며 ‘막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哄(hōng) “哄动”은 “轰动”으로 쓸 수 있으며 “哄然”은 “轰然”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哄然”과 “轰然”의 뜻은 조금 다르다. “轰然作响”에서와 같이 ‘큰소리’를 나타낼 때는 “轰然”으로 써야 하고 “哄然大笑”에서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것을 형용할 때는 “哄然”으로 써야 한다. “哄然大笑”를 “轰然大笑”로 쓰거나 “轰赶”, “轰鸣”을 “哄赶”, “哄鸣”으로 쓰면 틀리다. 또한 “起哄”를 “起轰”으로 쓸 수 없으며 “哄传”, “哄抢”, “哄抬”에서는 모두 “哄”을 써야지 “轰”으로 쓰면 안된다.

蕪(hóng) ‘雪里蕪’은 채소 이름이다. “蕪”이라는 다소 어려운 글자로 종종 틀리게 쓰고 있다. “蕪”의 발음이 hóng이라고 해서 “红”이나 “葎”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蕪”은 “草”자 아래 왼쪽에는 “扌”를 쓰고 오른쪽에는 “共”을 쓴다.

“蕪”은 채소를 일컫는 고유명사이므로 다른 글자로 대신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는 쓰지 않는 글자이다.

划(huá) “划得来”와 “划不来”는 각각 ‘수지가 맞다, 수지가 맞지 않다’의 뜻인데 “花得来”, “花不来”로 쓰면 틀리다. 그리고 “把地划拉划拉”, “又划拉一堆旧衣服”등에서 쓴 “划拉”는 ‘뒹아내다’, ‘방법을 세워 얻다’의 뜻으로 쓴다. 반면 ‘글자를 아무렇게나 쓰다’라는 뜻으로 “画拉”라는 말이 있는데 “乱画拉”라고 쓴다. 여기서는 “乱划拉”라고 쓸 수 없다.

焕然(huàn rán) “焕然”은 ‘빛나다’라는 뜻이며 “焕然一新”은 ‘면모가 일신되다’라는 뜻으로 쓴다. 이것을 “涣然一新”으로 쓰면 틀리다. “涣然”은 ‘완전히 없어지다’라는 뜻이며 “涣然冰释”는 ‘얼음이 녹듯이 의심이 확 풀리다’라는 말이다.

惶惑(huáng huò) “惶惑”는 ‘두려워서 당혹해하다’의 뜻으로 “惶惑不安”이라고 말한다. 간혹 “慌惑”로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慌”은 ‘당황하다’는 뜻이며 “惶”은 ‘두려워하다’는 뜻이다. “惶惶”, “惶惑”, “惶恐”, “惶然”에서는 모두 “惶”을 써야 하고 “慌张”, “慌忙”, “慌乱”, “慌促”, “慌手慌脚”에서는 모두 “慌”을 써야 한다.

晃荡(huàng dang) ‘어떤 물체가 앞뒤나 좌우로 흔들리다’라는 말을 “晃荡”이라고 한다. “荡”이 ‘흔들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를 “恍荡”으로 쓰면 안되는데 “恍”은 ‘문득, 마치~과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晃当”도 틀리게 쓴 경우로 “当”은 ‘적당하다, ~라고 간주하다’의 뜻으로 ‘흔들리다’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晖(huī) “晖”는 ‘햇빛’의 의미로 “朝晖”, “春晖”, “斜晖”에서 모두 “日”자가 있는 “晖”를 써야 한다. “辉”는 ‘불빛’을 의미하며 “光辉”, “交辉”, “辉煌”, “余辉”에서는 모두 “光”자가 있는 “辉”를 써야 한다. “朝辉”와 “光辉”는 모두 틀리게 쓴 것이다. 단, “晖映”과 “辉映”은 같은 말이다.

晦气(huì qì) ‘불길하다, 재수없다’는 “晦气”를 “穉气”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잘못되었다. “穉”는 ‘더럽다’는 뜻으로 “穉气”는 ‘말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냄새’를 뜻한다. “满脸的穉气”라고 쓴다면 ‘얼굴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다’라는 뜻으로 변해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 그러므로 ‘재수가 없다’는 뜻으로 쓰는 “晦”자를 “穉”자로 써서는 안된다.

活泛(huó fan) “心眼活泛”이란 말은 ‘재치가 있다, 임기응변에 강하다’라는 뜻이다. 또 ‘주머니 사정이 좋다’라는 뜻으로 “活泛”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活泛”을 “活贩”으로 잘못 쓰고 있다. “贩”은 ‘판매하다’의 뜻으로 “活贩”이라는 말은 단어가 될 수 없다.

J

鸡蛋(jī dàn) 너무 자주 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르게 쓸것이라 생각하지만 잘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鸡旦”으로 잘못 쓰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蛋”은 닭이 낳은 알을 가리키고 “旦”은 ‘날이 밝다’, ‘새벽’ 혹은 ‘어느 날’ 등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元旦”에서 쓰고 있는 글자로 ‘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鸡旦”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旦”은 “蛋”의 간체자도 아니다.

己(jǐ) “己”, “巳”, “巳” 이 세 글자는 혼동해서 쓰기 매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미세한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自己”의 “己”는 jǐ로 읽고 글자는 윗부분이 모두 터지게 써야 한다. 이 부분을 반만 터지게 쓰면 yǐ라고 읽는다. 바로 “己经”의 “己”인데 반만 트이게 써야지 다 트이거나 아예 막히게 써서는 안된다. “巳”는 sì로 읽으며 “巳时(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서 쓴다. 이 글자는 윗부분을 다 막히게 써야지 완전히 열리거나 반쯤 막히게 써서는 안된다. 일상생활에서도 “自己”를 “自巳”로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여 써야 한다.

挤对(jǐ duì) “挤对人”이라는 말은 ‘사람을 강제로 복종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그

런데 이것을 “挤兑”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兑”는 ‘환전하다, 현금으로 바꾸다’는 뜻으로 ‘예금을 찾으려고 몰려들다’라는 말을 “挤兑”라고 한다. ‘사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挤兑人”이란 말은 쓸 수 없다.

豇豆(jiāng dòu) ‘가늘고 긴 콩 꼬투리’를 “豇豆”라고 한다. 이것을 자주 “江豆”로 잘못 쓰는데 “江河”의 “江”은 채소와는 관계가 없다.

佼佼(jiǎo jiǎo) “佼佼者”, “庸中佼佼”는 모두 ‘보통 수준을 넘어서다’는 뜻이다. 그런데 “佼佼”를 “姣姣”로 쓰면 틀리다. “女”자가 있는 “姣”는 “姣好”에서와 같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으로 쓰고 ‘보통 수준을 넘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姣”는 중첩해서 쓰지도 않는다.

孑孑(jié jué) 모기의 유충을 “孑孑”라고 한다. 이 두 글자를 잘못 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孑孑”와 같이 두 글자를 바꿔서 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丿”나 “㇇”를 “一”로 써서 “子”라는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경우이다.

羯(jié) “羯羊”은 거세한 양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양의 뼈로 만든 요리를 “羊羯子”로 쓰면 안된다. 뼈 중에 전갈같이 생긴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羊蝎子”라고 써야 한다. “羯”는 양양변(羊)을 써서 양의 종류를 나타내지 양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矜持(jīn chí) “矜持”는 ‘자중하다, 딱딱해지다’의 뜻을 가진 말로 “矜”의 편방은 “矛”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衿”으로 쓰는데 글자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衿”은 옷의변이며 ‘옷깃’이나 ‘옷고름’을 뜻하며 ‘자중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다. 또 “姘”으로 쓰는 경우도 물론 잘못된 것이다. “姘”은 ‘외숙모’ 또는 ‘처남이나 처형의 아내’를 뜻한다.

腈纶(jīng lún) “腈纶(아크릴섬유)”은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니크릴을 합성한 것이다. 그런데 “晴天”의 “晴”을 사용하여 “晴纶”으로 잘못 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睛”은 jīng으로 읽고 “晴”은 qíng으로 읽어 발음이 서로 다르다. “晴纶棉”으로 틀리게 읽는 사람도 적지 않다.

竞争(jìng zhēng) “竞争”을 “竟争”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竞”은 ‘경쟁, 시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竟”은 ‘끝내다, 결국’의 뜻을 가진 말이다. 그러므로 “竟争”이라고 쓰면 틀리다.

剧毒(jù dú) “剧毒”는 ‘맹독’을 뜻하는 말로 ‘거대한 독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巨毒”는 틀린 말이다. 또한 “剧增”은 급격히 증가하다는 뜻으로 “巨增”이라고 쓰는 것도 옳지 않다.

K

揩油(kāi yóu) ‘남을 속여 이득을 보다’라는 말을 “揩油”라고 한다. 이 말을 “开油”로 쓰면 분명히 틀린 것이다. 또 “卡油”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또한 틀린 글자이다. “揩”는 kāi로 읽고 ‘닦다, 칠하다’의 뜻을 가진다.

坎(kǎn) ‘땅이 조금 위로 올라온 부분’을 “坎儿”이라고 하며 “土坎儿”, “田坎儿”에서 모두 “坎”으로 쓴다. 그러나 “门槛”에서는 “门坎儿”으로 써서는 안되는데 이 때 “槛”은 jiàn이 아니라 kǎn으로 읽는다.

溘然(kè rán) “溘然”은 ‘갑자기’의 뜻이며 “溘然长逝”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라는 뜻이다. “溘”는 삼수변(氵) 써야 하는데 입구변(口)을 써서 “嗑”로 쓰거나 돌석변(石)을 써서 “磕”로 쓰면 모두 잘못된 것이다.

匮乏(kuì fá) “匮乏”는 ‘결핍되다,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馈乏”로 쓰면 안된다. “馈”는 ‘선사하다’는 뜻으로 “缺乏”를 “馈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馈乏”라는 말은 쓸 수 없다.

愤乱(kuì luàn) ‘어리둥절하다, 혼란하다’의 뜻으로 쓰는 “愤乱”이라는 말에서

“潰”는 심방변(卩)이다. 그러나 이것을 발음이 같은 “潰乱”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潰乱”은 ‘상처가 감염되어 썩다’는 뜻으로 “潰乱”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廓(kuò) “廓”와 발음이 같고 뜻이 비슷한 것으로 “阔”와 “扩”가 있다. 서로 혼동하여 잘못 쓰는데 “寥廓”, “轮廓”, “廓清”에서는 모두 “廓”를 써야 한다. 또 “廓大”, “廓张”은 “扩大”, “扩张”으로 쓸 수 있으나 “扩充”, “扩展”, “扩散”은 “廓充”, “廓展”, “廓散”으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리고 “广阔”, “辽阔”, “海阔天空”, “高谈阔论”에서 쓴 “阔”는 “廓”로 바꿔 쓸 수 없으며 “阔气”라는 말에서도 “阔”만 쓸 수 있다. “廖廓”는 ‘높고 텅비다’는 뜻이고, “辽阔”는 ‘넓고 광활하다’는 뜻이다.

L

刺(là) “刺”와 “刺” 두 글자의 필획의 차이를 주의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刺”는 là로 읽고 “刺戾”등에서 ‘거칠다, 건방지다.’라는 뜻으로 쓴다. 왼쪽에 쓰는 “束”는 가운데 부분의 입구를 막아야한다. cì로 읽는 “刺”는 ‘암살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이며 왼쪽부분이 “束”로 입구를 막으면 안된다. “阳光刺眼”이나 “秉性刺戾”로 쓰면 모두 틀린 것으로 가로획 하나가 있고 없음에 따라 서로 다른 글자가 된다.

腊月(là yuè) ‘음력 12월’을 “腊月”라고 하는데 “月”자가 있는 “腊”를 써야 한다. 이것을 “蜡月”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벌레충변(虫)이 있는 “蜡”는 “蜡烛”에서 쓰는 글자로 “蜡月”는 단어가 될 수 없다. 옛날 음력 12월에 모든 신에게 합동으로 제사 지내던 것을 “腊”라고 했는데 후에 제사를 지내던 달을 “腊月”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览胜(lǎn shèng) “览”은 ‘보다’라는 뜻이다. ‘풍경이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을 “览胜”이라고 한다. 그런데 “览”을 “揽”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揽”은 ‘안다, 맡다, 도맡다’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揽胜”이라고 말하면 ‘관광지를 안다, 맡다’의 뜻이 되므로 당연히 틀리게 된다. “览”을 앞부분에 쓰는 합성어는 “览胜”, 이 한 단어뿐이다. “览”은 합성어의 뒷부분에 자주 사용하는 글자

이다. 이 때문에 “览胜”과 같이 “览”을 합성어 앞에 쓰지 못하고 “揽胜”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滥用(làn yòng) “滥”은 ‘범람하다’과 ‘과도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乱”은 혼란하여 질서가 없음을 나타낸다. “滥用职权”, “滥用方言土语”에서 “滥用”은 ‘절제없이 과도하게 사용함’을 뜻하지 ‘함부로 사용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乱用职权”, “乱用方言土语”으로 쓰면 안된다.

醪糟(láo zāo) “江米酒(감주)”를 “醪糟”라고도 한다. “醪”은 ‘탁주’, ‘독한 술’이란 뜻으로 쓰는데 이것을 “捞糟”라고 쓰는 사람이 있다. “捞”는 ‘건지다’라는 뜻의 동사로 술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捞”는 lāo로, “醪”는 láo로 읽어 성조도 서로 다르다.

耒(lěi) 간체자 “来”를 “耒”로 잘못 쓰는 현상은 너무 자주 나타나는 일이라 별로 심각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이다. “来”는 가로획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가로획 사이에 좌우로 점이 있는 글자이다. “耒”라고 쓴 글자는 lái로 읽지 않고 lěi로 읽고 옛날 농기구의 일종이다.

哩(lǐ) “哩哩啦啦”는 ‘뚝뚝, 찢금찢금’이란 뜻을 가지며 “哩溜歪斜”는 ‘비틀비틀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여기서 “哩”는 입구변(口)이 있는 “哩”로 써야 한다. “离离啦啦”, “离溜歪斜”로 쓰는 경우는 “离”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莅任(lì rèn) “莅任”과 “历任”은 서로 다른 뜻인데 가끔 혼동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莅”는 “到”과 같은 말로 “莅任”은 ‘부임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것을 “历任”이라고 쓰면 틀린 것이다. “历任”은 ‘여러 차례 혹은 연이어 직무를 맡다’라는 뜻으로서 “上级派一位年轻专家莅任我厂厂长”에서 “莅任”을 “历任”이라고 쓰면 틀린 말이 된다.

联袂(lián mèi) 이 단어는 발음과 글자 모두 틀리기 쉽다. “袂”를 자주 jué로 읽

는데, 이 때문에 이 글자를 “联诀”나 “联抉”로 잘못 쓰기도 한다. “诀”는 ‘헤어지다’, ‘비법’을 의미하며 “抉”는 ‘골라내다’의 뜻이므로 “联”자와 단어를 이룰 수 없다. “袂”는 mè이라고 읽어 ‘소매’를 뜻한다. “联袂”는 ‘손을 잡다’는 의미로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다.

殓(liàn) 자주 쓰지 않아서 비교적 생소한 글자로 발음이 같은 글자나 비슷한 글자로 잘못 쓰기 쉽다. 죽은 사람을 관에 담는 것을 “入殓”, “收殓”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주 이것을 “入敛”, “收敛”으로 잘못 쓴다. “敛”은 ‘수렴하다’는 뜻으로 ‘납관’의 뜻을 나타낼 수는 없다.

粮(liáng) 이 글자는 매우 자주 틀리게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로 잘못 쓴다. “ ”이라는 글자는 없으며 또 “粮”자의 간체자도 아니다. 그 밖에도 “粮食”, “食粮”을 “粱食”나 “食粱”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틀리다. 그러나 “高粱”이란 말은 많이 쓴다. “粮食”은 ‘곡식’의 통칭이다.

靓(liàng) “靓”은 ‘예쁘다, 보기 좋다’의 뜻으로 보통 “靓女”, “靓仔”에서와 같이 사람을 말할 때 쓴다. “靓丽”라는 말도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낼 때는 “亮” 대신 “靓”을 쓸 수 없다. “一道亮丽的风景线”을 “一道靓丽的风景线”으로 써서는 안된다.

笼络(lǒng luò) ‘수단을 써서 사람을 끌어들이다’는 말을 “笼络”라고 한다. 이 말을 때로 “拢络”로 틀리게 쓴다. “拢”은 ‘합치다, 접근하다, 집계하다’의 의미로 “嘴合不拢”, “靠拢”, “拢共”등에서 쓴다. “笼”은 ‘뒤덮다’는 뜻이며 “拉拢”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拢络”라고는 쓸 수 없다.

M

螞(má) 청개구리를 “蛤蟆”라고도 하는데 蛤蟆”를 “蛤蚂”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蚂螂”이라고 할 때는 “蚂”라고 쓰며 “蚂螂”은 ‘왕잠자리’를 가리킨다. “蚂蚱(메뚜기)”, “蚂蟥(말거머리)”, “蚂蜂(나나니벌)”, “蚂蚁(개미)”에서는

모두 “蚂”를 쓰지만, “蛤蟆”에서는 “蛤蚂”라고 쓸 수 없다.

马甲(mǎ jiǎ) ‘겹조끼, 가죽조끼’를 “马甲”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马甲”와 ‘겹옷’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马夹”로 잘못 쓴다. 그러나 반드시 “甲乙”의 “甲”를 써야 한다.

埋怨(mán yuàn)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남에게 불만을 갖다’라는 말을 “埋怨”이라고 한다. “埋”은 mái로도 읽고 mán으로도 읽는 글자이다. 간혹 “埋怨”을 “蛮怨”, “瞒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되었다. “蛮”은 ‘거칠다, 난폭하다’는 뜻으로 쓰거나 “蛮好”에서와 같이 ‘매우’라는 뜻으로도 쓴다. 여기서 “蛮好”는 “满好”로도 쓸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瞒”은 ‘숨기다’라는 뜻으로, “瞒怨”이라고 쓰면 ‘원망을 숨기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옳지 않다.

贸然(mào rán) “贸然从事”를 “冒然从事”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冒”라는 글자가 ‘경솔하다(冒失)’라는 뜻이며 ‘덜렁덜렁 일을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贸然从事”은 ‘경솔하게,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다’의 의미이므로 반드시 “贸”를 써야지 “冒”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霉(méi) 蛋白酶(프로테아제), “乳酶生”, “胰酶(판크레이틴)”, “尿激酶(요소효소)”에서 쓰고 있는 “霉”는 ‘유기화합물’을 가리키며 종종“霉”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霉”는 “霉菌”, “霉烂”, “倒霉”, “霉雨天”에서 각각 ‘곰팡이’, ‘썩다’, ‘재수없다’, ‘장마날씨’등의 뜻으로 쓴다.

蒙(méng) méng으로 읽는 글자는 여러 개가 있다. 그러나 자형과 뜻이 다르므로 잘못 써서는 안된다. “蒙蒙亮”은 ‘날이 어슴프레 밝아오다’는 뜻이며, “濛濛”은 ‘가랑비’를 형용한다. “细雨濛濛”은 “细雨蒙蒙”으로 쓸 수 있다. 한편 “矜矜”은 ‘햇빛이 흐리다’는 뜻이며 “朦朧”은 “暮色朦朧”, “烟雾朦朧”에서와 같이 ‘달빛이 흐리다’와 ‘명확치 않다’는 뜻으로 쓴다. 그리고 “朦朧”은 눈이 실명했음을 가리키거나

잠들기 직전이나 금방 잠에서 깬 눈이 몽롱한 상태를 말한다. “蒙”, “濛”, “矇”, “朦”, “矓”은 발음이 모두 같으나 뜻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바르게 쓸 수 있다.

懵(měng) “懵懂”은 ‘모호하다, 사리에 어둡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蒙懂”으로 쓰면 틀리다. “蒙”은 ‘기만하다, 남을 속이다’라는 뜻으로 “懂”과는 관계가 없다. “蒙”은 “懂”과 단어를 이룰 수 없다.

眯瞪(mī deng) ‘잠깐 눈을 붙이다’라는 말을 “眯瞪一会儿”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것을 “迷登”이나 “迷瞪”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틀리다. “眯瞪”은 두 글자 모두 잠이나 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목변을 써야 한다. “迷瞪”은 ‘골몰하다, 아리송하게 되다’의 뜻으로 쓰이며 “迷登”이라는 말은 없다.

弥(mí) “弥漫”은 “迷漫”으로 쓸 수 있고 “弥蒙”은 “迷蒙”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弥散”은 “迷散”으로 쓸 수 없고 “弥天”은 “迷天”으로 쓸 수 없다. 또 “迷离”, “迷茫”, “迷雾”는 각각 “弥离”, “弥茫”, “弥雾”으로 쓸 수 없다. “弥”는 ‘두루 미치다, 골고루 퍼지다’의 뜻이며, “迷”는 주로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다’의 의미로 쓴다. 이 두개의 뜻은 혼용할 수 없다.

靡(mí) “靡靡之音”은 “糜糜之音”으로 쓰면 틀리다. “靡”는 mí로 읽고 아랫 부분에 “非”자를 쓴다. 이 글자는 ‘퇴폐적이고 음탕하다’, ‘저급한 기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í로 읽는 “糜”는 아랫 부분에 “米”자를 쓰며 “生活糜烂”등에서 ‘사치스럽다’, ‘씩어 문드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秘(mì) “秘”는 ‘비밀’이란 뜻이며 “密”은 ‘긴밀하다, 친밀하다, 정밀하다’는 뜻 이외에 ‘비밀’을 뜻하기도 한다. 이 두 글자로 만들어지는 단어 또한 매우 많은데 혼동해 쓰기 쉽다. “秘密”, “秘诀”, “秘闻”, “秘方”, “秘事”, “秘史”, “密室”, “秘而不宣” 등에서는 모두 “秘”자를 써야 하며, “密约”, “密件”, “密令”, “密码”, “密电”, “密谋”, “密谈”, “密探”, “密使”, “密告”, “密会”, “密级”, “密封”, “保

密”，“机密” 등에서는 모두 “密”자를 써야 한다. “秘” 뒤에 오는 어소는 대부분 명사 성질의 것으로 “诀”，“事”，“方”，“史” 등이 온다. 반면 “密”뒤에 오는 어소는 동사성의 것들이 많아 “探”，“谋”，“谈”，“告”，“封” 등이 온다.

蘑菇(mó gu) ‘식용버섯’을 가리키는 말로 이 두 글자는 모두 초두밑변(ㄹ)을 쓴다. 어떤 사람들은 “草”자를 빼고 “磨姑”라고 적는데 틀린 것이다. 그 외에 “你別跟我蘑菇”라는 말에서 ‘귀찮게 달라붙다’는 뜻을 나타낼 때나 “別蘑菇了，快走吧”라는 말에서 ‘시간을 끝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모두 초두밑변(ㄹ)이 있는 “蘑菇”를 써야 한다.

沫子(mò zi) 거품, 즉 액체로 된 포말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沫子”는 “末子”로 쓸 수 없는데 “末子”는 “锯末子”，“煤末子”에서와 같이 ‘부서져서 가루처럼 된 물건’을 나타낸다. 액체로 된 것은 “沫”로 쓰고 가루로 된 것은 “末”를 쓴다.

漠然(mò rán) ‘관심이 없다, 개의치 않다’라는 뜻의 “漠然”을 써서 “漠然置之”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漠然”은 “蓦然”으로나 “默然”으로 쓸 수 없다. “蓦然”은 “蓦然醒悟”에서와 같이 ‘갑자기’의 뜻을 가지며 “默然”은 “默然相对”에서 침묵해 말이 없는 모양을 가리킨다.

牟(móu) “非法牟利”，“牟取暴利”의 “牟”는 “谋”와 발음이 같고 모두 ‘모색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谋”자로 바꿔 쓸 수 없다. “谋生”，“谋职”，“谋求”，“谋取利益” 등에서 쓰는 móu가 바로 “谋”이다. “谋取暴利”라고 쓰면 잘못된 것이다.

N

赧(nǎn) “赧然”은 난처한 모양을 나타내며 “赧然一笑”와 같은 말이 있다. “赧颜”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다’는 뜻이다. “赦”와 “赦”를 혼동하여 “赦然”，“赦颜”으로 쓰는 이가 있는데 잘못 쓴 것이다. “赦”는 ‘사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蹑手蹑脚(niè shǒu niè jiǎo) 이 단어는 걸을 때 발걸음을 가볍게 내딛는 모양을 형용한다. 걸음새를 나타내고 걸음은 또 “발(足)”을 사용하기 때문에 “蹑”자는 발족변(足)을 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심방변을 써서 “懈手懈脚”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蹑”의 발음은 niè이고 “懈”의 발음은 shè로 발음도 서로 다르다.

忸怩(niǔ ní) “忸怩”는 ‘부끄럽다, 우물쭈물하다’는 뜻으로 “忸怩作态”에서와 같이 두 글자 모두 심방변을 쓴다. 가끔 손수변으로 써서 “扭怩”로 잘못 쓰는 경우가 보이는데 “扭”는 ‘돌리다, 비틀다’의 의미이다. “扭捏”라는 단어는 ‘길을 걸을 때 몸을 고의로 흔들다’ 또는 ‘말을 머뭇거리다’는 뜻으로 “扭扭捏捏”와 같이 쓴다. 그러나 . “扭捏作态”라고 쓰면 틀리다.

拗(niù) “拗”는 ‘완고하다, 외고집이다, 온순하지 않다’는 뜻을 가진다. “妈妈拗不过儿子，还是依他了”라는 문장에서 “拗不过”는 “扭不过”，“拧不过”로 쓸 수 없다. “胳膊拧不过大腿”，“胳膊扭不过大腿”와 같이 “拧”나 “扭” 모두 쓸 수 있다. 그러나 “胳膊拗不过大腿”라고는 쓸 수 없는데 이것은 “拗”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P

派司(pā si) ‘통과시켜주다’라고 할 때 보통 “派司”라고 한다. ‘출입증, 통행증’을 “派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때 “派”는 pā로 읽어야지 pài로 읽으면 안된다. 또 이것을 “帕司”나 “拍司”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 “派司”의 영문은 “pass”이다.

赔不是(péi bù shì) ‘赔礼道歉’을 보통 “赔不是”라고 한다. “赔”는 “赔偿”의 “赔”를 써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陪伴”의 “陪”를 써서 “陪不是”로 잘못 쓴다. 하나는 “贝”자를 쓰고 하나는 “冫”자를 쓴다. 두 글자는 자형과 뜻이 다르므로 잘 구분하여 써야 한다.

怦(pēng) ‘가슴이 뛰다’라는 말은 “心理怦怦直跳”에서와 같이 “怦”을 쓴다. “砰”과 “嘭”도 모두 소리를 형용하지만 ‘가슴이 뛰다’라는 말을 형용할 수는 없다.

“砰”은 ‘부딪치거나 무거운 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이고 “嘭嘭”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나타낸다. “心理嘭嘭直跳”라고는 쓸 수도 있다.

膨胀(péng zhàng)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이 “膨胀”이다. “胀”은 “热胀冷缩”의 “胀”을 쓰는데 이것을 “膨胀”으로 잘못 쓰는 사람도 있다. “涨”은 ‘위로 오르다’의 뜻으로 “水涨船高”, “物价上涨”에서와 같이 쓰며 zhǎng으로 읽어야 한다. 한편, “豆子泡涨了”에서와 같이 고체물질이 액체를 흡수한 후 체적이 커졌음을 뜻할 때, “头昏脑涨”에서와 같이 ‘충혈하다’의 의미로 쓸 때, 그리고 “钱花涨了”에서와 같이 ‘초과하다’는 뜻으로 쓸 때 “涨”은 zhàng으로 읽어야 한다.

疲惫(pí bèi) ‘대단히 피곤하다’는 말을 “疲惫不堪”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惫”는 반드시 아래에 “心”자를 써야 한다. 准备的 “备”을 그대로 쓰면 옳지 않다.

偏僻(piān pì) ‘시내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한 곳’을 말할 때 “偏僻”라고 한다. “僻”은 사람인변을 쓰며 “辟”로 쓰면 틀리다. 또 “辟”도 pì라고 읽지만 ‘열다’ 또는 ‘치밀하다’의 뜻으로 쓰며 “偏僻”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贫瘠(pín jí) “贫瘠”는 ‘토지가 비옥하지 않다’는 말로 “瘠”는 ‘메마르다’는 뜻이다. 병질안변(疒)이 없는 “脊”는 ‘등, 등뼈’를 나타내므로 “贫脊”라고 쓰면 안되고 반드시 병질안변(疒)을 넣어 “瘠”라고 써야 한다.

Q

企求(qǐ qiú) “企求”를 “乞求”로 쓰면 안되는데 두 단어는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我只想靠诚实劳动生活, 没有别的乞求”에서 “乞”는 “企”로 고쳐 써야 한다. “乞求”는 ‘구걸하다’는 뜻을 가지며 “企求”는 ‘얻기를 희망하다’는 의미이다.

讫(qì) “收讫(영수필)”, “验讫(검사필)”을 각각 “收迄”, “付迄”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讫”는 ‘완결하다’는 뜻으로 “收讫”, “付讫”는 각각 ‘영수를 마치다’, ‘계

산을 마치다'의 뜻으로 쓴다. 반면, “迄”는 ‘다다르다’라는 동사나 ‘줄곧’의 뜻인 부사로 써서 “迄今”, “:迄未见效” 등에서 쓴다.

葺(qì) ‘집을 수리하다’는 말을 “修葺”라고 하며 “修葺一新”이라는 말이 있다. “葺”는 qì로 읽고 초두밑변(ㄸ) 아래에 “口”자를 붙이고 다시 그 아래에 “耳”를 붙인다. “口”를 빼먹으면 “葺”자라는 다른 글자가 된다. 즉, “修葺”을 “修葺”으로 쓰면 틀린 것이다. “葺”은 róng으로 읽고 ‘용모’를 가리키며 “草”자 아래에 “耳”자를 붙이고 중간부분에 “口”자는 없다.

青睐(qīng lài) “备受青睐”는 ‘사랑을 받다’는 뜻이다. 여기서 “青睐”는 “青徠”로 쓰면 틀리다. “睐”자는 lài로 읽고 ‘눈을 똑바로 하고 보다, 중요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徠”는 lái로 읽고 招徠顾客’등에서 ‘불러들이다’라는 뜻으로 쓴다.

拳拳(quán quán) “拳拳”은 “情意拳拳”, “拳拳之忱”등에서 ‘간절하다’라는 뜻으로 쓰며 “惓惓”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杈杈”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杈”은 ‘권력’을 나타내는 말로 중첩해 쓸 수 없다.

R

冉冉(rǎn rǎn) “月亮冉冉升起”는 달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형용한다. “苒苒”으로 쓴다면 잘못 쓴 것이다. “苒”와“冉”는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苒”와 “荏”이 한 단어를 이루어 “荏苒”이라고 쓰면 “rěn rǎn”으로 읽고 “光阴荏苒”에서와 같이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는 뜻을 나타낸다.

融洽(róng qià) 서로의 감정이 좋은 것을 “关系融洽”라고 말한다. “融洽”는 “溶洽”로 잘못 써서는 안되는데 “融”은 ‘융합, 조화’의 뜻을 지니므로 “融洽”라는 단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溶”은 ‘녹다, 용해되다’라는 뜻으로 “溶洽”라는 말은 없다.

S

洒落(sǎ luò) 흩어지며 떨어지는 것을 “洒落”라고 한다. “洒”와 “撒”의 뜻이 서로 다르므로 이것을 “撒落”라고 쓸 수 없다. “往地上洒点水”, “粮食洒落了一地”, “洒泪分别”에서는 모두 “洒”로 써야지 “撒”로 써서는 안된다. “撒”는 “撒手”, “撒网”, “撒尿”등에서 ‘놓다’, ‘퍼다’라는 뜻을 가지며 “撒赖”, “撒娇”등에서는 ‘발휘하다’, ‘펼쳐보이다’라는 뜻으로 쓴다. 이 때는 모두 “撒”로 써야지 “洒”로 쓰면 안된다. “洒尿”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틀린 것이다.

搔痒(sào yǎng) 피부가 가려울 때 “搔痒”이라고 한다. “搔”는 sào로 읽고 부수는 “疒”자이다. 이것을 “搔痒”이라고 쓰면 틀린 것이다. “搔”는 sāo로 읽고 ‘손으로 긁다’는 뜻을 가진다. “搔痒”은 형용사이고, “搔”나 “搔痒”은 모두 동사로 쓴다.

姗姗(shān shān) “姗姗”은 ‘걸는 자태가 느리고 여유로운 모양’을 나타내며, 예를 들면 “姗姗来迟”등이다. 비록 ‘느리게 걷는 모양’을 뜻하긴 하나 “足”자가 있는 “跚”을 쓰면 안 된다. “蹒跚”는 “步履蹒跚”에서와 같이 ‘휘청거리며 걷는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姗姗”을 “珊珊”으로 써도 틀리다.

闪烁(shǎn shuò) “闪烁”는 ‘빛이 흔들거리 밝았다 어두웠다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闪烁其词”에서와 같이 말을 할 때 숨기는 것이 있음을 나타낸다. “烁”는 shuò로 읽으며 불화변에 “乐”을 더한 것이다. 때로 이 단어를 “闪烁”로 쓰는데 잘못 쓴 것이다. zhuó로 읽는 “灼”는 “真知灼见”에서 ‘확실한 견해’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또 ‘밝기’를 나타내는 말로 “目光灼灼”라는 말에도 쓰기는 하지만 ‘갑자기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다’는 뜻은 없다.

赡养(shàn yǎng) “赡养”은 종종 “瞻养”으로 잘못 쓰인다. shàn으로 읽는 “赡”은 “贝”자 부수를 쓰고 ‘풍부하다, 넉넉하다’는 뜻을 가진다. “赡养”은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zhān으로 읽는 “瞻”은 “目”자 부수를 쓰고 ‘앞쪽이나 위쪽을 향해서 보다’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瞻养”은 단어가 될 수 없다. 한편 “瞻仰遗容”에서 쓴 “瞻仰”이라는 단어는 ‘공경하여 우러러보다’는 뜻이

다.

烧卖(shāo mai) 찐빵과 비슷한 식품으로 밀가루를 익반죽하여 피를 얇게 만들고 그 안에다 소를 넣은 음식이다. 종종 “烧麦”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卖”를 ‘보리’를 뜻하는 “麦”로 쓰면 틀리다.

稍息(shào xī) 훈련할 때 ‘차렷자세’를 ‘쉬엷자세’로 바꾸도록 외치는 구령을 “稍息”라고 하며 ‘조금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를 “捎息”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것이다. “捎”도 shào라고 읽지만 뜻이 달라 ‘말이나 노새 등을 뒷걸음치게 하다’라는 뜻이다.

畚族(shē zú) 중국의 소수민족중의 하나로 주로 푸젠성(福建省)과 저지양성(浙江省) 일대에 분포해 있다. 여기서 “畚”자는 “余”자 아래에 “田”자를 더한 것이지 “余”자 아랫부분에 “田”자를 더한 것이 아니다. “余”는 shé로 읽고 “余”는 yú로 읽는 글자이다. 서로 한 획의 차이만 있어 혼동하기 쉽다.

莘莘(shēn shēn) “莘莘学子”라는 용법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辛辛学子”로 잘못 쓴다. “莘莘”은 ‘매우 많다’는 것을 형용하는 말이지 ‘고생하다’는 뜻이 아니다. 또 “莘”은 shēn으로 읽지 xīn으로 읽을 수 없다. 단, 지명으로 쓰일 경우에는 상해시에 있는 “莘庄”에서처럼 xīn으로 읽는다.

箒(shěng) “不以一 shěng 掩大德”라는 문장의 의미는 ‘부분적인 과오 때문에 큰 공덕을 말살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shěng을 “省”으로 잘못 쓰고 있다. “省”은 “俭省”, “省城”, “省略”, “省悟”등에 쓰는 글자로서 이 문장에서는 과오를 뜻하는 “箒”을 써서 “不以一箒掩大德”으로 쓰는 것이 옳다.

拾掇(shí duo) “把屋子拾掇拾掇”에서 “拾掇”는 ‘정리하다’라는 뜻이다. “掇”은 ‘손수번’에 오른쪽에는 네 개의 “又”자가 있으며 duō로 읽는다. 오른쪽부분에 “又”자

네 개를 쓰는 글자는 몇 개가 더 있는데, 서로 혼동해 쓰기 쉽다. zhuì로 읽는 “缀”는 ‘연관되다’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拾缀”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chuò로 읽는 “啜”은 ‘흐느껴올다’는 뜻으로 “拾”와 결합해 “拾啜”로 쓸 수 없다.

时辰(shí chen) 이 단어는 상용자이긴 하나 자주 틀린다. “时晨”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실, ‘시간’과 ‘새벽’은 결코 필연적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옛날에는 하루를 12등분하여 이를 “时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해, 달, 별’을 “星辰”이라고 통칭했으며 “良辰美景”, “诞辰”등에서와 같이 ‘시간, 날짜’를 “辰”이라고도 한다. “晨”은 ‘새벽’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时晨”으로 쓸 수 없다.

厮打(sī dǎ) “厮”는 ‘서로’의 뜻으로 “厮打”는 ‘서로 맞붙어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다. ‘찢고 싸우다’라는 뜻이 아니므로 가끔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것처럼 “撕打”라고 쓰면 안된다. ‘찢다’는 뜻의 “撕”는 “厮”와 동음이의어이다.

势利眼(shì lì yǎn) “势利眼”을 “势力眼”으로 써서는 안 된다. “势力”은 “有势力”, “势力强大”등의 말에서 ‘군사,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힘’을 나타낸다. 그러나 “势利”는 ‘재산, 지위 등을 보고 다르게 대우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势利眼”으로 써야 맞다.

松弛(sōng chí) 이 단어를 “松驰”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弛”가 잘못 쓰였다. “弛”는 ‘군마가 매우 빨리 달리다’는 뜻으로 “느슨하게 하다”라는 의미와는 오히려 서로 반대가 된다. ‘풀다, 해이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弛”를 써서 “松弛”라고 해야 옳다.

搜寻(sōu xún) ‘도처에서 찾다’라는 말을 “搜寻”이라고 하며 “搜寻证据”에서와 같이 쓴다. 그런데 이것을 “搜巡”으로 쓰면 잘못 쓴 것이다. “巡”은 ‘순찰하다, 순시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찾다, 조사하다’의 의미는 없다.

T

塌(tā) “塌”, “踏”, “蹋” 이 세 글자는 자형, 발음, 뜻이 모두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 “工作学习塌实”, “心理塌实”에서는 모두 “塌”를 써야하며 “踏步”, “践踏”, “脚踏实地”에서는 “踏”를 써야한다. 또 “蹋”는 ‘밟다, 짓밟다, 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蹋球”, “踢蹋”등에서는 “蹋”로 써야한다. “脚踏实地”는 잘못 쓴 말로 “脚踏实地”라고 써야 맞다.

汤圆(tāng yuán) “汤圆”, “元宵”, 두 단어에서 쓰는 yuán자는 서로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汤圆”은 ‘참쌀가루로 만든 둥근모양의 식품’이므로 “圆”자를 써야한다. 정월 15일 밤을 가리키는 “元宵”는 ‘상원절’이나 ‘원소절’이라고 하며 “元”자를 써야한다. “汤圆”을 “汤元”으로, “元宵”를 “圆宵”로 써서는 안된다. 또 “元宵”로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套近乎(tào jìn hu) “套”는 ‘관계를 맺다’는 뜻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어 가까이 하는 것을 “套近乎”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讨近乎”으로 쓰는데 틀리게 쓴 것이다. “讨”는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관계를 맺다’라는 뜻은 없다.

颧(tiǎn) “颧着脸撒谎, 不嫌害臊”에서 “颧”을 “舔”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철면피처럼 굴다’라고 할 때 “颧着脸”이라고 한다. “舔”은 ‘혀로 핥다’라는 뜻이므로 “舔着脸”으로 쓰면 당연히 틀린 것이다.

铁锨(tiě xiān) 잘 알고 있는 상용어휘이지만 자주 틀리게 쓰고 있는 글자이다. “铁铁”이라고 쓰는 경우가 매우 많다. 쇠금변(金)에 “先”자를 더하면 틀림없이 xiān으로 읽을 것이라고 여기나 사실 그렇지 않다. “铁”은 xī로 읽으며 ‘금속을 깎다’는 의미로 “铁床(프레이즈반)”, “铁工(프레이즈공)”등에서 쓴다. ‘땅을 파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은 “铁锨”으로 쓰며 “锨”은 xiān으로 읽어야 한다. 또 “铁锹”으로 써도 되며 “锹”는 qiāo로 읽는다.

听(tīng) “听”과 “厅”이 양사로 쓰일 때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캔음료와 캔담배 등의 양사로 “听”을 쓴다. 즉, “一听香烟”, “三听啤酒”라고 말한다. “听”으로도 쓰고 “厅”으로도 써서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외래어를 음역할 때도 표기법을 통일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영문으로는 “tin”이라고 쓰는 이 글자는 “听”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挺(tǐng) “挺”은 ‘빨리 걷는 모습’을 가리키며 “挺而走险”은 ‘궁지에 몰려 선불리 행동하다’는 뜻이다. 한편 “挺”은 “笔挺”, “挺拔”, “挺进”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挺而走险”을 “挺而走险”으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쇠금변(金)이 있는 “挺”을 쓰는 것이 맞다.

捅娄子(tōng lóu zi) 화를 초래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捅娄子”이라고 한다. 종종 사람들은 “捅漏子”로 쓰는데 “漏”자를 잘못 사용했다. “娄子”는 ‘소동, 재앙’을 뜻하는 말이고 “漏”는 물체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가리키므로 두 단어 간 뜻의 차이는 매우 크다. 따라서 “捅娄子”라고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W

歪斜(wāi xié) “口眼歪斜”의 “歪”는 “歪”로 쓰면 안된다. “歪”는 “身子歪斜”, “大树向一边歪斜”등에서와 같이 ‘바르지 않거나 곧지 않다’는 뜻을 갖는다. “歪”와 “歪”는 발음과 뜻이 같지만, “歪”는 ‘입이 삐뚤어지다’라고 할 때만 쓰는 글자이다.

外快(wài kuài) 정상적인 수입이외의 부수입을 “外快”라고 한다. 外快의 “快”는 ‘快慢’의 “快”를 써야한다. ‘덩어리’를 가리킬 때 쓰는 “块”를 쓰는 경우는 틀린 것이다.

惋惜(wǎn xī) “惋惜”는 ‘타인의 불행이나 사물의 뜻밖의 변화에 대해 동정하거나 애석해하다’라는 뜻이다. “惋惜”을 때로 “惋惜”나 “惋惜”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틀리게 쓴 것이다. “息”은 ‘한숨 돌리다, 휴식하다’라는 뜻이고 “婉”은 ‘완곡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모두 ‘애석하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惋惜”은 “惋息”나 “婉惜”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诬陷(wū xiàn) “诬陷”, “污陷”, “诬谄”이라는 단어들이 있다. ‘헐뜯어서 모함하다’는 뜻으로 “污陷”을 쓸 수 없는데 “污”는 ‘흔탁하다, 더럽다’라는 의미로 ‘헐뜯다’라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또 “诬谄”으로 쓰는 것도 옳지 않다. “谄”은 chǎn으로 읽고 ‘아첨하다’라는 뜻이며 ‘모함하다’의 의미가 없다. “诬陷”이라는 단어가 바로 ‘헐뜯어서 모함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이다.

毋(wú) “毋”와 “勿”는 혼동해서 틀리기 쉽다. 예를 들면, “不自由勿宁死”에서는 “勿”를 잘못 썼고 “切毋上当受骗”에서는 “毋”를 잘못 썼다. “毋”는 ‘~하지마라’는 의미로 “毋妄言”, “宁缺毋滥”등에서 쓴다. “毋宁”은 “与其补养强身, 毋宁运动健体”와 같은 문장에서 ‘~만 못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그리고 “毋庸”이라는 단어는 “毋庸置疑”, “毋庸讳言”이라는 문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勿”은 ‘금지’나 ‘그만두게 하다’라는 뜻으로 “切勿上当”, “请勿入内”등에서와 같이 쓴다.

戊(wù) “戊”, “戍”, “戌”, “戎”, “戍” 이 다섯 글자는 필획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글자모양이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읽고 쓰는데 혼동하기 쉽다. 이 글자들의 필획의 구별은 바로 왼쪽부분에 있다. “戊”는 wù로 읽고 ‘천간(天干)’의 다섯 번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戊戌变法”에서 쓴다. 왼쪽부분에 단 하나의 삐침이 있을 뿐이다. “戍”은 xū라고 읽고 “戍时”에서처럼 십이지가운데 열한 번째를 가리킨다. 이 글자는 왼쪽 삐침에 작은 가로획을 더한다. 그러나 가로획은 옆으로 나오지 않는다. “戌”는 shù로 읽고 “卫戌”, “戍边”등에서 ‘수비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왼쪽삐침에 점획을 더한다. “戎”은 róng으로 읽고 “兵戎”, “投笔从戎”등에서 ‘무기, 군대’등을 가리킨다. 왼쪽 삐침에 작은 가로획을 더하는데 이 때 “가로획”은 옆으로 나와야 한다. “戍”는 yuè로 읽으며 “戍”라고도 쓴다. 옛날 무기의 일종으로 도끼와 비슷하다. 왼쪽 세로획에 갈고리모양의 필획을 더한다.

X

悉心(xī xīn) “悉心”은 ‘전심전력하다’라는 뜻으로 “悉心研究”, “悉心照料”등에 쓴다. “悉心”을 “惜心”으로 쓸 수 없는 것은 “惜”이 ‘아끼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며 “息心”으로 쓸 수 없는 이유는 “息”이 ‘휴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皙(xī) “皙”, “晰”, “析”, 세 글자는 각각의 뜻이 다르므로 서로 대신해서 쓸 수 없다. “分皙”로 쓰거나 “清析”라고 쓰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清晰”, “明晰”에서는 “晰”로 써야 하고, ‘사람의 피부가 희다’는 뜻의 “白皙”에서는 “皙”로 써야 하며 ‘분석하다’의 “分析”은 “析”로 써야 한다.

喜鹊(xǐ que) “鹊”라는 글자를 xǐ로 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喜鹊”를 “鹊雀”로 잘못 쓰거나 “喜雀”로 잘못쓰기도 한다. 그러나 “鹊”는 què로 읽어야 하고 “喜鹊”가 바로 까치이다.

喜滋滋(xǐ zī zī) 마음이 아주 기쁨을 형용하는 말로 “喜滋滋”를 자주 쓴다. 이 단어를 간혹 “喜孜孜”, “喜兹兹”로 쓰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맞지 않은 표현이다.

罅(xià) 이 단어는 서면어로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틀리기도 쉽다. 이 글자는 xià로 읽고 왼쪽에는 “缶”를 오른쪽에는 “虍”를 쓴다. 어떤 이는 오른쪽 부분을 “虎”로 잘못 써서 xià를 “罅”로 쓰기도 한다. “罅漏”는 ‘틈새’라는 뜻으로 일이 누락되었음을 뜻한다.

先驱(xiān qū) “先驱”는 “先驱者”에서와 같이 ‘앞에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그 중 “驱”는 ‘내쫓다, 빨리 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다. 그런데 “先驱”라고 쓰면 틀리다. “驱”는 ‘신체’나 ‘체구’를 뜻한다. “为国捐躯”라는 말에서는 “驱”를 쓸 수 있으나 “先驱”라고는 쓸 수 없다.

陷阱(xiàn jǐng) 짐승을 잡기 위해 궁둥이를 파고 그 위를 아무도 모르게 덮은 것을 뜻하며 종종 사람을 해치는 음모를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서 “阱”은 물을 깊은 우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간혹 부주의하여 이것을 “陷井”으로 쓰는데 잘못된 것이다. “β”를 생략할 수는 없다.

笑咪咪(xiào mī mī) 미소를 지을 때 가늘게 뜬 눈의 모양을 형용하는 말이 “笑咪咪”이다. 이것을 “笑咪咪”로 쓰는 이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咪咪”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가리키지 사람이 웃는 모양이나 소리를 형용할 수는 없다.

协奏曲(xié zòu qǔ) 한 명의 독주자와 관현악단이 협연하는 대형기악곡을 “协奏曲”라고 한다. 여기서 “协”는 ‘공동, 협조’의 뜻이다. 이것을 “谐奏曲”라고 쓰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틀리게 쓴 것이다. “谐”는 ‘화합과 조화’를 뜻하지 ‘협력과 협동’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泄劲(xiè jìn) 각각 “泄劲”, “泻劲”, “懈劲”이라고 쓰는 단어들이 있다. “懈”는 ‘헤이하다, 태만하다’라는 뜻을, “泻”는 “倾泻”에서와 같이 ‘매우 빨리 흐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懈劲”, “泻劲”은 모두 틀린 말이다. “泄”는 “气可鼓不可泄”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액체나 기체가 새어나오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泄劲”이라고 쓰는 것이 바르며 “泄气”는 “泄劲”의 뜻과 같다.

囟(xìn) ‘간난아이의 머리위에 있는 아직 닫히지 않은 솥구멍’을 “囟脑门儿”이라고 한다. “囟”의 가운데 부분이 “x”로 자형이 비슷한 “囟”자로 잘못 쓰면 안된다. cōng으로 읽는 “囟”은 가운데 부분이 “夕”인 글자로 ‘굴뚝’의 뜻이다. 또한 발음이 같은 “芯”자로 써서도 안되는데 “芯”은 “爆竹芯子”에서와 같이 ‘심지’라는 뜻으로 쓴다. “捻子”라고도 하며 뱀의 혀를 “芯子”로 부르기도 한다.

玄乎(xuán hu) ‘막막하여 종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他说得太玄乎了”와 같은 문장에서 쓴다. 한편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나타낼 때는 “悬乎”라고 하여 “车差点翻了, 真悬乎”, “叫他去办这事儿, 我看悬乎”에서와 같이 쓴다. “从山

坡滚下来, 真玄乎”라는 문장에서는 “玄乎”를 잘못 썼고 “听他说得那么神, 我看悬乎”라는 문장에서는 “悬乎”를 잘못 썼다.

旋涡(xuán wō) 물결이 소용돌이를 이루는 것을 “旋涡”라고 한다. 유동체인 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삼수변이 있는 “涡”를 쓰는 것이 옳다. 또 두 글자 모두 삼수변을 붙여 “漩涡”라고 써도 된다. 그러나 “旋窝”라고는 쓸 수 없다. “窝”는 ‘새나 짐승, 곤충이 사는 곳’을 뜻한다. “窝棚”, “贼窝”, “窝藏” 등에서는 모두 “窝”를 쓴다.

渲(xuàn) “渲”, “渲”, “渲”, “渲”, “渲”, 이 글자들은 단지 부수만 다를 뿐이어서 때로 혼동하여 쓰기 쉽다. “渲”은 xuān으로 읽고 “渲哗”, “渲闹”, “渲宾夺主” 등에서 ‘소리가 크다’는 뜻으로 쓰고 “渲”은 xuān으로 읽어 “寒渲”, “渲腾” 등에서 ‘따뜻하다, 물체가 말랑말랑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寒渲”은 “寒渲”으로 쓸 수 없고 ‘물렁물렁하다’는 뜻의 “渲腾”을 ‘시끄럽다’는 뜻의 “渲腾”으로 써도 안된다. 그리고 xuān으로 읽는 “渲”은 “渲赫一时”에서와 같이 ‘명성이 자자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것을 “渲赫”로 써서는 안된다. xuàn으로 읽는 “渲”은 ‘번지다’의 뜻이며 “渲染”을 “渲染”이나 “渲染”으로 쓸 수 없다. 한편 “渲”은 xuàn으로 읽고 나무목 변을 쓰며 ‘신발이나 모자의 골’을 가리킨다.

熏(xūn) “熏”과 “熏”, “薰”은 모두 xūn으로 읽는다. 그러나 가리키는 뜻이 다르므로 서로 혼용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한 것을 나타내는 “醉熏熏”을 “醉熏熏” 혹은 “醉薰薰”으로 쓰는데 잘못 쓴 것이다. “熏”은 ‘연기에 그을리다, 물들다’의 뜻이며 “薰”는 보통 ‘꽃의 향기’를 나타내는 말로 술에 취한 모양을 형용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글자들이다.

徇(xùn) “徇”과 “询”은 종종 혼동해서 쓰게 된다. “查询”을 “查徇”으로 쓰거나 “咨询”을 “咨徇”으로, 또는 “徇私”를 “询私”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徇”은 ‘따르다, 굴종하다’의 뜻으로 “徇情”, “徇私”에서는 모두 두인변(彳)이 있는 “徇”을 써야 한다. “询”은 “查询”, “咨询”, “询问” 등에서 ‘묻다’는 뜻

으로 쓴다.

Y

湮没(yān mò) “湮没无闻(과문혀 버려 이름도 알 수 없다)”에서와 같이 ‘인멸하다’는 말을 “湮没”라고 쓴다. 한편 ‘비옥한 토지가 물에 잠기다’는 뜻으로는 “洪水淹没大片良田”에서와 같이 “淹没”라는 말을 써야 한다. 즉, 농작물이 잠긴 것을 “湮没”라고 표현하거나 인제가 묻히는 것을 “淹没”라고 표현하면 틀리게 쓴 것이 되는데 이 예들은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严峻(yán jùn) “严峻”을 가끔 “严竣”으로 쓰는 이가 있는데 “竣”자를 잘못 사용했다. “山”자가 있는 “峻”은 ‘높고 험준하다’는 뜻을 가진 말로 “严峻”은 ‘엄격하다, 중대하다’는 뜻으로 써서 “严峻的考验”, “形势严峻”과 같이 쓴다. 그러나 설립변(立)이 있는 “竣”은 ‘완결’의 의미로 “竣工”, “告竣” 등에 주로 쓴다. 그러므로 “严竣”이라고 쓰면 틀린 말이 되며 물론 “峻工”으로 쓰는 것도 맞지 않다.

贗(yàn) 이 글자는 매우 어렵고 쓰기도 까다로운 편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글자이다. “膺”자와 자형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贗”은 yàn으로 읽어 “贗品”, “贗币”, “贗本”등에서와 같이 ‘위조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广”이 아닌 “厂”을 쓰며 아래 부분에는 “贝”자를 쓴다. “膺”은 yīng으로 읽고 “义愤填膺”에서와 같이 ‘가슴’을 뜻하며 윗부분에 “广”자를 쓰고 아래 부분에 “月”자를 더한다. 종종 “贗品”을 “yīng 品”으로 읽거나 “膺品”으로 잘못 쓰는 사람을 볼 수 있다.

泱泱(yāng yāng) “泱泱”, “泱泱”, “洋洋”, “扬扬” 이 형용사들은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해서 쓰기 쉽다. 가령 “yāng yāng 大国”라는 말은 어느 글자를 써야 할까? “泱”자는 yāng으로 읽는데 “江水泱泱”, “泱泱大国”등에서 “泱泱”은 ‘수면이 넓거나 기백이 대단한 모양’을 뜻한다. “扬”은 yáng으로 읽고 “得意扬扬”에서와 같이 ‘득이양양한 모양’을 나타낼 때 쓴다. 이 말은 “得意洋洋”으로도 쓸 수 있다. “洋”은 yáng으로 읽는데 “洋洋”은 ‘매우 많다, 풍성하다, 규모나 기세가 성대하다’는 뜻으로 “洋洋大观”, “洋洋洒洒”등에서 쓴다. 또 “怏”은 yàng으로 읽는

데 “怏怏不乐”등에서 “怏怏”은 ‘불만이 있거나 기쁘지 않음’을 나타낸다. “扬扬”과 “洋洋”은 가끔 서로 대신해서 쓰이나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泱泱大国”는 “怏怏大国”로 쓸 수 없고, “洋洋洒洒”는 “扬扬洒洒”로 쓸 수 없다.

遥控器(yáo kòng qì) ‘유선이나 무선으로 된 장비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기계를 조정하는 기구’를 “遥控器” 혹은 “遥控板”이라고 한다. “遥控”은 ‘일정한 거리에서의 조종하거나 통제하다’는 뜻이지 무엇을 흔들어 통제한다는 뜻을 갖지는 않는다. “摇空器”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场(yì) 이 글자를 “场”으로 쓰면 잘못된 것이다. “场”자의 변체자는 “场”이며 “场”은 “易”의 간체자가 아니다. “場”는 yì라고 읽어 ‘밭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며 “疆場”에서와 같이 쓴다.

羸(yíng) “羸”, “羸”, “羸”, “羸” 이 네 글자는 쓰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렵다. 자형이 서로 비슷해서 혼동해 쓰기 쉬우므로 반드시 자세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성씨중의 하나인 “羸”은 yíng으로 읽고 아래 부분에 “月”과 “凡”사이에 “女”자를 쓴다. “羸”은 yíng으로 읽고 아래 부분에는 “月”과 “凡”사이에 “贝”자를 쓴다. “羸余”, “羸利”에서와 같이 ‘승리’를 가리킬 때 쓴다. 한편 “羸”는 léi로 읽고 아래 부분에 “月”과 “凡”사이에 “羊”자를 쓰며 “羸弱”, “羸顿”에서와 같이 ‘마르고 약하다, 피로하다’의 뜻을 갖는다. 그리고 “羸”자는 lü로 읽고 아래에 “月”과 “凡”사이에 “虫”자를 쓴다. ‘기생벌’의 일종인 “螺羸”라는 것이 있다. 이 글자들은 아래 부분에 “月”과 “凡”사이에 각각 “女”, “贝”, “羊”, “虫”자를 쓴다는 점이 다르다. 사람들은 자주 ‘승리’를 뜻하는 “羸”을 계집녀변(女)이 있는 “羸”으로 잘못 쓰는데 “贝”자가 있는 “羸”자를 써야 옳다.

犹豫(yóu yù)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라는 말을 “犹豫”라고 하고 이것을 “犹疑”로 쓰기도 한다. 이것을 “尤豫”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尤”는 ‘더욱, 특히’의 뜻으로 “尤甚”에 쓰거나 ‘특이하다’는 뜻으로 “无耻之尤”에 쓰며 “怨天尤人”에서는 ‘원망하다’는 뜻으로 쓴다. 모두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지 않으므

로 “犹豫”라고 쓰면 틀린 말이 된다.

预备(yù bèi) “预”는 ‘미리, 사전에’라는 뜻으로 “预备”는 ‘준비하다’는 말이다. 자주 “予备”라고 글자를 잘못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予”는 “预”의 간체자가 아니다. “予”는 ‘주다’라는 뜻으로 “予以支持”에서와 같이 쓴다. “予”와 “备”는 한 단어를 이룰 수 없다.

晕厥(yūn jué) “晕厥”를 “晕绝”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것이다. “晕”은 ‘혼미하다’는 뜻이고 “厥”은 ‘지각을 잃다’는 뜻을 가지며 “晕厥”은 ‘의식을 잃다’는 말이다. 그러나 “绝”는 ‘단절하다, 완전히 없어지다, 지나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서 ‘혼미하다’라는 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晕绝”라고는 써서는 안된다. 한편 “气绝”는 ‘숨이 끊어져 사망하다’는 뜻으로 “晕厥”와는 다른 뜻이다.

Z

暂(zàn) “暂”과 “崭”은 발음과 자형이 서로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暂”은 zàn으로 읽어 ‘짧은 시간’이나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短暂”, “暂停”, “暂缓”, “暂且”, “暂行条例”등에서와 같다. 그러나 “崭”은 zhǎn으로 읽고 “崭然而立”, “崭露头角”, “崭新的时代”등에서 ‘높고 험준하다’, ‘높아지다’라는 뜻을 가리킨다. “暂”은 ‘시간’을 나타내므로 “斩”의 아랫부분에 “日”을 쓰고 “崭”은 ‘고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斩”의 윗부분에 “山”을 써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글자는 자형을 잘 파악해 두면 쉽게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账(zhàng) “账”과 “帐”을 혼동하여 “记账”, “账单”을 각각 “记帐”, “帐单”으로 쓰는 예가 매우 많다. “账”은 조개패변으로 ‘화폐’나 ‘화물’과 관계된 것을 나타내고 zhàng으로 읽는다. “记账”, “还账”, “查账”, “账目”등에서 사용한다. 반면 “帐”은 수건건변(巾)을 써서 ‘천이나 실로 만든 덮개’와 관련된 것을 나타내며 zhàng이라고 읽는다. “蚊帐”, “帐篷”, “青纱帐” 등이 그 예이다.

招致(zhāo zhì) “招致”를 가끔 “招至”로 잘못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글자를 잘못 쓴 것이다. “招致”는 “落入骗子圈套，招致一场大祸”와 같은 문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는 의미로 쓴다. 그러나 “至”는 “到”와 같은 뜻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은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招至”라고 쓰는 것은 틀리다.

折叠(zhé dié) ‘한 겹 위에 다시 한 겹을 더하는 것’을 “疊”라고 하는데 “折叠”라는 말은 ‘접어서 쌓는 것’을 뜻한다. “迭”라는 글자는 ‘대체하다’라는 뜻으로 “更迭”와 같이 쓰는데 “折叠”를 종종 “折迭”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种子(zhǒng zi) “种子”는 곧 “籽”와 같은 뜻이다. “种籽”라는 말은 틀린 것이 된다. “棉花种子”를 “棉花籽儿”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나 “棉花种籽”라고 써서는 안되는데 “籽” 자체에 이미 “种子”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菜籽儿”，“花籽儿”에서도 모두 “种子”의 뜻으로 쓴 것이다.

